

일시: 2025년 9월 16일(화) 14:00~17:30

장소: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 2층 시청각실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제2회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학술대회

주최: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순천대학교인문학술원

지원: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계 행사 :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순회전

-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

개막식 : 2025.9.16.(화) 13:00(순천대박물관 기획전시실)

## 학술대회 식순

- 일 시 : 2025. 9. 16.(화) 14:00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 장 소 :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 주 최 :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 후 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지 원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시 간		내 용
14:00 ~ 14:20	20'	<b>[개회식] 인사말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하윤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대표)</li> <li>○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li> <li>※ 사회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li> </ul>
14:20 ~ 14:50	30'	<b>[주제발표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라좌도의 관점에서 본 영호도회소 활동</b></li> <li>- 발표 : 고석규 (목포대 명예교수)</li> <li>- 토론 :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소장)</li> </ul>
14:50 ~ 15:20	30'	<b>[주제발표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b></li> <li>- 발표 : 성주현 (천도교 상주선도사, 경희대 평생교육원)</li> <li>- 토론 : 김희태 (전 전남문화재 전문위원)</li> </ul>
15:20 ~ 15:50	30'	<b>[주제발표 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영호도회소의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의 지향</b></li> <li>- 발표 : 정호기(우석대 교수)</li> <li>- 토론 : 김명재(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사무국장)</li> </ul>
15:50 ~ 16:10	20'	<b>휴 식</b>
16:10 ~ 17:30	80'	<b>[종합토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장 : 신영우(충북대 명예교수)</li> </ul>

## 목 차

인사말	004
발표 1 : 전라좌도의 관점에서 본 영호도회소 활동 / 고석규	007
토론 1 : <전라좌도의 관점에서 본 영호도회소 활동> 토론문 / 김양식	041
발표 2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 성주현	045
토론 2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토론문 / 김희태	074
발표 3 : 영호도회소의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의 지향 / 정호기	079
토론 3 : <영호도회소의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의 지향> 토론문 / 김명재	100

학술대회 연계행사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기념 순회전시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 개막식 2025년 9월 16일(화) 13:00 순천대학박물관 기획전시실
--------------	---

<인사말>

## 영호도회소의 역사적 의미와 세계 속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이하윤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회장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연구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을 맞아, 순천을 비롯한 영호남 지역의 역사적 현장을 다시 돌아보고 그 의미를 새기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조명되어 온 영호도회소의 위상과 역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고석규 교수님, 성주현 선생님, 정호기 교수님, 그리고 날카로운 토론으로 학술적 깊이를 더해주시길 김양식 소장님, 김희태 위원님, 김명재 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학농민혁명연구소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는 자리가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이 남긴 정신을 오늘의 사회와 미래로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영호도회소가 중심이 되어 펼쳤던 농민군의 활동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항일 의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였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자주와 평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에 앞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 순회전시회가 “세계에 새겨진 혁명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개막식을 갖고 전시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K-한류의 진원지로서 세계만방에 문화적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당연히 동학농민혁명에 닿아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들은 그 뚜렷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념사업회는 학술 연구뿐 아니라, 유적 보존과 기념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호도회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오늘 논의된 성과들이 향후 지역 사회와 학계가 함께 성장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표 1

# 전라좌도의 관점에서 본 영호도회소 활동

## 고석규

국립목포대 사학과 명예교수

## 차 례

1. 머리말
2. 김개남의 위세와 세력 확대
3. 대일본전투 준비
4. 영호도회소의 설치와 조직
5. 전라좌도 내 상·하 연계
6. 영호도회소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 : 광양·하동·진주 전투
8. 영호도회소의 최후
7. 전라좌수영 공방전
9. 행정구역 개편과 순천의 위상 변화
10. 맺음말



## 발표 1

# 전라좌도의 관점에서 본 영호도회소 활동

고석규

국립목포대 사학과 명예교수

## 1. 머리말

여기서 살펴볼 대상은 순천을 근거지로 활동하였던 영호도회소이다.<sup>1)</sup> 영호도회소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어 비교적 상세하게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해 밝혀져 있다. 여기서는 기존 성과들에 기대어 전라좌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정도에 그쳤다.

영호도회소 활동을 보면서 문득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현 ‘전라북도’ 금구 출신인 영호대접주 김인배(金仁培, 1870~1894)가 어떻게 현 ‘전라남도’인 순천에 와서 지

---

1) 이 글에서 영호도회소와 관련하여 참고한 주요 논저들은 다음과 같다. 김준형,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경상사학』78, 경상대 사학과, 1992); 이상식·박맹수·홍영기 공저, 『전남동학농민혁명사』(전라남도, 1996.06.30); 이이화·우윤,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푸른역사, 2004.08); 김양식,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중심으로-」(『호남학』23권,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5.01); 박찬승, 「전남지방의 동학농민전쟁」(『호남문화연구』 제23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5.01);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남도문화연구』 26,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14); 김인덕, 「영호대도소와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 김인배의 활동과 순천, 광양, 여수지역 전투를 중심으로 -」(『송실사학』 통권 제34집, 송실사학회, 2015.06); 김현익,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조직과 활동」, 국민대 석사학위논문, 2023).

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이 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고 따라서 설명도 부족했다. 이 글에서는 이 점에 대한 해명에 주목하면서 영호도회소의 활동을 현재의 전라남·북도가 아닌 전라좌·우도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남원을 거점으로 한 전라좌도 동학농민군의 절대적 지도자, 김개남(金開南, 1853~1894)의 위세에 대해 알면, 또 순천이 남원과 같은 좌도 내의 행정구역으로 하도의 중심지였음을 알면, 김인배가 어떻게 순천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동학농민혁명 직후에, 지방행정구역이 기존의 8도제에서 23부제, 그리고 다시 13도제로 개편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나타난 동학의 자취를 찾아 이를 순천의 위상 변화와 연관시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영호도회소 활동 중 대 일본전투의 비중이 특히 컸던 점, 또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었던 점 등을 통해서 2차 봉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자 한다.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보다는 전라좌도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호도회소라는 점에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 2. 김개남의 위세와 세력 확대

대접주 김개남은 1차 봉기 이후 전봉준과 견줄 만한 남접농민군의 최고지도자였다. 5월 13일(음) 전주성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는 따로 남원으로 들어가서 전라좌도 여러 군현의 동학농민군을 조직하고 이끌었다.<sup>2)</sup>

김개남의 무리는 6월 8일 태인에서 순창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하루 머물다가 옥과를 거쳐, 담양·창평·동북·낙안·순천·보성을 넘어 곡성으로 갔다. 그리고 6월 25일 남원으로 들어갔다.

“적의 괴수 김개남(金開南)이 남원에 들어갔는데, 잔악한 행동이 특히 심하였으며 민간의 총과 말을 찾아내었다. … 적당이 각 곳에서 도회(都會)하였는데, 그 무리가 각각 수천 명이였다. 여러 고을에는 모두 접주(接主)가 있는데, 대접(大接)은 수만 명이 있고 소접(小

---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영, 「金開南과 동학농민전쟁」(『한국근현대사연구』 제2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5.02); 신영우, 「1894년 남원대도소의 9월봉기론과 김개남군의 해산 배경」(『동학학보』통권 제33호, 동학학회, 2014.12) 참조. 아울러 이하 이 글에서의 낱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양력의 경우에만 별도로 포기하였다.

接)은 수천 명이 있었다.”(『영상일기(嶺上日記)』, 1894년 6월 25일)

“김개남이 임실에서 남원으로 들어왔다. 이때는 부사 윤병관이 도망간 지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전라좌도의 거의 모든 도적이 남원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대략 7만여 명이었다. 남원의 지형은 길이 사방으로 통하기 때문에 모이고 흩어지기에 편리했다. … 개남이 도착하자 도적들은 군복을 입고 나가서 맞이했는데, 깃발을 들고 징을 치며 늘어선 행렬이 80리나 이어졌다. 지방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도적 떼의 기세가 이처럼 거센 적은 일찍이 없었다.”<sup>3)</sup>

재봉기에 대비해서 남원성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의 규모는 매우 컸고, 김개남의 위세도 대단하였다.

“이 무렵 호남의 도적은 몇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다. 김기범(김개남) 등은 우도 일대를 장악했고, 전봉준은 좌도 일대를 장악했다. 이들은 남원에 함께 모여 주변의 여러 읍에 돈과 곡식 따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동학의 포들을 불러 모으고, 부자들을 샅샅이 찾아 내 묶어서 끌어갔다. 시골의 토호들은 도망가고 집안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들판에서 거처하며 감히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비록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짓은 하지 않았지만,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빛으로 모조리 쓸어가는 행태는 최근엔 볼 수 없는 난리였다.”(『오하기문』2필, 6월 26일, 296쪽)

“전봉준은 수천의 무리를 거느리고 금구·월평에 웅거하면서 전라우도를 호령하였으며, 김개남은 수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남원성에 웅거하면서 전라좌도를 통할하였다. 그 나머지 김덕명(金德明)·손화중(孫化中)·최경선(崔景善) 등은 각각 어느 한 곳에 웅거하였는데, 그들의 탐학과 불법은 개남(開南)이 가장 심하였다. 전봉준은 동도에 의지하여 혁명을 도모하였다.”(『갑오약력(甲午略歷)』「이때 동도는 장성 등지에 주둔해 있었음」)

“호남적(湖南賊) 김기범(金箕範)이 남원을 점령하였다. 그는 전봉준과 2대로 나누어, 전봉준은 전주에서 김학진을 인질로 잡고 일도를 호령하며 형세를 보아 가면서 진퇴계획을 짰다. 김기범은 동학란이 일어날 때 남원으로 들어가 그곳의 풍부한 농산물을 보고 매우 부러워하였다. … 그는 격문을 먼저 보낸 후 들어왔으므로 관리와 백성들은 감히 그의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다.”(『매천야록』 高宗三十一年甲午 ⑥ 2. 金箕範의 南原 점령.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 황현 지음/ 김종익 옮김, 『오동나무 아래에서 역사를 기록하다(이하 『오하기문』)』(역사비평사, 2016), 376쪽. 원문에는 8월 25일조에 들어 있으나 6월 25일의 상황이 맞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런 기록들에서 보듯, 9월 재봉기 전까지 김개남은 전라좌도를 총괄하는 강대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그 후 김개남이 남원에서 대규모 대회를 열고 기포를 결의하였다. 8월 19일경부터 동학 농민군이 남원으로 모여들었다. 남원 유생 김재홍은 『영상일기』에서 남원 일대에서 봉기를 준비하는 농민군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부(本府, 남원부) 부동(釜洞)의 동학적도 강감역(姜監役), 유학규(劉學圭)가 다른 고장의 동학도 수천 명을 거느리고 본부에 와서 병장기와 활, 총, 화약을 도둑질하여 빼앗아서 말에 싣고 부동으로 갔다. 망가진 활과 남겨진 철조각은 모두 길거리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었다. 성안이 텅 비었다. 적당이 날마다 모여들어, 교룡산성(交龍山城)에 근거한 자가 수만 명이고 남원부 성안에 근거한 자 역시 수만 명이었다. 잔학한 행동이 매우 심하였다.”(『영상일기』, 1894년 8월 19일)

8월 19일 남원 농민군은 남원읍성과 교룡산성을 공격해 점령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인 8월 20일, 동학농민군 연합부대가 남원읍에 도회소를 설치하였다.

“흥양·보성·태인·남원 산동방 부동(山東坊 釜洞) 등지의 동학농민군 연합부대 천여 명이 남원읍 동헌에 도회소를 설치하고 군기와 산성 무기고를 파괴한 뒤 무기를 모두 탈거하였으며, 각 면의 부자들로부터 전곡을 빼앗았다.”(『고문서』2, 412쪽 ; 『주한일본공사관기록』2, 71쪽. 『영상일기』에는 8월 19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남원 집합 격문(檄文)을 보냈다.

“전라 각처의 동학농민군은 남원 땅에서 대공론(大公論)을 열 터이니 집합하라는 취지의 격문을 사방으로 보내어 이미 집합한 자가 수만 명이다. 각자 병기를 들고 곳곳에 횡행하면서 당외자(黨外者)의 재산을 강탈함에 따라 행로(行路)가 위험하여 여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2, 60쪽. 8월 27일(양 9.26))

8월 25일 남원 농민군대회를 열었다. 참여한 인원도 최소한 5만 명 이상이나 되었을 정도로 대회는 농민군의 열기로 가득찼다.

이 대회에서 김개남은 다음과 같이 척일(斥日)을 표방하고 이를 위해 기병해 영남을 거쳐 서울로 진격해 들어가기로 진로를 정했다.

“... 그러나 역당(逆黨)들은 도리어 더욱 교만하고 횡포하여 흉도(凶徒)들을 불러 모아 남원과 전주 등 각 고을을 함락하였다. 나라 창고에 있는 무기를 빼앗아 성곽에 웅거하여 험준한 지역을 지키며 감히 호령하며, 장차 영남으로 향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겉으로는 비록 일본을 배척한다고 하나 속으로는 반란을 도모하는 것이니 이는 참으

로 충신들이 피눈물을 삼켜야 할 날이며 열사들이 쓸개즙을 맛보아야 할 때이다.”(『박봉양 경력서(朴鳳陽經歷書)』, 1894년 8월 일 전라도 경상도 각읍 격문초)

이같은 농민군대회를 거쳐 2차 봉기가 예고되었다. 이를 계기로 각지의 농민군들은 곳곳에서 읍내를 무력 점거하고 무기를 빼앗는 등 재봉기 준비를 서둘렀다.

김개남은 남원에 거점을 정한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전라도 동북부 군현들인 순창·용담·금산·장수 등지의 동학 조직을 장악하였다. 또 패배하긴 했지만, 도의 경계를 넘어 경상도 함양과 안의까지 세력권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비록 여의치는 않았지만, 경상도까지 세력 확대를 시도할 만큼 활발히 활동하였다. 김산의 한 유생은 김개남이 왕을 칭하고 남원을 점거하고 있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김기범이란 자가 개남왕(開南王)이라며 참칭하고 남원부를 분할하여 점거하였다고 한다.”(『세장년록』 1894년 12월)

또 『매천야록』에서는

“金箕範 자신의 말에 의하면, 꿈에 어떤 神人이 그의 손바닥에다가 「開南」이란 두 글자를 써 주어 자호를 개남이라고 하였다 한다. 그러므로 그를 「介南」이라고 한 것은 발음이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김개남의 위세는 ‘개남왕’을 넘볼 정도였다.

### 3. 대일본전투 준비

『전봉준공초』에 보면 일본과 접전(接戰)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其後에 聞흔직 貴國이 開化라 稱호고 自初로 一言半辭도 民間에 傳布호미 無호고 또 檄書도 업시 率兵호고 우리 都城에 入호야 夜半에 王宮을 破擊호야 主上을 驚動호엿호기로 草野의 士民더리 忠君愛國之心으로 慷慨함을 不勝호야 義旅을 糾合호야 日人과 接戰호야 此事實을 一次請問코져 Һ니다.” “問日兵之犯於關 聞於何時오. 供 聞於七八月間 이외다. 問 聞於何人고. 供 聽聞狼藉 故自然知之외다.”

전봉준은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 소식을 7, 8월 사이에 들었다고 했다. 일병(日兵)의 범궤(犯關) 소문이 낭자하게 널리 퍼져서 자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전라도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등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준비하였다. 일본과의 전투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리 대비한 활동이었다.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에는, 6월 남원에 모인 동학농민군들이

“전에 폐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일어났으나 조유(詔諭)를 듣고 초토사와 화약을 맺고 … 잠시 무기를 내려놓고 있었지만 일본은 대병을 파견하여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한다. … 조금이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은 … 궁중의 일을 물을 겨를조차 없으므로 우리가 먼저 일어나 일병을 막아내어야 한다.”<sup>4)</sup>

고 하여 척왜양을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무렵까지 의결한 방략은 16일 대회 후에 대거 나주를 습격하여 함락하고 그 나머지 적은 남원 및 진주를 잡고 그곳을 거점으로 장악하여 일본병의 복상을 막는데 있다.”<sup>5)</sup>

고 하여 역시 일본병의 개입에 대한 대비에 주력하였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김개남은 남원 인접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6월, 곡성 읍내도 김개남 부대의 공격을 받아 여리(閭里)가 경탕(傾蕩)되기도 했다. 즉

“본현(곡성)은 지난해 6월에 김개남이 먼저 대낮에 침입하여 여러 날 동안 떠나가지 않아 마을이 무너지고 훼손되었습니다. 7월 초에는 또다시 장정부 제암리(霽岩里) 이사홍(李士弘)의 무리에게 밤에 습격을 받아 함락되어 창고의 무기와 민가의 재산이 약탈당해 남은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동쪽으로 남원, 서쪽으로 담양, 남쪽으로 순천이 연이어 저들의 소굴이 되었고, 바로 본현은 큰길에 고립된 읍으로 강력한 이 도적들 사이에 처하여 그 화(禍)를 유독 많이 입었습니다.”<sup>6)</sup>라 하였다.

8월 말부터 남원에서 재기포 준비를 한 김개남은 이 무렵부터 인근 읍으로부터 무기와 군수물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모았다.<sup>7)</sup>

“15일 도착한 남원부 검임 오수찰방(檄樹察訪) 양주혁(梁柱赫)의 첩보 내용에는, “동부 회소(同府會所)의 동학배들이 군목색리(軍木色吏)들을 난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 관고(官庫)에 사들여 놓은 쌀과 상납할 각 군목 20동 27필을 모두 탈취해 갔다”고 하였으며, 16일에 도착한 능주목사 조존두(趙存斗)의 첩보 내용에는, “동학도 10여 명이 포를 쏘며 본 주로 들어와 남원 대도소 김개남의 지휘라고 하며 공형들을 불러내어 동전 2만 냥과 백목 30동을 남원 회소로 수송하라고 공갈을 하며 재촉을 하였는데 그들이 부린

---

4) 「동경일일신문」 1894년 8월 5일(음력 7월 5일) 게재된 「7월 30일(음 6월 28일) 재부산특파원 平野의 부산특보」

5) 위와 같음.

6) 「谷城郡守報狀」

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8권.

행패는 다 말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일 도착한 광주목사 이희성(李羲性)의 첩보 내용에는, “본주의 공형들이 남원 회소의 동학도 전통문을 보니 군수물자가 매우 시급 하므로 동전 10만 냥과 백목 100동을 수송하되 만일 이를 어긴 공형들은 군율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며 … 18일 도착한 전주판관 신영휴의 첩보 내용에는, ‘본부 각면의 집강소장(執綱訴狀)과 민간의 소장을 받아보면 동비들이 대도소에서 군수물자로 사용한다는 핑계로 금년 가을에 바친 세미 중 각 면과 리에 배정한 숫자가 매우 많았으나 포군들이 돌아다니며 독촉하므로 견딜 수가 없다고 각 읍에서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sup>8)</sup>

김개남의 세력 확장은 그가 남원에서 전라좌도의 농민군을 소집한 8월 25일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김개남은 9월 재봉기 전에 구례, 담양, 순천, 곡성 이외에도 순창, 용암, 금산, 장수 등 전라좌도를 실질적으로 장악해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력을 확장해 갈 때 모두 남원대도소 김개남의 지휘임을 내세워 여러 곳에서 군수물자를 모았다는 점이다.

9월 들어 본격화된 세력 확대는 궁극적으로 대일항전(對日抗戰)을 준비한 것이었다.<sup>9)</sup> 김개남 휘하의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9월 1일부터 하동을 공략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영호도회소 농민군이 하동을 거쳐 진주 등지로 나아가자 진주에서도 호응하여 일어났다. 9월 8일 진주성을 점령한 김인배와 진주의 농민군은 9월 10일 충경대도소(忠慶大都所)의 이름으로 방을 내걸어 경상우도 각읍 각촌의 대소사민(大小士民)들에게 “복수로써 국가에 보답해야 할” 지금이야말로 “왜인을 섬멸하고 그 잔당을 초토”할 때라고 하여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였다. “왜적을 섬멸하고 그들의 잔당을 초토할 뜻으로 卞州에서 대회를 가졌습니다”라 하여 진주대회의 목적도 척왜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김인배의 하동·진주 진출의 목적이 단순히 세력 확대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대일항전을 위한 대비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주는 (경상우도) 33읍 중에서 대절도사(大節度使)의 영문(營門)이며, 삼남(三南)의 목구멍이 되는 곳입니다”<sup>10)</sup>라 하듯 부산으로 가는 길목이었는데, 이렇듯 남원 통치기 김개남의 세력 확장과 김인배의 영남 진출은 대일항전을

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遺의 件一, (12) [全州近地東學黨의 官庫物品奪取에 關한 報告], 2) [行全羅道觀察使 兼都巡察使 親軍武 南營外使 爲膽移事], 開國 503년 9월 18일.

9) 이 점에 대하여는 이진영, 앞 논문 참조.

10) 이상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遺의 件一, (21) [東學黨의 檄文通報 및 情報通知 요청] 중 「東學徒 掛榜」

위한 세력 증대이자 항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 4. 영호도회소의 설치와 조직

“서쪽의 임피·함열에서부터 동남쪽의 광양·순천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의 모든 동학도가 소와 땅을 팔아 양식을 마련한 뒤 살림살이 보파리를 짊어지고 보은에서 모이기도 한 날짜에 맞추고자 한꺼번에 길을 나섰기 때문에 인파로 길이 막힐 정도였다. 민간에서는 놀라 술렁이며 불안에 떠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수령들은 두려워서 몸을 사렸고, 감사 또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잠자코 있었다. 용기를 내어 명령 한마디 내리거나 병사 한 명이라도 내보내서 이들을 잡아들여 따져 묻는 관리는 한 사람도 없었다.”(『오하기문』 首筆, 1893년 1월, 112쪽)

1893년 광양·순천의 동학도는 보은취회에도 참여하였고, 그들의 기세는 드높았다.

한편 순천에서는 (1894년 음력 2월) 25일

“순천부의 백성 수천 명이 부 동쪽에 모였는데, 난리로 번질 기미가 역력했다. 부사 김갑규가 백성들에게 애걸했다.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 말에 백성들은 곧바로 흩어졌다. 갑규는 민영휘의 매부로, 관직에 나온 지 겨우 2년밖에 안 되었다. 그런데도 백성의 살가죽을 벗겨내고 생살을 도려내듯 가혹하게 재물을 착취하는 작태는 오히려 민씨를 능가했다. 바로 지난해에는 흉년이 든 탓에 백성들이 어렵사리 정해진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봄이 되자 갑규는 다시 백성들에게 논밭 1결마다 추가 세금으로 쌀 7말을 부과했다. 이는 백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으므로, 그로 인해 거의 난리로 번질 뻔했다.”(『오하기문』 首筆, 123쪽)

라 하듯이 갑오년 초 순천 역시 민란의 분위기가 뚜렷했다.

금구 출신의 김인배는 6월 8일 김개남을 따라 태인에서 순창으로 들어갔다. 그후 6월 25일 김개남의 무리는 좌도의 여기저기를 거쳐 남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김인배는 순천으로 가서 영호도회소를 설치했다.

“출진한 참모관·별군관이 보고합니다. … 순천부는 호남 좌도 바닷가의 큰 고을로서, 작년 6월 이후로 금구의 적과 김인배 무리가 각처의 비도를 이끌고 10만의 무리를 지어 성안에 들어앉아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를 설치하고, 무기를 약탈하고 사람들의 돈과 재물을 빼앗고 감히 군수품이라 일컬으며 돈을 배정하고 곡식을 걷는 일을 제멋대로 하였습니다.

아전은 숨고 백성들은 흩어져 읍 전체가 지탱하기 어려웠다.”(『순무선봉진등록』, 1895년 1월 13일)

김인배의 본명은 용배, 그가 살던 금구 봉서마을(현 김제시 봉남면 화봉리)은 김개남이 살던 지금실마을과 산 하나를 두고 이웃한 데다 원평장을 같이 이용하는 하나의 생활권에 속해 있었다. 1894년 백산 봉기 때 김인배는 김덕명과 함께 농민군을 거느리고 합류했다. 김개남은 순천의 전략적 가치를 파악한 후 6월 말에 김인배에게 순천으로 내려가 영호도회소를 설치하여 향후 활동의 교두보로 삼게 하였다.

순천에는 마침 부사가 없었다. 김갑규가 6월 이임한 후 약 2~3개월간 비어 있었다. 따라서 김인배는 비교적 쉽게 순천에 들어가 관아를 점거하였다. 순천부에 영호도회소를 설치하고 읍권을 행사하였다.

신임 순천부사 이수홍은 8월에 부임했으나, 다음 글에 보이듯이 그의 역할은 없었다.

“수홍은 8월에 순천에 부임했지만, 순천의 동학도와 인배 등이 이미 관청을 차지하고 관리 대하기를 마치 죄인 다루듯이 했다. 수홍은 비어 있는 관아에서 앉혀 지내며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들에게 열흘마다 시험 문제를 내주는 일을 소일거리로 삼고 있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다.”(『오하기문』3필, 447쪽)

김인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영호대의소(嶺湖大義所) 통령(統領)은 순천의 김인배”라는 표현도 그중 하나였다.<sup>11)</sup>

“순천부에서는 지난 (양력) 8월경부터 동학도가 멋대로 설치고 다니기 시작하여, 요즘에 와서는 동학도가 아주 점령해 버린 꼴이 되어 공공연히 조세 등을 받아내고 있다. ‘그곳 동학도의 거괴는 김인배이고 차석은 정우형(鄭宇亨)이라 칭하는 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sup>12)</sup>

라 하듯 김인배는 6월 말 영호도회소 설치 이후 조직을 갖추어 순천 일대를 장악했다.

영호도회소의 영향권은 어떠했을까? 순천·광양·승주·낙안 지역 등이 그 세력권 내에 있었다.<sup>13)</sup> 나아가 보성, 고흥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영호도회소는 지리산 남부권을 장악하였던 지역 특성 외에 섬진강을 건너 하동·진주에 이르는 경남 서부지역으로 끊임없이 진출하고자 하였다. 최종 공격 목표는 부산이었다.

11) 『大阪朝日新聞』, 1895년 明治 28年 1月 8日, “嶺湖大義所統領は順天の金仁倍”

12)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권,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29) [順天附近 民亂報告] 京第108號, 「1894년 12월 25일 在釜山 總領事代理 加藤增雄이 特命全權公使 伯爵 井上馨에게 올린 보고」

13) 박찬승, 앞 논문 참조.

영호도회소의 조직은 다음 표와 같다.<sup>14)</sup>

**【표 5】 영호도회소 조직 구성**

지역	지위 및 성명(출신)	사망 기타
영호도회소	嶺湖大接主 金仁培(금구) 嶺湖首接主 劉夏德(순천) 嶺湖都執綱 鄭虞炯(순천 쌍암면) 嶺湖都執綱 李友會 省察 權炳宅(순천) 順天都省察 孫作亂 光陽順天首接主 金鶴植	광양 효수(12. 7) 광양 효수(12. 8) 순천 포살(12. 6) 좌수영 압송 효수(12.11) 좌수영 압송 효수(12.12) 장흥 고전산 체포(1895. 9) 광양읍 포살(12.11)
순천	서면 접주 金永九·金哥 서면 馬夫 李卜根 별량면 접주 金永友 월등면 접주 南正日 울촌면 접주 鄭在哲 성찰 鄭志圭, 黃學連, 魏光石 송광면 성찰 金培玉 읍북내 崔宗卜 쌍암면 접사 李友會 아들	좌수영 압송 효수 (12.12) 長房囚 좌수영 압송 효수 (12.12) 좌수영 압송 효수 (12.12) 長房囚 長房囚 長房囚 장방수 순천 타살
광양	봉강면 접주 朴興西 인덕면 접주 成石河·朴小才·朴治西 사곡면 접주 韓君夾·韓辰有 옥룡면 접주 徐允若·徐亨若·李仲禮·河宗凡·徐通甫 월포면 접주 金明淑 섬거역 도접주 全甲伊(광양) 도집강 丁洪燮(광양) 동몽 趙伯元(광양)	광양 포살(12. 7) 광양 포살(12.8~9) 광양 포살(12. 8,10) 광양 포살(12. 8) 광양 포살(12. 9) 광양 참수(12.10) 광양 참수(12.10) 광양 포살(12.10)
동외접	書記 吳準己(운봉)	순천 타살(12.12)

## 5. 전라좌도 내 상·하 연계

전라남·북도로 나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북도의 금구 출신인 김인배가 남도에 와서

14)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재작성하였다.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색할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에는 남·북도의 구분보다는 좌·우도의 구분이 더 일반적이었다. 기존 8도제에서 ‘전라도’는 그 안에 좌도와 우도의 하위 구분이 있었다. 그런데, 1896년 5월에 전라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뉘었고, 이것이 이후 10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고착되면서, 좌도·우도의 구분은 보통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좌·우도에서 남·북도로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현재의 남·북도 관점으로는 김인배의 활동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농민혁명기 당시에는 좌·우도의 구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김인배의 영호도회소 활동을 따라가야 그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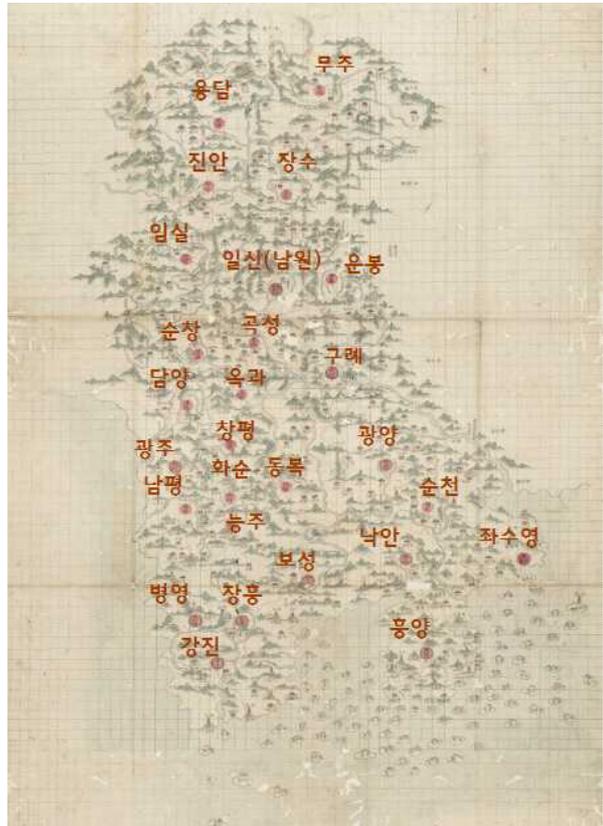
『경국대전』을 보면, 수군절도사의 경우 전라도와 경상도에 각각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1명씩을 두었다. 따라서 좌도와 우도라는 구분은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 또 상도와 하도의 구분도 있었다.<sup>15)</sup>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좌도와 우도의 구분이 보다 더 일반적이었다. 영조년간에 작성된 『호남지도』를 보면 우도와 좌도가 각각 별개로 작성되고 있다. 『탁지지(度支志)』에서도 호남을 우도와 좌도로 구분하고 있다.<sup>16)</sup> 이처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의 8도 체제에서는 하삼도 모두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한편, 전라좌도에서 김개남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남원 접과 태인 접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다음 글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 무렵 전라좌도의 도적들 가운데 남원과 보성 지방의 도적이 가장 흉악하고 교활했다. 민간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다. ‘전라좌도 위쪽은 남원 접이 쓸어버렸고, 전라좌도의 아래쪽은 보성 접이 싹 쓸었다.’ 오직 흥양 접만이 그나마 기울어 있었다. 접주 유복만이 사람들을 잘 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소문난 부자와 교활한 아전만 찾아내 고문하고 매질했을 뿐 나머지 평민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복만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가 안도했다. 또한 이때 남원의 화산당 접과 담양의 용귀동 접이 세력이 강했는데, 그 잔인함이 여러 접들 가운데 가장 심하다고 했다. 도적들은 처음에 고부에서 봉기했기 때문에 그 우두머리는 태인 출신이 많았다. 이런 까닭에 전라좌도와 우도에서는 태인 접을 최고로 쳤다. … 기범의 집안은 대대로 태인의 세력가였다. …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집안사람의 대부분이 그를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도강 김씨 가운데 접주가 된 사람이 24명이나

15) 『선조실록』 3권, 선조 2년(1569) 7월 13일 갑신 2번째 기사

16) 『탁지지』는 조선 후기 문신 박일원이 왕명으로 호조의 모든 사례를 정리하여 편찬한 관찬서이다. 外篇 卷2 版籍司 版圖部 壘域 湖南조를 보면, 南原·潭陽·淳昌·龍潭·昌平·任實·長水·谷城·玉果·雲峯·鎭安·茂朱·光州·長興·南平·順天·樂安·寶城·綾州·光陽·求禮·興陽·同福·和順 등이 屬左道이고, 全州·益山·金堤·古阜·錦山·珍山·礪山·萬頃·臨陂·金溝·井邑·興德·扶安·沃溝·龍安·咸悅·高山·泰仁·羅州·長城·靈巖·靈光·咸平·高敞·茂長·務安·珍島·康津·海南·濟州·大靜·旌義 등이 屬右道로 되어 있다.



【그림 2】『호남지도』(규12155-v.1-7), 영조연간(1724-1776), 7첩, 채색도, 필사본. 왼쪽이 전라우도, 오른쪽이 전라좌도.

되었다.“(『오하기문』, 6월 26일, 301쪽)

당시는 남원부터 순천까지 ‘전라좌도’로서 동일권역 내에 있었다. 김인배는 전라좌도에 서 절대적 영향력을 구축한 김개남을 등에 업고 좌도의 하도인 순천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김개남이 김인배의 뒷배가 되었던 것이다.

1895년 5월, 23부제 개편 때 남원과 순천이 23부의 하나인 남원부 소속이 되는 것을 보면, 당시는 좌도에서 남원이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관점에서 볼 때, 남원의 김개남, 그 휘하의 김인배가 현 남도에서 지도력을 가지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동학농민군의 활동에서 전라좌도 내 상하간의 연계성은 김인배 외에도 여러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김방서(金邦瑞)가 그렇다. 김방서도 금구 출신으로 강진과 장흥 등 좌도의 하도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김인배와 동향의 일가별이 된다. 박헌양이 장흥부사로 부임 하면서 9월 초부터 장흥 일대에서는 강진 병영을 중심으로 한 수성군축의 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농민군의 대본영에서는 금구의 대접주 김방서를 내세워

강진·장흥 등으로 출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날로 김방서는 3천 군을 거느리고 바로 남방으로 향하여 내려갔다.

능주목사의 첩보에는 “비류의 거괴로 팔도대접주(八道大接主)라고 불리는 금구에 사는 김방서(金方西)”<sup>17)</sup>라 하여 김방서를 팔도대접주라 부르기도 하였다.

그의 활동상은 동학사에 잘 나타나 있다.

“全羅道 極南端 地方인 康津兵營과 長興府에서는 官吏輩들이 다시 拔扈하여 東學黨을 侵伐한다는 急報가 大本營에 드러왔었다. … 同(장흥부사) 李容泰는 長興과 距離가 갓갑고 兵力을 빌만한 康津兵使와 서로 密謀를 하고 東學黨 侵掠하기를 始作하였다. 이 急報를 接한 大本營에서는 근심이 되어 左右로 더부러 議論할 지음에 金溝(浩는 오기) 大接主 金邦瑞가 그것을 征服시키겠다고 이력했다. 그리해서 金邦瑞는 康津 長興 等邑의 出戰 命을 受었다. 그날로 金邦瑞는 三千軍을 거나리고 바로 南方으로 向하여 내려가니라. 여러 날만에 康津 地界에 드니 모다 말하되 康津兵營과 長興府가 合하여 數千의 軍을 募集하여 城을 固게 守히며 一邊 村百姓들을 잡아다가 東學黨이란 指目으로 砲殺을 하는 等 村間에는 官軍의 放火掠奪이 無數하였었다. 金邦瑞는 各洞의 百姓들을 모여 勢를 合하여 가지고 康津兵營을 破하고 官吏中 首魁는 버히고 軍器를 奪은 後 다시 長興府에 드니 官軍은 城을 固지냈고 나지 않는지라 義軍은 城을 에워싸고 高함 一聲에 城을 넘어드러 突擊을 始作하였다. 이새 城 守히든 軍士 一時에 潰散되는 지라 이에 府使 李容泰를 잡아내어 목을 버히고 其餘 官卒은 다 容恕하여 人心을 鎮定하였었다.”(『康津·長興의 急報』『東學史(草稿本)』三)

9월 초 하동전투에서도 전라좌도의 상·하도 세력간의 연합 모습은 나타난다. 이 전투에 대해 조성가는

“9월 2일, 하동부에 구례 등지에서도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몰려와서 동학농민군이 하동과 적량 사이인 錦岡, 牛嶺 등지에 수 천명이 진을 쳤으며, … 하동의 민포가 동학농민군에 의해 삼겹, 사겹 포위되어 종과부적으로 대적하지 못하였다. 장차 진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등 흥흥하기를 다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甲午日記』 9월 3일)

고 기록하였다. 이처럼 당시 하동전투에는 하동, 광양, 순천포 등의 영호도호소 외에 구례나 남원 등지에서 온 동학농민군이 함께 참여하였다.<sup>18)</sup>

17) 『양호우선봉일기』, 갑오 12월 26일.

18) 김봉근, 「서부경남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확산과 향촌사회의 대응- 조성가(趙性家)의 『월고일기(月臯日記)』를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41권,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4.03), 175쪽.

그밖에도 영호대접주 김인배의 처남인 조승현(趙升鉉)은 김인배와 함께 고부봉기부터 참여하였고 전주 입성 후 순천, 하동, 진주 등 영호남을 아우르며 활약하였다. 정완석(鄭完石)은 김개남의 명사원(明査員)으로 활동하다가 순천에서 관군에게 체포된 뒤 1894년 12월 장흥에서 처형되어 머리가 장흥시장가에 묻혔다고 한다. 보성군 동면 출신 이수희(李守禧) 또한 ‘거물급 괴수’로서 김개남과 함께 충청도 청주를 공격하였다가 김인배의 협종(脅從)이 되어 순천에 둔취(屯聚)하여 두 번이나 좌수영을 공격하였다. 낙안에서 체포, 처형되었다. 유태홍(柳泰洪)은 동생 류시도와 함께 남원성 점령에 참여하였으며, 11월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순천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sup>19)</sup> 이렇듯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전라남·북도를 오르내리며 활동한 셈이지만, 당시에는 그 영역이 모두 같은 전라좌도였다.

낙안전투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인배가 진주로 진군할 때,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군수품 확보를 위해, 양하일(梁河一)을 중심으로 1천여 명을 규합하여 낙안읍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15일, 양하일은 중간지점인 선암사에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집결시켰다. 낙안군수 장교준(張敎駿)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음) 9월 15일 술시경 동학배 1천여 명이 순천 선암사에서 각자 총과 창을 들고서 본군이 교청에 난입, 포성이 진동하였습니다. (중략) 이튿날 새벽 본읍 義所 역시 성을 구하고자 성밖에 취회하여 대치, 18일 미시경 저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 화살을 비오듯 퍼붓고 함성이 진동하자 본읍 의소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중략) 19일 신시경 그들은 군기고를 방화한 다음 서문을 열고 대부분 선암사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각 마을로 흩어져 들어갔으나, 아직 그 피해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듣건대, 저들은 혹 순천접 혹 고산접 혹 남원접 혹 태인접 혹 금구접이라 하였습니다.”(狀啓, 全羅道兵馬節度使, 甲午十月二十九日)

이 보고에서 보듯이 낙안전투에 참여한 이들은 “순천접 혹 고산접 혹 남원접 혹 태인접 혹 금구접”이라 하였듯이 좌도 상하의 연합부대였다. 이런 조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은 모두 좌도라는 같은 행정구역 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오하기문』의 기록에도

“순천의 도적 양하일이 금구·남원 지방의 도적들과 합세하여 낙안군에 들어와서 집

19) 김양식,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남도문화연구』 2014 no.26,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참조.

1,000여 채를 불태우고 약탈을 자행했다. 하일은 순천에서 누대에 걸친 세력가 집안 출신이다. 난리를 일으켜 순천부를 약탈하려고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을힘을 다해 말했다. 이 때문에 하일이 결국 군대를 돌려 낙안으로 행했던 것이다. 낙안군수 장교준은 막 부임한 신입 관리로, 도저히 도적들을 막아낼 수 없었다. 낙안의 도적 김사일 등은 집강의 신분을 내세워 보성의 도적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어서 방어했지만 끝내 패했고, 군의 백성도 많이 죽었다. 도적들은 병사를 풀어 제멋대로 불을 지그로 약탈을 자행했기 때문에 군 아래 쫓은 남아난 것이 없었다.”(『오하기문』 3필, 9월 18일, 430쪽)

“금구·남원 지방의 도적들과 합세하여” 쳐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보성 출신의 문의지가 남원과 장흥성 함락에 참여했음도 좌도 내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기록에 자세하다.

“좌수영 출신영관의 첩보에, ‘지금까지 보성에 머물면서 연이어 뒤를 밟아 체포하여 목을 베어 경계하고, 쏘아 죽인 적의 수와 성명을 책자로 만들어 이어서 수정하여 바칩니다. 그리고 본군(즉 보성군) 복내면(福內面) 시촌(市村)에 거주하는 문의지(文義芝)는 남원에서 지난 겨울 성을 함락시킬 때, 접주 안규복(安圭馥)의 도성찰(都省察)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 성책(成冊)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만덕(孫萬德), 최쌍옥(崔雙玉), 백천여(白千汝), 손병언(孫丙彦), 손중권(孫仲權), 문원칠(文元七), 손종용(孫宗用), 이천수(李千水), 손학중(孫學仲), 손치선(孫致善), 손형수(孫亨水), 손량순(孫良順), 이성용(李成用) 등인데, 이상은 장흥과 남원에서 성이 함락되었을 때 관가(官家)에서 난동을 부린 놈들이다.”(『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1895년 1월 11일 맑음)

## 6. 영호도회소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 : 광양·하동·진주 전투

영호도회소의 활동상 주목할 점 하나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광양은 근거지가 되었고, 하동과 진주는 부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 일차적 공격 목표가 되었다. 따라서 순천의 영호도회소이지만 이들이 치른 전투는 대부분 광양부터 경상우도의 하동·진주에서 벌어졌다.<sup>20)</sup>

광양은 영호도회소가 영남으로 진출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하동이나 진주로 진

20) 경상우도 즉 서부경남지역 농민군 활동에 대하여는 김준형, 앞 논문 참조.

출할 때 항상 광양을 근거지로 삼아 섬진강을 건넌으며, 후퇴할 경우에도 광양으로 되돌아왔다. 그만큼 광양은 영호도회소의 경남 서부지역 진출의 요충지였다. 광양의 농민군은 영호도회소의 주력부대 역할도 하였다. 그만큼 규모를 갖추었고, 거기에 걸맞은 활동도 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7월경 활발했다. 다음 기록들에서 보인다.

“광양의 동학농민군이 3백여 명의 민인들을 잡아다 치죄한 뒤 산거(散居)하였다.”(『邑報抄概冊』, 7월 20)

“광양과 흥양의 동학농민군 2천 명이 하동에 내회(來會)한다는 기별이 있었으며, 광양의 동학농민군 400여 명이 하동에 들어왔다가 돌아갔다.”(『邑報抄概冊』, 7월 26일)

“동학농민군 800여 명이 깃발을 들고 방포하면서 광양으로부터 순천으로 향하였다. 동학농민군 600여 명이 부정한 짓을 자행한 섬진병리(蟾津兵吏)를 곤치(棍治)한 다음 하동으로 향하였다.”(『邑報抄概冊』, 7월 27일)

동학당의 은어(隱語)인 “爲天柱造化定 永世不忘萬古知” 13자가 “동학당의 거두라고 일컬어지던 전라도 光陽의李某라는 자가 지은 말이라고 한다”는 기록도 있다.<sup>21)</sup>

하동도 마찬가지였다. 2차 봉기가 일어나기 전부터 동학농민군과 하동의 시승(市僧)들은 끊임없이 하동으로 진출하려 하였다.

진주에서도 4월 27일 경상도 감사의 보고에서 “지난번 동학 괴수 백홍석(白弘錫)을 살해했는데, 동학도 수만 명이 진주로 들어와 큰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니 걱정스럽습니다”<sup>22)</sup>라 하듯이, 진주에서도 이미 4월경 농민군은 활발하게 활동했다.

김인배의 영호도회소는 6월에서 8월 동안 지역 내 활동에 머물다가, 마침내 9월 1일, 섬진강을 건너 하동 공격을 시작으로 부산을 목표로 한 본격적인 2차 봉기, 대일항전에 돌입하였다.

영호대접주 김인배는 최소 1만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군사를 이끌고 섬진강가에 진을 쳤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9월 1일/ 금구의 도적 김인배가 광양·순천의 도적들과 합세하여 하동을 함락했다. 그 무렵 광양에 숨어 있던 하동의 도적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분노하고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1권, 二. 全羅民擾報告 宮闕內騷擾의 件 二, (16) [慶尙道內 東學黨 狀況 探聞報告] 京第37號(1894년 06월 13일(음 5월 10일)) 여기 나오는 “爲天柱造化定 永世不忘萬古知”는 동학의 핵심사상이 담겨 있는 21자 주문인 심찰주의 일부인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를 일부 잘못 파악하여 적은 것으로 보인다.

22) (23) 6월 3일자 東學黨에 관한 續報, 發第130號 (本省), 發第131號 (仁川) 2) 同 4월 27일(양력 5월 31일)에 받은 慶尙道監司의 보고

원망하면서 보복을 하려던 참이었다. 마침내 인배를 끌어들이고, 포(包)들에게 거짓 명령을 내려 8월 그믐께 하동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하동부사 이채연은 도적들을 쫓아냈던 일 때문에 겁을 먹고 대구로 달아났다. … 인배는 순천의 도적 유하덕과 함께 1만여 명의 도적을 몰고 와서 강을 끼고 진을 쳤다. 도적들은 하동의 방어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꺼림칙하게 여겨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다. 인배는 부적 한 장을 그려 수탐의 가슴에 붙인 다음, 그 닭을 묶어서 100보 밖에 놓고 자신의 심복 포졸에게 쏘아 맞추라고 했다. 그리고 바로 무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닭은 반드시 총알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접장 여러분은 내 부적의 효험을 믿으십시오.’ 잇달아 세 번 총을 쏘았지만, 닭은 한 발도 맞지 않았다. 도적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부적의 효험이 좋다고 떠들면서 옷에다 부적을 붙이고는 앞을 다투어 강을 건너갔다. 도적들은 두 갈래로 나뉘어 진격했다. 한 갈래는 섬진강에서 비교적 강바닥이 얇고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을 골라 강을 건너간 뒤 하동부 북쪽에 진을 쳤고, 다른 한 갈래는 망덕 앞 나루터에서 배다리를 연결하여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 하동부 남쪽에 진을 쳤다.(『오하기문』2필, 384~385쪽)

이렇게 2차 봉기가 시작되었다. 영호도회소의 기병(起兵)은 사실상 전국에서 제일 먼저였다. 이렇게 김인배가 흥양, 순천, 곤양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경상도 하동·진주를 공격하면서 재기포를 개시하였다.

당시 사정은 다음과 같았다.

9월 2일/ 도적들이 하동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호남과 영남의 모든 군(郡)은 날마다 관군의 승전 소식을 기다렸다. 그러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멀거나 가깝거나 모든 지방에서 사기가 떨어졌고, 도적의 기세는 더욱 맹렬해졌다. 진주·사천·곤양 같은 고을에서는 전부터 동학에 물들어 있던 자들과 간악한 백성들이 일시에 함께 들고 일어나서 도저히 그 기세를 막을 수 없었다. … 이 무렵 위급함을 알리는 호남의 경보는 날로 급박해졌지만 영남우도 일대는 아직 어지럽지 않아서 관의 명령이 여전히 준행되었다. 그런 한편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수령들의 탐욕과 포학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관리의 시달림에 지친 백성은 매우 한스러워하면서 날마다 어서 빨리 도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런 까닭에 인배가 진주를 침범했을 때 군졸이나 백성들 가운데 나서서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이들은 도리어 도적들을 안내하고 약탈을 도왔다. 도적이 진주에서 사방으로 나가 단성·산청·의령·진해·철원 등 여러 고을을 모두 불태우고 약탈하자,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실책을 후회하며 비밀리에 방어할 계책을 의논했다.(『오하기문』2필, 387쪽)

이 하동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둔다. 3일 날이 밝자 동학농민군은 하동부 안에 도소

를 설치하였다. 이들은 5~6일간 머물다가 일부는 호남으로 되돌아갔고 수접주 유하덕 등은 하동에 남았다. 나머지는 김인배를 따라 진주로 갔다.

9월 2일, 진주의 동학농민군이 붙인 방문에서, “국가의 안위는 국민의 생사에 있고 국민의 생사는 국가의 안위에 있다”고 하면서 9월 8일 오전에 각 마을에서 13명씩 평거(平居) 광탄진(廣灘津)에 집결하여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논의하자고 하였다.<sup>23)</sup> 진주병사 민준호는 9월 8일 평거 광탄진 집회를 탄압하지 않았고, 하동으로 출병하지도 않았다.

앞서 본 것처럼, 9월 10일에 동학도인들은 진주 인민을 동원하여 충경대도소(忠慶大都所)를 설치하고 ‘영우(嶺右)의 각읍 각촌에 사는 대소사민들에게’라는 방문을 게시하였다. 왜적들이 침범하고 있으니 복수(復讐)로 국가에 보답하자고 하고, 진주병사가 부임한지 1년도 못 되어 왜인(倭人)과의 약조에 따라 선출된 신임 병사가 도입한다고 하면서 도인과 도외인(道外人)을 가리지 않고 진주에서 대회를 갖는다고 참석을 강력히 권하였다.<sup>24)</sup>

이런 분위기 속에서 9월 17일 영호도회소 선봉부대 수천 명이 하동으로부터 진주로 쳐들어와 읍내와 관청을 점령하였다.<sup>25)</sup> 18일에는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이끄는 농민군 수 천여 명이 진주에 입성하였다. 이때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9월 17일 東徒 수천명이 하동으로부터 진주로 들어와. 兵使와 牧使는 한편으론 방어하고 또 한편으론 타일렀다. 그러나 수많은 徒黨은 기세를 타고 성내로 들어와 각 관청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소위 都統長 鄭運昇은 수백명, 中軍將은 4,5백명, 河東包는 7,8백명. 右先鋒將은 5,6백명, 後軍將은 4.5백명, 都統察은 1백여명, 기타 丹城包·南原包·沙川包·吾山包·求禮包는 각자 흩어져 邑底에 거처하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18일 嶺湖大接主 金仁培는 천 여명을 이끌고 성내 吏廳으로 들어왔다. 이때 징과 북이 울리고 포성이 진동하고 총과 창검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으며. 陣前에 ‘輔國安民’이라 쓴 큰 붉은 깃발을 세워 놓았다.”(『고문서』2, 407쪽)

이처럼 김인배는 9월 18일 진주에 무혈 입성하였다.

진주를 점령한 영호도회소는 창원·김해·남해·통영 등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나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일본군이 적극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9월 24일(음) 『주한일본공사관기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9쪽.

2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139~140쪽.

25) 『古文書』 2, 406쪽.

록』에

“偵察者가 돌아옴. 보고에 의하면, 晉州에 東學黨 수천 명이 군집하여 두 갈래로 나누어 釜山을 습격하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함. 따라서 오늘 아침 우리 군대 1개 중대가 白川丸으로 馬山浦를 출항하여 육로로 진주로 향했음.”<sup>26)</sup>

라는 보고에서 보듯이 진주의 동학당이 부산을 습격하려 한다고 파악했고, 이에 맞서 일본 군대가 진주로 향했다고 하였다. 일본측은 부산으로 진출해오는 영호도회소를 진정(鎮定, 억눌러 안정시킴)시키고자 군대를 출병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진주 방향으로 출병한 부산수비대의 주목적은, 병참지 수비 임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산을 습격하려는 영호도회소 수천 명을 격양(擊攘, 쳐서 물리침)시키는데 있었다.

일본측에서는 이미 9월 13일 「監理署에서 파견한 巡查가 東學黨을 視察한 報告」에 따르면

“河東에 있는 자들은 원래 전라도에서 온 진짜 동학당이 많고 현재 하동도 빼앗아 차차 전진하는 상황이며, 그 근방에서는 전적으로 이를 방어하려고 해도 叛徒의 세력이 치열하여 도저히 이에 대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라 하고, 이어서

“군대와 함께 彼我的 순사 십수 명을 팔려 보내서 亂民을 토벌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그 首領이란 자를 포박하는 데 노력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처음부터 당국에 품의하였던 것입니다.”

라 하여 농민군 토벌에 일본군의 적극 가담을 건의하고 있었다.<sup>27)</sup>

토포사(討捕使) 지석영도 일본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9월 29일에는 토다(遠田)부대[부산수비대, 1분대+헌병 5명]가 하동 부근 광평동(廣坪洞)에서 동학농민군 약 600명과 싸워 격퇴시켰고, 패한 농민군은 광양으로 후퇴하였다.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14일에는 진주 수곡촌(水谷村) 고승산성(高僧山城)에서 연합토벌부대와 대접전을 벌였다. 여기서 농민군은 크게 패하였다. 영호대접주 김인배 역시 삼가(三嘉)에서 패한 후 순천으로 후퇴하였다.

순천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김인배는 하동·광양에 남아 있던 농민군의 요청에 따라 광양으로 재차 출진, 광양 성부역(成阜驛)에 진을 친 뒤 섬진과 망덕 두 방향으로 농민군을 나누

---

26) 駐韓日本公使館記錄 3권 , 八. 和文電報往復控 追加, (124) [晉州 東學黨의 釜山 습격예정](1894년 10월 22일(음 9.24) 오후 2시 30분 도착)

27) (18) [監理署에서 파견한 巡查가 東學黨을 視察한 報告], 機密第27號

어 진격시켰다. 이에 지석영이 이끄는 포군과 일본군은 세 방향으로 섬진강을 건너 농민군을 포위 공격한 결과, 농민군은 크게 패하여 광양 쪽으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인배도 야밤에 광양으로 후퇴, 그는 흩어진 농민군을 불러 모아 유하덕과 함께 뒤로 물러나 순천을 거점으로 삼아 관군과 대치했다.<sup>28)</sup>

이런 사정을 『오하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0월 22일, 지석영이 두치 나루터로 들어가 하동·광양의 도적들과 잇달아 교전을 벌여 격파하고 패주시켰다. 도적들은 9월 이후 하동을 점령하고 강 건너 광양의 도적들과 연계했다. 이 무렵 관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김인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 시기 인배는 삼가에서 관군의 추격을 받고 순천으로 도망쳐 돌아와 다시 도적 떼를 끌어모았는데, 그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원군 요청을 받은 인배는) 순천에서 부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나가 광양의 성부역(成阜驛)에 진을 쳤다. 그리고서 한 갈래는 망덕 앞바다로 진격하고, 또 한 갈래는 섬진강으로 진격하여 위아래에서 짓밟아 승리하려고 했다. 이 작전은 이미 9월에도 써먹은 방법이였다. 석영은 이러한 내용을 염탐을 통해 알아내고, 몰래 일본군 40명을 내보내 섬진강 상류를 건너 산골짜기 사이에 매복하게 함으로써 도적들의 후방을 에워쌌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대군을 지휘하여 망덕 바깥쪽 바다를 건너가 도적들의 귀로를 차단하고, 일본군 수십 명으로 하여금 하동 공관을 정면에서 공격하게 했다. 도적들 가운데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먼저 쓰러졌다. 그것을 보고 도적들은 황급히 달아났지만, 총에 맞고 강에 빠져 죽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강 서쪽에 있던 도적들 또한 달아나서 인배와 합류하고자 했으나 일찌감치 매복해 있던 일본군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았다. 결국 도적들은 가운데가 끊겨 두 패로 갈라졌다. 석영은 빈틈없이 진을 치고 측면을 공격했다.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사방을 에워쌌다. 마침 날이 저물고 큰비가 내렸다. 도적 무리 가운데 무기를 버리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자들이 속출했다. 인배는 산의 우묵한 곳에 엎드려 소나무 가지를 잘라 얼굴을 가리고 인정(人定)까지 기다렸다가 비를 맞으며 맨발로 달아났다. 석영은 자신이 맡은 지역의 경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하지 않고 군대를 철수하여 하동으로 돌아왔다. 김인배는 밤중에 광양으로 들어가 흩어진 병졸들을 불러 모았다. 도적 무리는 다시 떨쳐 일어나 유하덕과 함께 뒤로 물러나 순천을 거점으로 삼아 관군과 대치했다.”(『오하기문』3필, 443~445쪽)

이처럼 관군과 일본군의 조직력과 화력에 밀린 농민군은 하동·진주 전투에서 연패하였

---

28) 이상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김양식, 앞 논문(1995.1), 67쪽 참조.

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계속된 전투 끝에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후퇴하였다. 이로써 부산을 목표로 했던 대일본 항전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전라좌수영에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게 된다.

## 7. 전라좌수영 공방전

순천으로 후퇴한 영호도회소의 병력은 이제 마지막으로 전라좌수영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이에 일본의 부산수비대는 재출병하게 되었고, 육전대가 여수에 상륙하여 김인배와 전투를 치르게 된다.

동학농민군의 전라좌수영 공격은 이미 9월에도 있었다.

“9월 윤경삼(尹京三)이 순천 동학군과 더불어 남문을 통해 좌수영성으로 들이닥쳐 10여 발의 총을 쏘니 좌우에서 ‘동학군이 왔습니다.’라고 급히 알렸다. 수사는 ‘하찮은 도적이 대장 아문에서 이렇게 당돌할 수 있느냐? 이런 도적은 부득이 죽여야 하니 즉시 잡아들여라.’라고 호령하자 좌수영 군인들이 34명을 죽여서 그 시신을 바다에 던져버렸다.”<sup>29)</sup>

이처럼 순천 농민군과 윤경삼(여천 쌍봉 선소부락 거주) 등이 이끄는 현지 농민군은 연합해 좌수영 남문을 공격한 적이 있었다. 이때 좌수사 김철규는 300명의 수성군을 훈련시켜 민보군을 조직해 방어했다. 이에 대해 황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전라좌수사 김철규가 병정을 모집하여 좌수영을 굳게 지켰다. 철규는 좌수영에 부임한 이후 계획을 세워 도적 수십명을 사로잡고 목을 베어 죽였다. 또 좌수영 내의 군사와 백성들을 단단히 결속시키고, 좌수영에 가까운 마을의 포와 도적들을 차례로 사로잡아 수백 명을 베어 죽였다.”(『오하기문』3필, 437쪽.)

이렇게 농민군과 좌수영 사이의 예비 공방전은 농민군의 실패로 끝났다.

전라좌수사 김철규는 부임 이후 동학농민군이 진격할 것을 염려하며,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었다.<sup>30)</sup> 아울러 김철규는 무기 보강, 군수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시기는 영호도회소가 경상남도 서부지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 순천에서 재정비하던 때였다.

29)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서울 : 동광인쇄공사, 1982), 286쪽.

30) 『고종실록』 권 32, 고종 31년(1894) 10월 28일.

당시 농민군이 매우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황현은 이때 분위기를

“10월 28일, … 호남에 있는 도적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동쪽으로는 운봉에 막히고, 아래쪽으로는 하동이 두렵고, 남쪽으로는 좌수영을 꺼림칙하게 여겨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꼴이 이미 패망해서 달아날 조짐이 역력했다.”(『오하기문』3필, 459쪽.)

라고 하였다. 사방에서 일본군과 관군이 전라도 지역의 농민군에 대한 포위망을 죄이자, 농민군들이 크게 동요하였다는 것이다.

10월, 영호도회소는 본격적인 출정을 앞두고 10월 24일과 26일에 전라좌수영과 글을 주고받았다.

“지금 만약 무리를 지어 봉기한다면 내지의 백성이 반드시 뜻밖의 재앙에 연루되므로 잘 참작하여 이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백성은 곧 도인(道人)이며 도인은 곧 백성입니다. 어찌 백성이 백성을 공격하여 그 땅을 평안히 하고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화해한 후 다시 도인을 해치는 폐단이 있다면 마땅히 힘을 합하여 함께 토벌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잘 살펴 이에 대처하기 바랍니다. 또 본영은 남쪽 끝의 요충으로 목구멍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각각 열심히 방어하여 외국인이 기유(覬覦)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삼가 통첩합니다. 갑오 10월 24일 영호대의소(嶺湖大義所) 잠(箴) 좌수영 삼군 귀하”<sup>31)</sup>

“어찌 너희는 당명(黨名)을 도의에 탁(托)하여 성상(聖上)의 논지를 따르지 않고 또 운현궁(雲峴宮)의 효유(曉諭)에 따르지 않고 끝내 歸服하지 않는가? 鷓張하여 멋대로 백성을 잔학(殘虐)하고 군기를 약탈하고 성을 함락하고 마을을 멸하며 기탄(忌憚)하지 않는다. 역절(逆節)이 날마다 심하고 반역의 형상이 이미 드러났다. …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반역의 망설을 전파하고 성세(聲勢)가 과장하여 소요를 도모하려 한다. 만 번 죽여도 죄가 가볍다. 너희 무리가 비록 백만이라도 하늘이 반드시 다 죽여 섬멸할 것이다. 심사(深思)하고 보전하여 창을 버리고 귀화하여 후회를 남기지 말라. 개국 503년 10월 26일”<sup>32)</sup>

이렇게 서로 각각 화해와 항복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이 전라좌수영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첫 전투는 11월 10일에 있었

31) 「報8 10月 27日 井上公使ノ請求」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40591500, 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ノ狀況(防衛省防衛研究所).

32) 「朝報 11月 23日 左水營ノ東學黨ニ與フルノ書」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C08040591600, 戰史編纂準備書類 東學黨ノ狀況(防衛省防衛研究所). 전라좌수영 관련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사료와 좌수영 공방전에 대해서는 김현익, 앞 논문(2023) 참조.

다. 황현은 좌수영의 지형과 이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1월 10일, 순천의 도적 인배 등이 좌수영을 공격했다. 김철규가 막아서 물리쳤다. 인배는 하동에서 패배를 당한 후 좌수영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반드시 함락하겠다면서 버리고 있었다. 좌수영이 위치한 지형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그곳에 물자를 공급해 주려면 배로 실어 날라야만 했다. 인배는 바다를 철저히 봉쇄하고 뱃길을 끊어서 쌀장수가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좌수영을 고립시키려고 했다. 인배는 수만 명을 출동시켜 신속하게 덕양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수영의 정찰병을 만나 물리치고, 계속 진격하여 종고산(鐘鼓山)을 점거하고, 산 위에서 성안을 내려다보았다. 이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다. 도적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마을을 약탈하고 주민을 협박하여 밥을 지어 실어 날랐는데, 주민들이 곧 모두 도망가 버렸으므로 끼니를 이을 수 없었다. 먹을거리라고 가져온 것은 퐁퐁 얼어붙어 씹을 수조차 없었다. 게다가 성안의 수비가 견고했기 때문에 갑자기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일도 쉽지 않았다. 도적들은 결국 진을 해산하고 돌아갔다.”(『오하기문』3필, 463쪽)

농민군부대가 공주 우금치전투에서 크게 패한 때인 11월 10일, 김인배가 이끄는 농민군 수만여 명은 덕양역(德陽驛, 현재 여천군 소라면 덕양리)에 이르러, 좌수영의 정찰병을 물리치고 좌수영 뒷산인 종고산(種鼓山)으로 올라가 성안을 내려다보며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끼니를 이을 수 없었고, 성안의 수비도 견고했기 때문에 성과 없이 진을 해산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1차 공격은 실패하였다.

11월 20일, 재차 좌수영을 공격했다. 당시 기록을 통해 살펴보자.

“지난 16일(음 11월 20) 밤 동학도 약 천 명이 좌수영을 기습하여 영병과 성밖에서 접전 끝에 동학도 약간 명이 사상되었다. 재차 동학도는 영문 뒤에 있는 경룡산(鏡龍山)(종고산의 오자)에 거점을 잡고 자주 영문을 공격하고 있다. 영병 3백 명쯤으로는 도저히 지탱해내기 힘들다. 그 곳의 많은 민가가 적에 의해 불태워져서 인민은 사방으로 도망쳐 숨어버렸다. … ‘그곳 동학도의 우두머리는 김인배이고 부두목은 정우형이라는 자이다’라고 한다.”<sup>33)</sup>

“11월 20일, 순천의 도적들이 또 한 번 좌수영을 공격했다. 김철규가 무찔러 쫓아버렸다. 인배 등은 거듭된 좌절에 화가 날 대로 나 있었다. 또 경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좌수영을 무너뜨리고 장악하여 거점으로 삼고, 실패하면 바다로 달아나자고 모의했다. 이에

3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29) [順天附近 民亂報告]/ 양력 12월 25일

따라 온갖 계책을 짜내어 좌수영을 차지하려고 했다. 도적들은 덕양역에서 좌수영 쪽으로 진격하여 좌수영이 마주 보이는 곳에 주둔했다. 정예 부대는 서문 밖에 주둔시킨 채 부대 일부를 나누어 종고산을 점거했다. 말하자면 지구전을 펼 계획이었다. 이풍영이 일본군을 이끌고 몰래 동문으로 나가 흥국사에 매복해 있다가 종고산 오른쪽을 에워쌌다. 철규는 결사대 수백 명에게 일본군의 군복을 입혀 남문으로 내보내고 한밤중에 위아래에서 협공하기로 약속했다. 도적들은 평소 일본군을 두려워했는데 수영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일본군인지라 크게 놀라 진영이 흐트러지고 도망치는 사람마저 생겨났다. 그러다가 풍영을 만나서 거의 몰살되었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총칼을 던져버리고 각자 허둥지둥 사방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여전히 도적의 수가 많았으므로 풍영 등은 그 떼거리를 겁내고 추격하지 못했다. 일단 병사들을 정돈하여 수영으로 돌아왔다.”(『오하기문』3필, 466~467쪽.)

11월 20일 영호도회소 약 천 명이 전라좌수영을 공격하였다. 농민군이 좌수영을 포위하고 있어 좌수영 쪽이 절대 불리한 입장이었다. 그러자 좌수사 김철규는 일본군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을 진압하고자 했다.<sup>34)</sup>

11월 25일 김철규가 다음과 같이 직접 여수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일본 츠쿠바(筑波)함에 원조 요청을 하였다.

“大朝鮮 二品 全羅左道水軍節度使 金澈圭는 照會합니다. 匪類들이 창궐하여 수천여 명이 성 밖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적에 대항할 수가 없어, 정예병을 파견하여 하루속히 섬멸하도록 三道統制使에게 제보했습니다. 貴艦에게 미안하오나 힘이 약함을 특별히 생각하시어, 筑波軍艦이 방금 本營 앞바다에 정박 중이므로 구호의 요행과 東學의 섬멸을 바라며 이에 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조회를 드려야 하겠기에 이상 大日本帝國 軍艦 筑波號艦長 海軍大佐에게 조회합니다.”<sup>35)</sup>

그리고 이어서 11월 27일

“全羅左水營 백성들은 목욕재계를 마치고 수없이 절을 드리며 피눈물로써 大日本兵艦 大人 座下께 글월을 올립니다. 엿드려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와 귀국은 通商을 개시하여 貨物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그 우의가 한 나라와 같아, 급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구제하

34) 김인덕, 앞 논문(2015.06) 참조.

3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31) 左水營으로 내습한 東學徒 格퇴의 件, 開國 503년 11월 25일([別紙 乙號][十一月二十五日(陰)字 全羅左道水軍節度使의 筑波 艦長 前 援助要請]

겠다는 것은 이미 두 나라가 약조한 章程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길하여 匪類인 동학도들이 천리에 역행하는 모반을 하여 官長을 내쫓고 백성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本營을 함락시킬 목적으로 매일같이 침범하면서 500여 민가를 불태워 수만 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은 그 大義를 천양해 주시기를 감히 貴 艦長에게 간청하오니, 다행히 멀리하지 않는 뜻에 따라 하루 빨리 왕림해 주시면, 수만 명의 백성들이 혹 살아남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 흉칙한 적도들을 다 섬멸하지 않고 갑자기 군함이 떠나려고 하니, 만일 저 무리들을 이와 같이 놔두고 군함이 되돌아간다면, 그들은 즉시 境內를 침범하여 本營 안의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도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니, 특별히 河海 같은 덕을 베푸시어 5일만 더 기다렸다가 많은 백성들을 살게 해주시기 천만 번 비옵는 바입니다.”<sup>36)</sup>

충청전라경상삼도수군대도독 홍남주(洪南周)부터,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김철규, 전라좌수영 백성까지 굴욕적인 원조요청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좌수사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일본군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농민군의 진압에 앞장섰다. 25일 당일에 츠쿠바함대의 육전대 87명이 좌수영에 상륙하였고, 계속 후속 부대가 이어졌다. 이후의 전투는 일본군이 주도하였다. 진주 수곡촌 전투와 섬진강 일대에서 일본군의 참전으로 패전을 거듭했던 것처럼, 좌수영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결국 11월 말 이후가 되면, 전세는 역전되어 버렸다. 공세적인 영호도회소의 기세는 꺾였고, 쫓기는 상황이 되었다. 좌수사 김철규는 농민군을 수색해 체포하고, 목을 잘라 좌수영 남문에 걸었다. 당시 시장에는 농민군의 시체가 즐비했고 여수 연등천은 피바다를 이루었다.

좌수영 점령에 실패한 영호도회소의 지도부는 관군과 일본군에 밀려, 순천과 광양으로 흩어졌다. 김인배는 광양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공세에서 수세로 바뀌면서 반년에 걸쳐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걸었던 영호도회소의 활동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들은 잡혀 처형, 효수, 또는 타살되었다.

## 8. 영호도회소의 최후

12월 1일 손화중과 최경선이 광주에서 농민군을 자진 해산하고 김개남과 전봉준이 각각

36) [別紙 丙號][十一月二十七日(陰)字 全羅左水營 百姓 等の 筑波 艦長 前 東徒討伐懇請]

12월 1일과 2일 체포되면서 영호도회소도 막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전세가 역전되자 ‘반동학’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본부(순천부) 성 밑에 있는 각처의 동도 수천 명이 둔취하여 소요를 일으키므로 이달 (12월) 초6일 관리와 백성이 함께 소리치며 일제히 발동하여 동도 괴수 및 수종자 1백 50여 명을 아울러 잡아서 일일이 포살”<sup>37)</sup>

하였다. 이는 『순무선봉진등록』에서도 확인된다.

“지난 12월 초 6일 아전과 백성들이 의기를 떨치고 일어나 출격하여 도집강·접주·접사성 찰(省察)·괴수 등과 나머지 추악한 무리 몇 백 명을 일망타진하여 지금 보는 대로 온 경내가 편안해졌습니다.”(『순무선봉진등록』, 1895년 1월 13일)

“本府의三班과 성 안의 백성들이 公憤을 터뜨려 당일(12월 6일) 4시경에 동비가 모여 있는 본부의 都會所를 쳐부수고 거괴 鄭虞炯과 이름을 알 수 없는 文哥, 梁哲教, 晋州의 梁 五衛將이라고 칭하는 자 및 그 일행 50여명을 모두 체포하여 살해”하였다.<sup>38)</sup>

그리고 마침내 12월 7일에는 광양으로 피해 있던 김인배마저 체포, 주륙(誅戮)되었다. 즉

“이달 7일 本邑(광양현)의 官吏 校卒 및 주민들이 총을 일시에 쏘아 嶺湖 大接主 金仁培를 체포하고 동시에 그의 머리를 베어 客舍의 중간에다 걸어 놓았습니다.”<sup>39)</sup>

“12월 7일 광양읍의 관리와 교졸 및 주민들은 총을 일시에 쏘아 … 김인배를 체포하고 동시에 그의 머리를 베어 客舍의 중간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외읍 접주 박흥서와 그를 따른 23명도 모두 체포하여 총살했습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6, 5쪽.)

이렇게 영호도회소의 “嶺湖大接主(즉, 慶尙, 全羅兩道 都統領) 全州附近 金溝사람 金仁培와 嶺湖道接主(즉, 慶尙, 全羅 統領) 順天사람 劉夏德, 이상 두 사람은 梟首”되었다.<sup>40)</sup>

“12월 8일, 하동 군대가 일본군을 인도하여 광양으로 들어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37) 『선봉진정보첩』, 순천부 공형의 문장(개국 503년 12월 27일)

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6권, 一. 東學黨에 관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제1권 제5장의 후반부>, (9) 慶尙·全羅 東徒都統領 金仁培와 順天府 首領 鄭虞炯 등 誅戮의 件, 順天府 公兄文 書目(開國 503년 12월 6일)

39) 『駐韓日本公使館記錄』6권, 一. 東學黨에 관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제1권 제5장의 후반부>, (9) 慶尙·全羅 東徒都統領 金仁培와 順天府 首領 鄭虞炯 등 誅戮의 件, 光陽縣 公兄文狀(開國 503년 12월 7일)

40) 『駐韓日本公使館記錄』6권, 一. 東學黨에 관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제1권 제5장의 후반부>, (10) [日艦 筑波의 運航 및 全南地域에서의 活動 보고] [別紙] [光陽縣內 東學黨首級 및 死體實檢報告] (1895년 1월 5일(음 1894년 12월 10일))

1,000여 채를 불태워버렸다. 도적 1,000여 명이 죽었으며 평민들도 많이 죽었다. 이때 하동 군대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참혹한 짓거리는 도적들의 그것보다 훨씬 심했다. 모두 영남우도 병사들이 저질렀다. 같은 날, 좌수사 김철규는 병사를 순천으로 보내 잔당을 잡아서 죽이라고 지시했다.”(『오하기문』3필, 482쪽.)

“... 12월 초 10일 좌수영에서 군대를 거느리고 읍(순천)에 들어와, 12일 좌수와 공형을 모두 잡아갔고 18일에 총살하였습니다.”(『순무선봉진등록』, 1895년 1월 13일)

이렇게 일본군과 좌수영군이 광양 읍내로 들어가서 잔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했고, 이는 순천까지 이어졌다. 이후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지만, 주로 일본군에 의해 ‘학살’이란 표현이 어울릴 만큼, 일방적인 만행이 자행되었다.

## 9. 행정구역 개편과 순천의 위상 변화

### 1) 8도(道)에서 23부(府)로

조선 전기 이래 8도와 330여 군현으로 구성되어 있던 지방행정구역이 동학농민혁명 이후인 1895년 5월, 23부제로 개편되었다.

지방제도 개혁의 필요성은 조선 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의 보호국화를 꾀하고 있었던 일본도 지방제도의 개혁을 중앙 장악과 지방 통제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지방제도 개혁은 조선 정부와 일본 모두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sup>41)</sup>

갑오개혁의 초기에 지방재정 문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동학농민혁명에서 제기된 문제의 태반이 지방재정문제였다는 점과, 농민군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각 관료들의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이 어떤 식으로든 개혁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지형·지세(地勢)를 비롯한 지방사정을 파악하고, 무엇보다

---

41) 尹貞愛, 「韓末 地方制度 改革의 研究」(『歷史學報』 第105輯, 역사학회, 1985.3) 참조. 그밖에 지방제도 관련 부분은 한석태, 「갑오개혁기의 지방통치제도의 변화에 관한 연구」(『경남법학』 통권 제12집, 경남대 법학연구소, 1997.02); 김동수, 「갑오개혁기의 지방제도 개혁」(『역사학연구』 15권, 호남사학회, 2000.12); 정광섭, 「23부제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소고」(『한일관계사연구』 제14집, 한일관계사학회, 2012.04); 양진아,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도와 그 양상」(『역사와 담론』 제108집, 호서사학회, 2023.10)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개편되는 체제에 따른 조세 부과 문제의 처리 방안을 세워야 했다. 그런 다음에 지방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했다.

1895년 5월 26일, 조선 전기 이래의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공포하였다.

**【표 6】 23부제에 반영된 전라도의 행정구역 편제**

부명	군명	군갯수
전주부	전주, 여산, 고산, 임피, 함열, 옥구, 용안, 익산, 부안, 만경, 김제, 금구, 고부, 흥덕, 정읍, 태인, 장성, 고창, 무장, 영광	20
남원부	남원, 구례, 운봉, 곡성, 순천, 광양, 임실, 장수, 진안, 담양, 순창, 옥과, 창평, 용담, 무주	15
나주부	나주, 해남, 지도, 강진, 장흥, 흥양, 보성, 영암, 무안, 함평, 능주, 화순, 동복, 광주, 남평, 낙안	16
제주부	제주, 대정, 정의	3
합 4부		54

23부제로의 지방제도의 개혁에 즈음해서, 1895년 5월 26일 국왕은 다음과 같은 조칙을 내렸다.

“짐(朕)이 우리나라의 유신(維新)을 맞아 실지 혜택을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니 짐의 말을 명심하여 들을 것이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든든해야 나라가 편안해지는 데 백성을 보존하는 방도는 정사를 하는 관리들에게 달려 있다. 우리 왕조의 지방제도가 완전히 훌륭한 것이 못되다 보니 주(州), 현(縣)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듭 거두는(苛稅重斂) 폐해가 백출(百出)하여 위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위에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아! 거문고와 비파가 조화되지 않으면 다시 뜯어고쳐야 하는 만큼 정사하는 도리는 때에 따라서 알맞게 제정해야 한다. 이제 감사(監司), 유수(留守) 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부(府)와 군(郡)의 새 규정을 정하여 폐단의 근원을 막아버림으로써 만백성과 함께 태평한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니 그대들 모든 관리와 백성은 짐의 뜻을 체득하라.”(『고종실록』권33, 고종 32년(1895) 5월 26일 병신 1번째 기사, 대한 개국(開國) 504년)

23부제 개혁의 핵심은 대구역주의인 8도제를 폐지하고 소구역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종래 부(府)·목(牧)·군·현 등으로 위계가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던 것을 모두 군으로 단일화하여 총 337군을 23부에 분속시켜 지방행정의 효율을

기하였다. 또한 위 조칙에서 “주(州), 현(縣)이 일정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관리가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거듭 거두는 폐해가 백출(百出)하여”라고 함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행정구역의 개혁은 가세중렴(苛稅重斂)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23부제는 실행기간이 1895년 윤5월(양 6월 23일)부터 1896년 8월(양)까지 약 14개월에 불과하였고 군의 수를 줄이는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하지만 갑오개혁기 광역단위 수를 늘리고 군의 수를 줄이는 방향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기본 기조는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친일개화정권이 무너지자 갑오개혁은 중단되었다. 그후 갑오개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원칙하에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제도도 다시 재편되었다.

## 2) 13도제(道制)의 실시

500여 년간 유지되던 조선의 8도제가, 일본의 주도로 23부제로 바뀌는데, 바뀐 지 불과 1여 년만에 다시 13도제로 개정되었다. 13도제는 1896년 8월 4일(양) 출범한 제도로 기존의 8도 중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를 제외한 5도를 각각 남도와 북도로 나눈 것이었다.

왜 남도와 북도로 나뉘었나? 『내부청의서(內部請議書)』(규)18960804 중 233호 「지방제도개정에 관한 청의서」를 보면,

“국재(國財)의 세입(歲入)이 불섬(不贍, 넉넉하지 못한) 제(際)에 해(該) 지방소출(地方所出)로 해부(該府) 경비(經費)를 저당(抵當)치 못하는 이유도 혹유(惑有)하며”

라 하여 세수가 불균등한 까닭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좌우도 구분보다는 남·북도 구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상·하도로 구분하는 전통은 있었기에 남·북도 구분에 큰 거부감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갑오개혁기 23부제는 “민정(民政)의 불사(不使)함과 번용(煩冗)한 폐가 있고 재정상의 부담도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13도제로 바뀌었다. 23부제는 의견상 획일적이고 합리성을 지닌 것이나, 그 원활한 실시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갑오개혁이 중단되자, 광무기 개혁의 기본원칙, 즉 ‘구본신참’에 따라 구제(舊制), 즉 도제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총 13도 8부 1목 332군의 지방행정구역으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 3) 행정구역 개편과 순천의 위상 변화

이상 지방행정구역 개편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23부제의 남원부와 13도제의 전라남도

영역에서 좌도의 바뀐 운명과 순천의 위상 변화이다.

23부제 때 전라도는 전주부, 나주부 그리고 남원부로 3분 된다. 이때 좌도 소속 군현 중 광주, 남평, 능주, 동복, 화순 등과 장흥, 흥양, 보성, 낙안 등 9곳이 나주부 소속이 되고, 좌도의 상도 군들 모두, 그리고 하도 연읍 중에서는 순천과 광양만이 남원부에 속한다. 장흥, 흥양, 보성, 낙안 등을 남원부가 아닌 나주부에 속하게 한 것은 아마도 행정구역을 구분하여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학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의 명칭이 남원부로 된 것은 이때까지만 해도 남원이 순천보다는 더 중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보인다.

한편, 다시 13도제로 바뀔 때를 보면, 좌도 소속이었던 군 중 나주부 소속은 모두 남도가 되고, 남원부에서는 담양, 창평, 곡성, 옥과, 동복, 화순, 순천, 광양 등이 남도가 된다.<sup>42)</sup> 이중 주목되는 것은 순천, 광양이 장흥, 낙안, 보성, 흥양 등 연읍과 함께 다시 남도 소속이 되어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대동법 창설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호남청사례』(奎15232)를 보면, 전라도 내의 군현을 연읍과 산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의 기준은 대동세의 작미·작목 여부이다. 쌀로 내면 연읍, 포로 내면 산군이다. 이때 호남 연해 27읍은 나주, 순천, 영암, 영광, 장흥, 김제, 함평, 강진, 임피, 해남, 보성, 고부, 무장, 무안, 부안, 흥양, 여산, 익산, 함열, 옥구, 흥덕, 고창, 진도, 낙안, 만경, 용안, 광양 등이다. 단 장성, 정읍, 전주는 본래 산군인데 작미한다. 이 세 읍은 모두 우도에 속한다.

산군은 26읍인데 그중 세 읍이 작미함에 따라 산군은 23읍이 된다. 남원, 광주, 태인, 담양, 순창, 금구, 임실, 남평, 능주, 진안, 창평, 곡성, 금산, 장수, 동복, 무주, 고산, 구례, 옥과, 운봉, 화순, 용담, 진산 등이다.

좌도의 경우, 순천, 장흥, 보성, 흥양, 낙안, 광양은 남해와 접하고 있어 작목보다는 작미가 편했기 때문에 연읍으로 구분되고 있다. 좌도와 우도는 대개 각각 산군과 연읍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좌도는 산군이 주를 이루는데 그런 까닭에 연읍인 순천보다는 남원이 산군의 중심 역할을 하기가 더 적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23부제 때 순천부가 아닌 남원부가 된 까닭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던 것이 13도제 개편으로 인하여, 연읍으로 구분되었던 순천, 장흥, 보성, 흥양, 낙

---

42) 이는 현 남·북도의 구분과는 조금 다르다. 1904년 5월 6일자 대한제국 관보 제2819호 「一各開港市場裁判所와各地方裁判所管轄區域은左와如은事」를 보면, 구례군이 남도로, 무장군, 흥덕군, 고창군이 북도로 각각 이속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로써 남·북도의 행정구역 편제가 현재와 같아졌다.

안, 광양 등은 전라좌도라는 공통성에서 다시 남도라는 같은 구역으로 편제되면서 밀접한 연계성을 복원하게 된다.

지금 보통 전남동부육군(六郡)으로 불리는 곳은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를 통칭한다.<sup>43)</sup> 이 동부 6군 권역에 속하는 군들은 나주부와 남원부로 나뉘어져 있다 가 남북으로 나뉘는 13도제 개편 때 모두 남도에 속하게 되면서 좌도의 하도로서 예전과 같은 경제권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전라좌도의 경우 이 동부 6군 권역에 속하는 연읍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높았고, 그 중심은 순천이었다. 그래서 영호도회소를 순천 중심으로 세우고자 했을 것이다.

전라좌도가 권역일 때는 남원을 중심으로 상·하로 연결되던 권역이 남·북도로 나뉘는 후에 순천권은 서쪽의 연해지역으로 그 권역을 넓혀갔다. 동부 연해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계기는 동학에서였다. 그 권역은 영호도회소의 활동 반경과 겹친다. 동학 이전은 남원부 영역과 지리산권(경상우도)이 중심이었다면, 동학 이후 13도제 개편 이후에는 남도의 경우, 동부 연해지역이 한 권역이 되었고 순천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는 전라좌수영의 영역과도 겹친다. 전라좌수영 아래 속읍(屬邑)으로 수군이 편성되어 있는 곳은 순천부·낙안군·보성군·광양현·흥양현 등 5관이었고, 수군진은 속진(屬鎭)인 방답진(防踏鎭)·사도진·여도진·발포진·녹도진 등 5포였다. 좌우의 경계에 있던 강진의 소속이 왔다갔다 함에 따라 관할 해역은 달라졌지만 대체로 ‘5관·5포’였다.

전라좌도에서 남원부를 거쳐 전라남도로 개편되면서 순천은 이제 남원과 단절되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좌수영의 관할 영역까지 포함하여 이른바 동부육군의 중심에 순천이 서게 된다. 일제강점기 1923년 남선농민연맹(南鮮農民聯盟)이나 전남동부청년연맹, 그리고 전남동부기자대회(全南東部記者大會)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 권역으로 전개되었다. 순천, 광양, 여수, 구례, 고흥, 보성 별교 등 이른바 ‘전남동부육군’을 명시적으로 천명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이를 주도한 것은 순천과 광양의 지도자들이었다.<sup>44)</sup>

## 10. 맺음말

---

43) 박종린, 「17~19세기 동아시아 지식 정보의 유통과 네트워크 일제시기 순천권의 재편과 사회운동의 지역적 양상」(『대동문화연구』 6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367쪽 참조.

44) 박종린, 같은 논문 참조.

영호도회소의 활동을 통해 볼 때,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일제 침략에 대한 항쟁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영호도회소가 해체된 이후에도 남부지역에서는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이 이어졌다.

일본을 상대로 한 최초의 본격적인 출병은 영호도회소의 몫이었다. 영호도회소는 9월 1일부터 출병하였고, 다른 지역 농민군이 본격적인 전투에 들어간 10월 중순이 되면, 영호도회소 농민군은 이미 진주지역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항일전쟁을 위해 최초로 출전한 농민군은 전남 동부지역 영호도회소였으며,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6월에서 8월 사이에 영호도회소 운영을 통해 축적한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에서 영호도회소의 농민군은 반외세의 선봉으로 후방 방위 임무를 넘어, 이름 그대로 ‘영호’를 아우르며 대 일본항전의 선봉에 섰다.

좌도·우도에서 남도·북도로 바뀌는 지방제도의 큰 변화가 동학농민혁명 직후에 이루어졌다. 현재는 좌·우도 구분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 따라서 영호도회소의 활동을 분석할 때 좌도의 관점이 빠져 있다. 동학농민혁명기에는 행정구역이 좌도와 우도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북이 아닌 좌우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김인배의 활동을 좌도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현 전북인 금구 출신의 김인배가 현 전남인 순천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좌도의 상하로 이어지는 김개남의 위세와 상하의 실질적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파악하였다. 또 1895~96년 행정구역 개편에 나타난 동학의 영향을 살펴보면, 영호도회소의 활동이 계기가 되어 순천이 남원에서 벗어나 동부 6군 권역의 중심적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토론 1

### <전라좌도의 관점에서 본 영호도회소 활동> 토론문

김양식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소장

지금까지 영호도회소에 관한 연구성과는 다른 주제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는 ‘전라좌도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영호도회소 실체를 밝히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핵심 쟁점의 경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질의를 하고자 한다.

#### 첫째, 영호도회소인가 영호대도소인가?

현재 영호도회소와 영호대도소 용어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다. 실제 사료에는 ‘영호도회소’라는 명칭만이 1895년 1월 13일자 『순무선봉진등록』에 유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도소와 회소의 개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도소’와 ‘회소’는 갑오년 기록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용어 모두 동학농민군이 집결한 장소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회소는 ‘모이는 장소’라는 장소성이 강조된 반면, 도소는 ‘투쟁의 지도부가 있는 지휘소’의 성격이 강하다. 전봉준의 제중의소(호남창의소), 삼례 대도소, 광주 남호도소, 진주 충경대도소 등이 그런 사례이다. 이런 개념적 차이가 전제된다면, 1894년 6월부터 12월 존재하던 영호도회소는 오히려 영호대도소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 **둘째, 금구 출신 김인배가 순천에 영호도회소를 설치한 이유**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명할 자료 부재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발표 역시 전라좌도를 장악한 김개남과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연구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은 아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군 지도부의 투쟁전략을 통해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주화약 이후 동학농민군 지도부는 전라도 각각의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는데, 전봉준은 전주를 중심으로 전라우도 위쪽, 손화중은 광주를 중심으로 전라우도 아래쪽, 김개남은 남원을 중심으로 전라좌도 위쪽, 김인배는 순천을 중심으로 전라좌도 아래쪽에 각각의 대도소를 중심으로 각각의 권력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동학농민군 지도부 사이에 협의없이 불가능한 지역 분할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김인배가 순천에 영호도회소를 설치한 것도 이와 같은 큰 틀 속에서 접근하면서 김개남과 김인배, 김인배와 순천의 관계를 미시적으로 접근하였을 때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있으면 부탁드린다.

## **셋째, 영호도회소의 관할 영역문제**

발표문에 의하면, 영호도회소의 영역은 순천·광양·승주·낙안지역으로, 보성·고흥지역은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영호도회소라는 네이밍 자체가 영남과 호남을 포괄하고 있어, 영남, 즉, 하동지역까지 영역으로 확대해야만 한다. 그래야 영호도회소의 상징성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지역을 관할영역으로 발표문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의도가 궁금하다.

또 하나는 보성과 고흥을 영향권 지역으로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향권’의 사실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발표문에도 인용한 6월 26일자 『오하기문』에는 전라좌도에서 강력한 동학농민군 접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라좌도 위쪽은 남원접, 아래쪽은 보성접이 최강이라고 하였다. 유복만이 이끄는 흥양접은 못된 부자와 아전만을 골라 징치

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 영호도회소나 김인배에 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6월 하순 때만 해도 영호도회소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성점, 흥양점은 영호도회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원 김개남과 연대하여 활동하였던 만큼 남원 김개남 대도소의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넷째, 영호도회소의 9월 공격 목표와 의미**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9월 1일 섬진강을 건너 하동을 공격한 것은 발표내용대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시기이다. 그 무렵 전봉준은 신병 치료차 태인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도회소가 공격을 감행한 것은 김개남이 주도한 남원 농민군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내용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더 나아가 영호도회소의 공격 목적지가 부산이라는 점은 9월 24일자 '진주 동학당 수천 명이 두 갈래로 나누어 부산을 습격하려고 하는 모양'이라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혹시 대구 경상감영이 아닐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동학농민군의 공격대상이 일본군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영이나 군현 관아였기 때문이다. 전봉준부대는 공주감영, 김개남부대는 청주병영, 손화중부대는 나주성, 충남 내포지역 동학농민군은 홍주성 등이었다. 일본쪽 기록을 보면 부산이 목적지임이 분명하나, 좀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번쯤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감영과 관아 점령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효과와 왕조체제의 해체와 관련된 부분이다.

## **끝으로 1895년 지방제도 개혁과 동학농민혁명과의 연관성**

발표자는 23부제 때 장흥, 흥양, 보성, 낙안 등을 남원부가 아닌 나주부에 속하게 한 것은 순천 영호도회소 동학군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였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호도회소 영향권에 있었던 능주나 낙안도 남원부에 속하게 해야 하는데, 나주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23부제 행정구역 개편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검토대상이 되었는지는 좀더 엄밀한 사실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것보다 섬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지리

적 요소들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며, 동학농민혁명기 남원을 중심으로 한 담양-곡성-구례-순천 등지의 동학농민군 동정을 살펴보면 23부제 때의 남원부 권역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발표내용에 의하면, 1896년 13도제 시행에 따른 전라남북도로 나뉜 이후 순천권은 서쪽의 연해지역으로 그 권역을 넓혀갔고 동부 연해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동학이라고 하면서, 그 권역은 영호도회소의 활동반경과 겹친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영호도회소의 지역기반이었던 순천의 서쪽지역인 고흥, 보성, 화순, 담양 등지가 순천보다 오히려 남원 김개남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3도제 시행은 오랜 전통을 가진 좌우도를 인위적으로 남북도로 개편하면서 전통과 단절시킨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남원-순천의 오랜 연결선을 끊어놓은 것으로, 이런 사례는 충청도와 경상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문제는 동학농민혁명이 왕조체제의 균열과 해체를 야기한 만큼, 중요한 의제로 깊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발표 2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성주현

천도교 상주선도사, 경희대 평생교육원

## 차 례

1. 머리말
2. 영호도회소 인근지역 유적지 현황
3. 영호도회소 인근지역 유적지 성격과 특징
4. 영호도회소 인근지역 유적지 보존과 활용방안 과제
5. 맺음말



## 발표 2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성주현

천도교 상주선도사, 경희대 평생교육원

### 1. 머리말

영호도회소는 금구 출신 김인배(金仁培, 1870~1894)가 1894년 6월 전라도 순천부에 설치한 이른바 동학농민군의 '통치기구'이다.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기포된 동학농민군은 5월 말경 전주화약을 체결한 후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각 지역에서 폐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김개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배는 전주화약을 계기로 6월 말경 자신이 이끄는 동학농민군과 순천부를 장악하고 영호도회소를 설치하였다. 영호도회소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조직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영호도회소를 이끄는 김인배는 영호대접주라 불렸고, 그 아래 유하덕 영호수접주, 정우형 영호도집강으로 체계적인 조직체를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면에는 접주와 집강을 임명하였다.

순천부를 기반으로 조직된 영호도회소는 1894년 6월부터 8월까지 치안유지와 행정업무를 기반으로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등 사실상 동학농민군의 통치기구였으며,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시기에서는 경상도 서남부 지역의 경상우병영과 전라도 동부 지역의 전라좌수영을 공격하며 조일연합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면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한 축을 담당하였다. 특히 일본을 상대로 하는 최초의 출병은 영호도회소였다.

9월 중순의 삼례기포와 청산기포보다 앞선 9월 1일 출병한 영호도회소는 섬진강을 건너 하동으로 진격하고 경상우병영이 있는 진주를 점령하였다. 세력을 확장한 영호도회소는 보국안민의 기치를 내세우며 반봉건을 주창하였고, 왜호범아경계(倭胡犯我境界) 멸화초잔(滅和剿殘)이라는 내용의 방문을 붙이며 항일의지를 보였다.

진주를 점령한 영호도회소는 일본군 부산수비대의 파병으로 대일항쟁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압도적인 무기의 차이로 패배를 거듭하였고, 경상도 서남부 지역의 기반을 상실하고 섬진강을 건너 순천과 광양으로 돌아왔다. 이후 영호도회소는 여수에 있는 전라좌수영을 공격하여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이에 대비한 관군의 저항과 일본군 육전대의 참전으로 다시 순천으로 회군하였다. 순천에서도 조직 기반을 상실한 영호도회소는 조일연합군과 전투에서 거듭된 패전으로 해체되었고, 영호대접주 김인배를 비롯한 유하덕 등 주요 지도자들은 처형되었다.

이와 같은 폐정개혁과 대일항쟁을 전개한 영호도회소의 활동<sup>1)</sup> 지역 범위는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고 있다.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순천을 비롯하여 광양, 여수 등 전라 동부 지역과 섬진강 건너 하동, 진주, 사천, 고성, 남해 등을 포함한 경남 서남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영호도회소 관련 유적지 현황을 조사한 선행연구로는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sup>2)</sup>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편람 03\_전라남도·광주광역시』<sup>3)</sup>가 있다.

본고에서는 영호도회소 활동 및 유적지 현황 조사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영호도회소의 인근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특징, 그리고 보존과 활용방안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은 영호도회소가 설치되었던

---

1) 영호도회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인배와 관련된 연구로 이이화, 『발굴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한겨레신문사, 1994; 이이화,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 푸른역사, 2006 등이 있다. 영호도회소 관련 연구는 김양식,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3,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5; 김인덕, 「영호도회소와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송실사학』 34, 송실사학회, 2015; 표영삼, 「경상도 남서부지역 동학혁명운동」, 『표영삼의 동학혁명운동』,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18; 김현익,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의 조직과 활동」,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등이 있다. 이외에도 영호도회소의 활동 무대인 전남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사인 『광양시사』(광양시사편찬위원회, 2005), 『여수항일운동사』(전라남도 여수시·(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여수항일운동사편찬위원회, 2006), 『순천시사』(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등에 영호도회소 관련 글이 있다. 다만 이 세 지역사는 동일인이 집필한 관계로 내용의 차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2) 광주·전라남도·무등역사연구회 편,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 2011;

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편람 03』, 2021.

순천과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

## 2.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영호도회소의 활동 공간은 크게 두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전남 동부지역으로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순천, 경남서남부로 진출하고 동학농민군이 점령한 바 있는 광양, 동학농민군이 네 차례에 걸쳐 점령하려고 공격하였던 전라좌수영이 있는 여수이다. 둘째는 경남 서남부 지역으로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첫 진출하여 관아를 점령한 하동, 무혈점령한 진주를 포함한 사천, 남해, 곤양 등지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전남 동부지역에 해당하는 순천, 광양, 여수 일대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순천지역

<표 1> 순천지역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현황

번호	유적지명	활동 내용	성격	비고
1	순천부 관아	김인배 영호대접주가 영호도회소를 설치하고 동학농민군이 폐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동학농민군의 총사령부 역할을 한 곳, 관아의 3개 대문 밖에 동학농민군의 시신 100구	도회소 주둔지 전투지	
2	순천부 읍성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전투하며 공방전을 벌였으며, 성 밑에 수천 명의 동학군이 모여 활동, 관군의 공격으로 동학농민군 150여 명 학살, 동학농민군을 사로잡아 처형	전투지 주둔지	
3	선암사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집결하고 무장	집결지	
4	낙안읍성	동학농민군이 기습 공격하여 점령	전투지	
5	남상면 쌍전	동학농민군 지도자 이수희를 처형	처형지	
6	외서면 돌이치	민보군이 동학군을 추적하여 체포, 보성 접주 안규복을 체포하여 처형	처형지	

4) 영호도회소가 활동 영역인 경남 서남부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차후에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7	상사면	동학농민군이 잠복	은거지	
8	월등면	동학농민군이 잠복	은거지	

<표 1>에 의하면,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순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는 8곳으로 확인된다. 이들 유적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순천부 관아(터)

순천부 관아는 1894년 6월 이후 순천도호부의 관아에 전남 동부지역 동학농민군 지휘부인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곳이다. 백산대회에 참가한 순천지역 동학농민군은 전봉준과 함께 전주성을 점령하였고, 이른바 전주화약 이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됨에 따라 순천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왔다.<sup>5)</sup> 이들은 귀향할 때 영호대접주 김인배<sup>6)</sup>가 함께 동행하였다. 당시 순천부사 김갑규는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도망을 가서 순천도호부 관아는 비어있었다. 이를 기회로 김인배는 순천부 관아를 장악하고 영호도회소를 설치하였다.<sup>7)</sup> 김인배가 설치한 영호도회소는 순천을 포함하여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지역과 하동, 진주, 남해, 사천 등 경남 서남부 지역까지 관할하였다.

영호도회소가 설치되었던 순천부 관아는 현재 남아있지 않으며, 그 터에는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되었는 바, 순천시 행동우체국과 삼성생명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그 앞에는 고려시대의 청백리였던 순천부사 최석을 기리기 위해 세운 팔마비(八馬碑)가 있다.<sup>8)</sup>

### (2) 순천부 읍성(터)

순천부 읍성은 동학농민군이 주둔하고 전투, 처형된 현장이다.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전

5) 「양호전기」, 『동학농민전쟁사료대계』 6, 여강출판사, 1994, 148쪽.

6) 김인배는 1870년 6월 10일 금구 봉서마을(현 전북 김제시 봉남면 화봉리)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용배(龍培), 본관은 김해, 안경공파 71세손이다. 어려서부터 매우 쾌활하였으며, 배움에 있어 신동에 가까웠기에 인근 마을까지 널리 소문이 났다. 그는 문장도 뛰어나고 말도 잘하여 다른 아이들의 모범이 되었으며, 기골이 장대하여 장군감이라 칭송이 자자하였으며 후손이 끊긴 종백부 김현모의 양자로 입적하였다. 그의 집안은 100여 석을 수확하고 다수의 머슴을 거느리는 부농이었다.(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순천시, 1997, 527쪽; 역사문제연구소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다시피는 녹두꽃』, 역사비평사, 1994, 157쪽; 이이화,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 푸른역사, 2004, 53쪽)

7) 『순무선봉진등록』; 『동학란기록』(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680쪽

8)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 50쪽. 현재 주소는 전남 순천시 영동 1 일대이다.

투하며 공방전을 벌였으며, 성 밑에는 수천 명의 동학군이 모여 활동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군의 공격으로 동학농민군 150여 명 학살되었고, 동학농민군을 사로잡아 처형하였다.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초기에는 동학이 추구하는 신분제를 폐지 등 폐정개혁을 단행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그렇지만 부산을 장악하기 위해 경남 서남부로 진출하였다가 조일연합군에 패배하고 영호도회소가 붕괴되면서 순천부 관아가 있는 순천부 읍성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현장이었다. 1984년 11월 이후에는 동학농민군이 몰려와 성안을 점거하고 군기를 탈취하면서 순천부 읍성을 자신들의 소굴 즉 활동 근거지로 만들었다.<sup>9)</sup>

그렇지만 1894년 12월 6일 동학농민군에 가담하였던 순천부 관아의 아전들은 일부 주민과 함께 영호도회소를 기습하였다. 이때 영호도집강 정우형 등 무수한 동학농민군을 체포 처형되었다.<sup>10)</sup> 『주한일본공사관』 기록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어제 신시(申時, 오후 3시~5시)경에 관아의 양반 3명과 하속(下屬)이 모두 나와, 성내의 민인(民人)으로서 영호(嶺湖, 김인배가 지휘하던 영호대도소)의 도집강(都執綱)이라고 하는 정우형(鄭虞炯)과 접주(接主)라고 하는 놈으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문가(文哥) 및 전미도총(錢米都摠)이라고 하는 양철교(梁喆教), 선봉(先鋒)이라고 불리는 진주(晉州)의 양가(梁哥)와 그들을 따르는 150명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성의 수비를 엄중히 지시하고 도망간 나머지 무리를 엄중히 뒤를 밟아 체포하도록 하였습니다.<sup>11)</sup>

순천에는 賊이 허다하게 많았었고, 城 안에는 그 시체가 400여 구나 버려져 있었다. 그 까닭을 물었더니, 鈴木 大尉가 도달하기 전에 그 지방 민병들이 이들을 죽였다고 하였다.<sup>12)</sup>

이처럼 순천부 읍성은 성안에서는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민보군으로 구성된 연합부대에 대항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였지만, 영회도회소 도집강 정우형, 양교철 등 동학농민군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동학농민군 수천 명은 순천읍성 아래에 둔취하면서 소요를 일으킬<sup>13)</sup> 정도였다. 즉 순천읍성은 동학농민군의 주둔지, 활동 근거지였으며, 관군 및 민보군과

9) 『양호우선봉일기』 1985년 1월 15일조.

10) 『二六新報』 1895년 1월 13일자. 한편 「1894년 12월 일 순천부에서 잡은 동도의 성명성책」에 의하면, 정우형과 권병택 등은 좌수영 진중에서 포살, 효수되었다고 기록하였다.

11)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10일조.

1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50쪽.

13) 『선봉진정보첩』 「순천부 공형의 문장」(개국 503년 12월 27일)

의 격전의 전투지 현장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순천부 읍성에서는 영호도회소 성찰 권병택, 서면 접주 김영구, 별량면 접주 김영우, 월등면 접주 남정일 등이 전라좌수영군에 의해 총살되거나 효수되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동학농민군 94명이 맞아 죽었다.

순천부 읍성은 현재 멸실되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순천부 읍성이 위치했던 남문터 광장에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순천 관련 자료를 전시하여 살아 있는 역사교육 현장 교육 현장인 순천부읍성역사관이 있다.

### (3) 선암사

선암사는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낙안군 이교청을 공격하기 위해 무장을 한 현장이다. 낙안군수 정교준의 첩보에 의하면, "9월 15일 오후 술시 동학배 1,000여 명이 순천 선암사에서 각기 총과 칼을 소지하고"라고 하여, 선암사에서 동학농민군이 총과 칼로 무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각 지역에 있는 동학농민군이 낙안 관아를 공격하기 위해 집결한 곳이며, 이곳에서 무장하였다. 낙안읍성과 관아를 점거했던 동학농민군은 19일 다시 선암사로 돌아갔다.<sup>14)</sup>

선암사는 순천시 조계산에 위치한 사찰이며 한국불교 태고종의 총본산이다. 위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적지 정보에 의하면, 보존 상태는 원형보존, 부분변형, 완전변형, 부분훼손, 훼손, 멸실되었으며, 현재상태는 부분변형(동학농민군이 주둔했던 선암사 인근 옛 마을은 사라져 현재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 (4) 낙안읍성

낙안읍성은 동학농민군이 점령한 현장이다. 1894년 9월 15일 선암사에서 무장한 1,000여 명의 동학농민군은 밤 8시경 낙안읍성을 공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성문을 돌파하고 들어가 이교청 등 관아를 점령하였다. 우선 동학농민군은 창고에 들어가 창고를 부수고 서책과 기물을 접수하였고, 교임 9명을 잡아 구타하였으며 이교청의 문서를 소각하고 낙안읍성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낙안읍성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주민 3명이 사망하였고 불에 타버린 집이 149호, 빼앗긴 소가 55마리가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 이밖에도 동학농민군

---

14) 「전라도병마절도사가 올린 장계 [1894년 10월 29일]」,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 <동학농민혁명일지>.

은 의복, 말과 소 등 50여 바리가 되었다.<sup>15)</sup>

낙안읍성은 현재 거의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안내문이나 기념시설은 없다. 위치는 낙안읍 동내리 401-1일대이다.

#### (5) 외서면 돌이치

낙안군 서면은 보성접주 안규복(安奎馥)이 체포되어 처형된 현장이다. 낙안군수의 첩보에 의하면, 안규복은 돈령(敦寧), 좌도도접주(左道都接主), 집강(執綱) 등의 직임으로 많은 동학농민군을 거느리고 보성군과 그 일대에서 크게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영호도회소가 붕괴될 무렵 관군의 추적을 피해 낙안군 서면으로 피신하였다. 안규복은 낙안 수성군과 서면 주민들에 의해 체포한 후 처형하였고, 효수된 그의 머리는 좌수영에 보내졌다.<sup>16)</sup> 『순무선봉진등록』에는 안규복을 경내로 잡아들여 효수하여 사람들에게 경계시켰다고 기록하고 있고,<sup>17)</sup> 『순천시사』에는 “호좌도접주라 불리기도 한 안규복은 22일 오후에 외서면 돌이치에서 붙잡혀와 다음날 오후 2시경 군민이 모인 곳에서 처형되었다.”고 하였다.<sup>18)</sup>

안규복이 체포되고 처형된 낙안군 외서면 돌이치는 1908년 낙안군이 폐지될 때 순천군에 편입되었으며, 현재는 순천시 외서면이 되었다. 안규복이 체포되고 처형된 현장은 아직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조사 발굴할 필요가 제기된다.

#### (6) 남상면 쌍전

남상면 쌍저전리는 동학 접주 이수희가 처형된 곳이다. 동면 출신으로 김인배를 따라 순천에 머물면서 활동하였고, 여수 좌수영을 공격하는데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수희는 12월 25일 아전과 민보군에 피체되어 남전면 쌍전리에서 효수되었다.<sup>19)</sup> 이희수가 체포되고 처형된 남상면 쌍전은 1908년 낙안군이 폐지될 때 보성군에 편입되었다.

#### (7) 상사면

상사면은 영호도회소가 붕괴된 이후 관군과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색출할 때 동학농민

---

15) 『고문서』 2, 412-413쪽; <동학농민혁명일지>.

16)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28일조.

17) 『순무선봉진등록』 1894년 12월 29일조.

18) 다만 군민이 모인 곳이라면 외서면 보다는 낙안군 내 즉 낙안읍성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19) 『순무선봉진등록』 1894년 12월 29일조;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28일조.

군이 잠복해 있던 곳이다. 『양호우선봉일기』에는 동학농민군 김선명(金先明)과 상사면(上沙面)의 박정섭(朴正涉), 김영표(金永杓)를 추적한 후 체포하여 군민을 크게 모아놓고 쏘아 죽였다고 하였으며, 상사면에 잠복해 있는 동학농민군을 살살이 찾아내어 소탕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sup>20)</sup>

상사면에는 동학농민군 김선명, 박정섭, 김영표 등의 처형지와 동학농민군이 잠복한 곳 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유적지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8) 월등면

월등면은 영호도회소가 붕괴된 이후 관군과 민보군이 동학농민군을 색출할 때 동학농민군이 잠복해 있던 곳이다. 월등면은 남정일 접주가 활동한 지역이며, 남정일은 좌수영 진중에서 11월 12일 처형되었다.<sup>21)</sup> 또한 동학농민혁명 당시 구례 민보군의 맹주인 이기는 “순천의 월등면(月燈面)은 본래 종적을 숨긴 동도의 거괴가 많다. 해당 면의 굴을 파서 숨은 자가 매우 많고 또한 해당 면의 접주(接主)와 접사(接司) 등 적들의 우두머리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해당 면의 민인 등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일일이 잡아서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적은 많고 병사는 적어서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보고한 바 있다.<sup>22)</sup>

이처럼 월등면은 동학농민군의 잠복한 곳 즉 은거지, 피신지였지만, 이와 관련된 유적지 조사가 아직까지 진행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여수지역

여수지역은 영호도회소가 좌수영을 공격하여 치열하게 네 차례의 전투를 전개한 바 있으며, 영호도회소 붕괴 이후 관군의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전투와 동학농민군이 피체 내지 희생된 곳이다. 여수지역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

20) 『양호우선봉일기』 1895년 1월 4일조.

21)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

22)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16일조.

<표 2> 여수지역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번호	유적지명	활동 내용	성격	비고
1	좌수영	동학농민군이 좌수영 영병과 다섯 차례 치열하게 전투를 전개	전투지	
2	좌수영 남문	음력 9월경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한 곳, 11월 16일 동학농민군을 처형하고 효시	전투지 처형지	
3	좌수영 서문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격할 당시 화공을 전개하여 불태웠으며, 민사 5백여 채를 태워버린 곳, 동학농민군이 주둔	전투지 주둔지	
4	좌수영 동문	동학농민군을 4차 좌수영을 공격할 당시 주 공격루트	전투지	
5	덕양역	좌수영을 공략하기 위해 머물던 교두보, 좌수영의 정찰병 물리친 곳, 11월 20일 좌수영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기습 공격으로 전투를 전개	주둔지 전투지	
6	종고산	좌수영을 공격할 때 동학농민군이 점령하고 주둔	주둔지	
7	돌산 죽포	동학농민군이 향리와 같이 군수를 징발	보급지	
8	화양 목장	죽포 주민의 보복으로 동학농민군 상당수가 희생	보급지	
9	사항리	1월 3일 동학농민군과 좌수영 영관 이주희가 인솔한 관군이 교전한 곳으로 동학농민군 41명이 전사	전투지	
10	요룡산(饒龍山)	동학농민군이 거점으로 삼고 좌수영 영문을 자주 공격	주둔지	
11	구 시장	좌수영 남문에서 처형된 동학농민군 시신이 즐비	처형지	
12	연등천	동학농민군 시신의 피가 흘러 피바다를 이룸	처형지	
14	좌수영 앞바다	동학농민군 시신이 버려짐	처형지	

(1) 좌수영

부임하는 도중 동학농민군에 봉변을 당한 바 있는 전라좌수사 김철규는 동학농민군과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1894년 9월 윤경삼이 순천의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좌수영 남문을 공격하였다. 김철규 좌수사는 동학농민군 3, 4명을 죽여 바다에 던졌다.<sup>23)</sup> 좌수영 공격에 실패한 영호도회소는 경남 서부지역으로 진출하여 진주성을 점령하였지만, 일본군의 참전

23)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반도문화사, 1988, 264쪽; 김현익,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조직과 활동」, 44쪽. 이에 비해 『여수항일운동사』(67쪽)에는 ‘34명을 붙잡아 효수하고 그 시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하고 있다.

으로 거듭된 패배를 당하였다. 이러한 침체된 분위기의 반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인배는 영호도회소 근거지인 순천과 광양의 안전을 위해 좌수영을 점령하기로 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과 좌수영병과 11월 10일, 11월 16일, 11월 20일, 11월 26일 등 네 차례 전투가 전개되었다.<sup>24)</sup> 모두 다섯 차례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백여 명이 사망하였다.

영호도회소 설치 이후 최대의 전투가 전개되었던 좌수영은 당시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어 객사였던 진남문만 남아있으며, 위치는 여수지 군자동 472 일대이다.

## (2) 좌수영 남문

좌수영 남문은 모두 다섯 차례 전개된 동학농민군과 좌수영병과의 전투에서 피체된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현장이다. 1894년 6월 윤경삼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격할 때 피체되었던 동학농민군이 남문에서 처형되었으며, 11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전개된 네 차례의 전투에서 피체된 동학농민군은 주로 이 남문에서 처형되었다. 남문은 바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처형된 동학농민군 시신은 남문 밖 좌수영 앞바다에 던져졌다. 동학농민군의 좌수영 점령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철규는 동학농민군 1인당 5냥씩 현상금을 걸어 약 5백여 명을 잡아들였으며, 이들은 대부분 남문에서 처형되었다. 김철규는 동학농민군의 목을 남문에 걸어두고 시신을 방치하여 그 참상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한다.<sup>25)</sup>

동학농민군을 처형한 좌수영 남문은 현재 흔적도 없어 그 현장을 찾아볼 수 없다. 남문이 있었던 자리에는 로터리와 이순신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다.

## (3) 좌수영 서문

좌수영 서문은 동학농민군이 공격한 곳으로, 서문 밖 민가 수백 채를 불태운 현장이다. 동학농민군이 1894년 11월 16일 좌수영을 공격하였다. 김철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군대를 거두어들여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좌수영병을 끌어내기 위해 서문 밖의 민가 5백여 채에 불을 질렀고, 이후 며칠간 더 대치하다가 돌아갔다.<sup>26)</sup> 10월 26일 네 번째 좌수영 공략할 때 동학농민군은 서문으로 공격하였다.<sup>27)</sup> 이때 서문이 불타버

---

24) 이에 대해서는 김현익,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조직과 활동」, 44~48쪽을 참조할 것.

25) 『여수시사』, 여수시사편찬위원회, 2010, 288쪽.

26) 황현, 『오하기문』, 갑오 11월 16일자.

27) 『여수항일운동사』, 73쪽.

리기도 하였다.<sup>28)</sup>

동학농민군이 공격하고 수백 채의 민가를 태웠던 좌수영 서문 역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보존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좌수영성은 일제강점기 사라졌으며, 그 터만 남아있다.

#### (4) 좌수영 동문

좌수영 동문은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격하던 현상이었다. 세 차례 걸쳐 좌수영을 공략하지 못한 동학농민군은 11월 26일 네 번째 공격을 단행하였다. 이때 종고산과 서문에 주둔한 동학농민군은 목숨을 걸고 좌수영을 공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 좌수영을 공격하였는데, 한 부대는 성밖 민가 300호를 불태우며 동문을 공격하였고, 다른 한 부대는 성의 서북쪽으로 진격하였다. 일본군과 좌수영병, 그리고 성안의 주민들도 결사적으로 항전하여 동학농민군의 공격은 무위로 끝나고 순천으로 후퇴하였다.<sup>29)</sup>

동학농민군이 공격하고 5백 채의 민가를 태웠던 좌수영 동문 역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보존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좌수영성은 일제강점기 사라졌으며, 그 터만 남아있다.

#### (5) 덕양역

덕양역은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주둔하였던 곳일 뿐만 아니라 좌수영을 공략하지 못하고 퇴각할 때 일본군 및 관군과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1894년 11월 10일, 순천 영호도회소를 출발한 동학농민군은 덕양역에서 좌수영의 정찰병을 물리친 바 있으며,<sup>30)</sup> 11월 16일 좌수영 공략에서 동학농민군은 성내에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집안이 망할 일이니 우리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하여 일본군을 막자”는 고시문을 보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야간공격을 단행하였지만 끝내 좌수영을 검거하지 못하고 덕양역으로 잠시 퇴각하여 머물렀다.<sup>31)</sup>

이곳 덕양역에서 3일 정도 머문 11월 20일 밤 좌수영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충분한 휴식과 관군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덕양역 주위의 산등성이를 배경삼아 곧바로 응전하였다. 좌수영의 영장 이주회(李周會)가 이끈 좌수영군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좌수영군은 30리를 행군한 데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추위까지 겹쳐

---

28) 『여수항일운동사』, 72쪽.

29) 『여수항일운동사』, 73쪽.

30) 황현, 『오하기문』, 갑오 11월 10일자.

31) 『순천시사』, 539쪽.

여러 모로 불리하였다. 결국 좌수영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오던 길을 되짚어 달아났다.<sup>32)</sup>

한편 11월 26일 네 번째 좌수영 경략에 실패한 동학농민군은 순천으로 퇴각하면서 덕양역에 머물면서 진영을 정비하였다. 이즈음 일본 해군은 육전대 1백여 명을 조직하여 미나미(南) 대위와 와다(和田) 소위의 인솔하에 광경환이 이끄는 좌수영병 250명은 덕양역까지 추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조일연합 부대와 일전일퇴의 전투를 거듭하다가 후퇴하였다. 일본군은 당시의 전투상황에 대해 동학농민군 40~50명이 전사한 것으로 보이나 산 정상의 시신은 확인하지 못하고 추격하여 전사자를 자세히 모른다고 할 정도였다.<sup>33)</sup>

덕양역은 순천과 여수의 중간 위치에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동학농민군은 좌수영을 공략할 때 전략적 중간 기지로 활용하였다. 좌수영 공략을 실패하고 퇴각할 때도 덕양역에 머물면서 전세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덕양역은 조선시대 역참이었지만 전라선이 개통될 당시에는 철도역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역사를 이전하여 멸실되었다. 위치는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 438 일대이다.

#### (6) 종고산

종고산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략할 때 좌수영을 정찰하고 점령하기 위해 주둔하였던 곳이다. 좌수영은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순천과 광양 일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좌수영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하는 과정에서 종고산을 점거하였다. 종고산은 좌수영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관군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거점이었다. 11월 10일, 11월 20일 좌수영을 공격할 때 동학농민군은 종고산을 점거하였다.

종고산은 여수시 동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수영 뒤편에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 (7) 돌산 죽포

돌산 죽포는 동학농민군이 식량을 보급한 곳이다.

1894년 11월 10일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략하기 위해 종고산을 점거하

---

32) 『여수항일운동사』, 71~72쪽; 『순천시사』, 539쪽.

33) 「朝報」 12월 30일, 순천부근정찰보고; 김현익,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조직과 활동」, 48쪽.

고 좌수영을 위협하였다. 좌수사 김철규는 좌수영 안의 주민들과 함께 성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추위가 몰아닥쳤다. 추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종고산 위에 주둔하고 있던 동학농민군들은 살을 에는 바닷바람을 견딜 수 없었다. 동학농민군들은 주변의 촌락으로 흩어져 끼니를 때우거나, 혹은 보급받은 주먹밥조차 푹푹 얼어붙어 먹기 어려울 정도였다. 결국 영호도회소의 동학농민군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한 채 순천으로 철수하고 말았다.<sup>34)</sup> 이 과정에서 돌산도 죽포로 건너간 동학농민군은 식량을 보급하였다. 그러나 식량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이 있었으며, 동학농민군 상당수가 희생되었다.<sup>35)</sup>

돌산 죽포는 여수시 돌산면 죽포리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 (8) 화양 목장

화양 목장은 동학농민군이 식량을 보급한 곳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월 10일 좌수영을 공략하기 위해 공격하였지만, 좌수영은 성문을 닫고 대응하지 않았다. 동학농민군은 추위와 식량 보급이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돌산도 죽포로 건너갔다. 죽도 주민들은 화양 목장으로 몰려가 동학농민군을 보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의 상당수가 희생되었다.

화양 목장은 돌산 죽포와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일대로 추정된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 (9) 사항리

사항리는 영호도회소 붕괴 이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수영 관군과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기록에 의하면, 1895년 1월 3일 영관 이주회(李周會)는 좌수영으로부터 500여 명을 인솔하고 순천 방면을 향해 출발하였다. 다음날 4일 오전 순천부 사항리(砂項里) 산 위에서 동학농민군과 교전하였으며, 10리나 추격해서 동학농민군 41명을 살해하였다고 하였다. 즉 사항리는 동학농민군과 좌수영과 전투를 전개하였으며, 동학농민군

---

34) 『여수항일운동사』, 70쪽.

35) 『여수항일운동사』, 70쪽.

41명이 사망하였다.

사항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는 순천부였으나 현재는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사항마을이다. 사항마을 주변은 여수와 순천을 잇는 도로가 있어 옛 모습에서는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다.

#### (10) 요룡산

요룡산은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략하기 위해 검거한 곳이다.

11월 20일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략할 때 ‘오룡산’을 거점으로 삼았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16일(음력 11월 20일) 밤 동도 약 1천여 명이 좌수영을 내습하여 영병과 성밖에서 접전 끝에 동도 약간 명이 사상하였다. 재차 동도는 영문의 후면에 있는 요룡산(饒龍山)을 거점을 잡고 자주 영문을 공격하였다. 영병은 3백 명으로 예측되는데, 도저히 막아 내기가 어렵다”<sup>36)</sup>고 하였다. 김현익의 글에 의하면 요룡산은 ‘오룡산’으로 비정하고 있다.

‘오룡산’은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으며, 비봉산의 한 봉우리이다. 그런데 일본 측 기록에는 요룡산이 좌수영 ‘영문의 후면’에 있다고 하였는데, ‘오룡산’은 좌수영에서 볼 때 서쪽에 위치하고 좌수영을 자주 공격하기에는 지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좌수영의 후면은 종고산이 있는데, 이로 볼 때 ‘오룡산’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1) 구 시장

구 시장은 1894년 11월 26일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략하려다가 체포되어 처형된 후 시신이 버려진 곳이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sup>37)</sup> 1872년 지방지도 중 <전라좌도 순천부 고적>에 의하면 장(場)은 남문 앞에 형성되어 있다. 구 시장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 (12) 연등천(蓮登川)

연등천은 1894년 11월 26일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략하려다가 체포되어 처형된 후 시신의 피가 흘러 피바다를 이룬 곳이다.<sup>38)</sup> 1872년 지방지도 중 <전라좌도 순천부 고적>에 의하면 연등천은 좌수영 서측에 흐르고 있다. 연등천에 대한 조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

36)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 순천부근 소요사건.

37) 『여수시사』, 288쪽.

38) 『여수시사』, 288쪽.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13) 좌수영 앞바다

좌수영 앞바다는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1894년 9월과 11월 좌수영을 공격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된 동학농민군의 시신이 버려진 곳이다. 좌수영 앞바다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츠쿠바호(筑波號)가 정박한 곳이기도 하다.

3) 광양지역

광양지역은 영호도회소 활동 중 초기 경남 서남부로 진출하는 경유지였으며, 진주성을 점령한 후 조일연합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으로 동학농민군이 순천으로 퇴각하면서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영호도회소 중기 활동의 핵심지역인 만큼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적지 않다. 광양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각 유적지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광양지역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

번호	유적지명	활동 내용	성격	비고
1	섬진나루	9월 1일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진을 치고 관군과 대치하다가 김인배의 부적 이용으로 하동으로 진출한 나루터, 2차 하동 공격할 때 건넌, 두 번째 진주를 공략하기 위해 진군하던 중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하동 민보군과 전투 전개	주둔지 진출지 전투지	
2	망덕나루	9월 1일 동학농민군이 배다리를 만들어 하동으로 진출	진출지	
3	섬거역	11월 20일 2차 하동 공격을 위해 동학농민군이 진을 친 곳, 관군과 전투 중 7, 8명 전사한 곳, 1월 5일 좌수영 관군과 교전하여 25명이 전사	주둔지 전투지	
4	구등산 (龜嶝山)	11월 16일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급습으로 7, 8명이 전사	전투지	
5	광양 읍성과 객사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둔취한 곳이며, 수성군의 공격을 받아 2백여 명이 포살, 총살, 영호대접주 김인배와 영호수 접주 유하덕을 체포하여 처형 효수	주둔지 전투지 처형지	
6	월포(月浦)	동학농민군이 수천 명이 주둔, 1월 5일 좌수영 관군과 전투	주둔지 전투지	
7	다압(多鴨)	동학농민군이 수천 명이 주둔	주둔지	
8	옥곡(玉谷)	동학농민군이 수천 명이 주둔, 동학농민군 48명 피체	주둔지 피체지	

9	백양동(白楊洞)	동학군 지도자 정홍서(丁弘西) 포박 효수	처형지	
10	옥룡면	동학농민군 31명이 체포되어 경병에게 인계	피체지	
11	죽천(竹川)	반농민군 부대가 동학군 목재(木寨)를 소각	주둔지	
12	비촌(飛村)	동학농민군 48명을 총살, 동학농민군 다수 피체	처형지 피체지	
13	백운산(白雲山)	은신한 동학군을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동굴을 수색	은거지	

### (1) 섬진나루

섬진나루터는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경남 서남부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순천으로 되돌아올 때 건너던 나루터이다.

1894년 9월 1일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은 하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김인배의 지휘 아래 섬진강을 끼고 진을 쳤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건너편 하동의 방비가 엄중한 것을 보고 섬진나루를 건너지 못하였다. 김인배를 동학농민군이 겁을 먹지 않도록 부적을 사용하여 사기를 올렸다. 이에 동학농민군은 섬진나루를 건너 하동으로 진격하여 관아를 점령하고 도소를 설치하였다.<sup>39)</sup>

이처럼 순천지역 동학농민군이 경남 서남부로 갈 때 섬진나루를 건넜지만, 진주에서 조일연합군에 여러 차례 전투에서 패하고 순천으로 퇴각할 때도 섬진나루를 건넜다. 10월 14일 하동 고승산전투에서 조일연합 부대에 패한 동학농민군은 순천으로 퇴각하였고, 다시 전열을 정비한 동학농민군은 다시 섬진나루와 망덕나루 두 방향으로 하동으로 진출하였다. 그렇지만 섬진강 건너 조일연합 부대의 공격으로 동학농민군은 광양으로 퇴각하였다. 이른바 섬진강전투에서 3천여 명의 동학농민군이 빠져 죽었다고 오지영은 『동학사』에 기록한 바 있다.<sup>40)</sup>

섬진나루는 광양시 다압면에 위치하고 있다. 여전히 뱃길로 이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 (2) 망덕나루

망덕나루는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하동을 진출할 때 건넜던 나루이다. 앞서 언급한

39) 황현, 『오하기문』, 갑오 9월 1일자.

40) 김양식, 「전남 동부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68~69쪽.

동학농민군이 하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섬진강에 진을 쳤다. 하동의 경비가 엄중함에 따라 동학농민군의 사기가 저하되자, 김인배는 부적을 사용하여 사기를 올렸다. 사기가 오른 동학농민군은 한 부대는 섬진나루를 건너 하동부 북쪽으로, 다른 한 부대는 망덕나루에서 배다리를 만들어 건넌 후 하동부 남쪽으로 진격하여 하동 관아를 점령하였다.<sup>41)</sup> 10월 14일 하동 고승산에서 조일연합 부대에 패한 동학농민군은 순천으로 퇴각하였고, 다시 전열을 정비한 동학농민군은 다시 섬진나루와 망덕나루 두 방향으로 하동으로 진출하였다. 그렇지만 섬진강 건넌 조일연합 부대의 공격으로 동학농민군은 광양으로 퇴각하였다.<sup>42)</sup>

### (3) 섬거역

섬거역은 경남 서남부로 진출하였던 동학농민군이 순천으로 퇴각하면서 주둔한 바 있으며, 이후 관군과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진주에 진출한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은 9월 29일 하동 광평동에서 일본군과 첫 전투가 있었다. 이 전투에서 패한 동학농민군은 9월 30일 광양 섬거역에 머물렀다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산 정상으로 피신하였다. 10월 20일에는 일본군 1개 소대가 섬거역에 머물고 있던 동학농민군을 격파하고 하동부로 귀환하였다.<sup>43)</sup> 이때 동학농민군 7, 8명이 희생되었다.<sup>44)</sup> 이듬해 1895년 1월 5일 오후 4시 동학농민군은 섬거역에서 관군과 민보군에 의해 25명이 희생되었다.<sup>45)</sup>

이외에도 동학농민혁기념재단의 <동학농민혁명일지>에는 1894년 9월 30일 토다(遠田) 부대가 섬거역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가 있었으며, 11월 17일 부산수비대가 섬거역 부근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11월 18일에는 스즈키 부대가 동학농민군과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30명을 죽이고 7명을 포획, 1895년 1월 6일 부산수비대가 동학농민군과 싸워 6명을 죽였다고 하였다.

섬거역은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619 일대이며, 당시의 역참은 없어지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

41) 김양식, 「전남 동부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65쪽; 『광양시사』 1권, 625쪽.

42) 김양식, 「전남 동부지역 동학농민군 활동」, 68쪽.

43) 김현익,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조직과 활동」, 31쪽 및 34쪽.

44) 「장계」; 김현익,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의 조직과 활동」, 40쪽.

4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全羅左水營兵의 動作에 관한 記事」.

#### (4) 구등산

구등산은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의 기습으로 전사한 곳이다. 11월 중순 경남 서남부로 진출하려던 동학농민군은 섬진강전투에서 조일연합 부대에 패한 광양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광양에서 크고 작은 전투가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 11월 16일 광양 구등산 위에 주둔한 동학농민군은 일본군 148명의 습격을 받고 대응하였지만 7, 8명이 전사하였다.<sup>46)</sup>

#### (5) 광양 읍성과 객사

광양읍성은 김인배가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점령하였으나 민보군에게 김인배, 유덕하 등 동학농민군 2백여 명이 처형된 곳이다.

1894년 12월 들어 순천 영호도회소가 조일연합 부대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김인배와 일보 동학농민군은 광양으로 진출하여 읍성을 점거하였다. 『순무선봉진등록』에 의하면 “각 처의 동도 천여 명이 본읍(광양)의 성안에 진을 치고 그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일정하지 않던 터”라고 하여, 동학농민군이 광양 읍성을 점령하였다. 그렇지만 1894년 12월 7일 영호대접주 김인배와 영호수접주 유덕하는 민보군과 전투에서 붙잡혀 효수되었다.<sup>47)</sup> 김인배와 유덕하의 효수된 머리는 객사에 내걸렸다. 이날 동학농민군 2백여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sup>48)</sup> 22일에도 광양의 동학농민군 박학일 등 49명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sup>49)</sup>

#### (6) 월포

월포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주둔한 곳이며, 조일연합 부대와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광양현 공형 문장에 의하면, 본읍 월포진(月浦津), 상옥곡(上玉谷), 다압외면(多鴨外面)에는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다압과 월포 양면에 주둔하고 있어 그 기세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sup>50)</sup>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하동 민보군이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광양 하월포로 가서 동학농민군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 하였고,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월포의 동학농민군과 교전이 있었다고<sup>51)</sup> 하였다. 1895년 1월 5일에는 월포에 있던 동학농민군과 조일연합 부대와 교전이 있었다.<sup>52)</sup>

46) 『광양시사』 1권, 630쪽.

4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慶尙·全羅 東徒都統領 金仁培와 順天府 首領 鄭虞炯 등 誅戮의 件」.

48) 『순무선봉진등록』 1895년 1월 3일조.

49)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10일조; 1894년 12월 12일조; 1895년 1월 9일조.

5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慶尙·全羅 東徒都統領 金仁培와 順天府 首領 鄭虞炯 등 誅戮의 件」.

5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日艦 筑波의 運航 및 全南地域에서의 活動 보고」.

### (7) 다압

다압은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주둔한 곳이며, 조일연합 부대와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경상도 하동 민포장에게 명령한 내용에 의하면, “경상도 각 읍(邑)의 포군(砲軍)이 도(道)를 넘어 광양(光陽), 다압(多鴨), 월포(月浦), 진상(津上), 진하(津下), 옥곡(玉谷) 등지를 함부로 침범하여 거리낌 없이 불을 지르고 돈·곡식·집물(什物, 가재도구)도 약탈했다”<sup>53)</sup>고 한 바, 다압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비교적 왕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양현 공형 문장에도 “본 읍의 월포진 상옥곡 다압외면에는 동비 수천 명이 지금 다압과 월포 양면에 주둔하고 있어 그 기세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고 하였으며,<sup>54)</sup> 1895년 1월 5일에는 다압에 있던 동학농민군과 조일연합 부대와 교전이 있었다.<sup>55)</sup>

### (8) 옥곡

옥곡은 동학농민군 수천 명이 주둔한 곳이다. 경상도 하동 민포장에게 명령한 내용에 의하면, “경상도 각 읍(邑)의 포군(砲軍)이 도(道)를 넘어 광양(光陽), 다압(多鴨), 월포(月浦), 진상(津上), 진하(津下), 옥곡(玉谷) 등지를 함부로 침범하여 거리낌 없이 불을 지르고 돈, 곡식, 집물(什物, 가재도구)도 약탈했다”<sup>56)</sup>고 한 바, 옥곡에서도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비교적 왕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양현 공형 문장에도 “본 읍의 월포진 상옥곡 다압외면에는 동비 수천 명이 지금 다압과 월포 양면에 주둔하고 있어 그 기세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고 하였다.<sup>57)</sup> 이외에도 동학농민군 48명이 하동 민보군에게 체포되었으며, 이들은 비촌에서 처형되었다.

### (9) 백양동

백양동은 동학군 지도자 정홍서를 포박하고 효수한 곳이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조일연합 부대는 1월 5일 월포에서 동학농민군과 교전하였으며, 이날 오후 4시에는 섬거역에서 동학농민군 25명을 처형하였다. 다음날 광양현 백양동에서

5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全羅左水營兵의 動作에 관한 記事」; 『二六新報』 1895년 1월 15일자.

53)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13일조.

5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慶尙全羅 東徒都統領 金仁培와 順天府 首領 鄭虞炯 등 誅戮의 件」.

55)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全羅左水營兵의 動作에 관한 記事」; 『二六新報』 1895년 1월 15일자.

56) 『양호우선봉일기』, 1894년 12월 13일조.

57)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慶尙全羅 東徒都統領 金仁培와 順天府 首領 鄭虞炯 등 誅戮의 件」.

곽경환이 이끄는 1백여 명의 민보군에 의해 동학농민군 지도자 정홍서(丁弘西)가 포박되고 효수당하였다.<sup>58)</sup>

#### (10) 옥룡면

옥룡면은 하동 민보군이 체포한 동학농민군을 경군에게 인계한 곳이다. 하동 영솔군관 고백에 의하면, “큰 재를 넘어 옥룡면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잡은 31명의 동비를 경병에게 모두 빼앗겼습니다.”라고 하였다.<sup>59)</sup>

#### (11) 죽천

죽천은 동학농민군의 요새가 있던 곳이다.

하동 영솔군관 고백에 의하면, “죽천에 도착한 다음 동비의 요새를 소각하고”<sup>60)</sup>라고 하였는데, 하동 민보군이 광양으로 건너와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비촌에 마련한 동학농민군의 요새를 불태워버렸다.

#### (12) 비촌

비촌은 옥곡에서 체포된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곳이다.

하동 영솔군관 고백에 의하면, “옥곡이란 곳에 도착하여 정의군과 합세하였습니다. 이때 체포한 48명의 동비는 비촌에 포진하였을 때 총살하였다. 그리고 생포한 13명 중 6명은 즉, 영호의 거괴인 박정주·류윤거·박사영·전백현·김광준·고광신 등인데, 이들이 휴대하였던 무기는 총 41자루, 군도 3자루였습니다. 그리고 영호의 수괴 김이갑은 종사관이 잡아 참수하여 효수를 하였고, 조총 20자루, 갑옷 1벌, 인괘 1좌, 나팔 1쌍, 군도 1자루를 탈취하였습니다.”<sup>61)</sup>

#### (13) 백운산

동학농민군의 은신처이며,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포위하고 불을 지르며 동굴을 수색한 곳이다. 하동 영솔군관 고백에 의하면, “전라도 광양의 백운산은 호좌지방의 큰 산으로

---

58)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全羅左水營兵의 動作에 관한 記事」; 『광영시사』 1권, 634쪽.

59)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甲午十二月二十二日河東領率軍官告目」.

60)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甲午十二月二十二日河東領率軍官告目」.

6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甲午十二月二十二日河東領率軍官告目」.

강물을 끼고 산세가 우뚝 50여 리나 뻗어 있는 데다가 바위는 험하고 산림은 깊어 동비들의 소굴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산을 포위한 후 화공을 개시하였고”라고 하였다.<sup>62)</sup>

### 3.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특징

앞에서 살펴본 <표 1>, <표 2>, <표3>은 영호도회소와 인근인 순천, 여수, 광양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현황이다. 순천지역은 순천부 관아(영호도회소), 순천부 읍성, 선암사, 낙안읍성, 남상면 쌍전, 외서면 돌이치, 상사면, 월등면 등 8곳이며, 여수지역은 좌수영, 좌수영 남문, 좌수영 동문, 좌수영 서문, 덕양역, 종고산, 돌산 죽포, 화양 목장, 사항리, 요룡산, 구시장, 연등천, 좌수영 앞바다 등 13곳, 광양지역은 섬진나루, 망덕나루, 섬거역, 구등산, 광양 읍성과 객사, 월포, 다압, 옥곡, 백양동, 오룡동, 죽천, 비촌, 백운산 등 13곳으로 모두 합하면 34곳이다.<sup>63)</sup>

이들 34곳의 유적지는 단일한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중첩적, 복합적 성격이란 한 유적지마다 하나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순천부 관아는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장소이면서도 동학농민군이 주둔하였고, 또 관군과 전투가 있었던 복합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여수 덕양역은 동학농민군이 좌수영을 공격하기 위해 진군하는 중 진영을 정비하기도 하고, 좌수영을 공격하기 위해 주둔 중 관군의 기습 공격에 대응하며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섬진나루는 영호도회소 동학군이 하동으로 진출하기 위해 섬진나루 주변에 주둔하였고, 섬진나루를 건너 하동으로 진격하였다.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진주를 공격하기 위해 섬진나루로 건너기 위해 섬진강으로 향해 나갔다. 이에 포토사 지석영은 일본군과 함께 김인배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군사를 매복시켜 동학농민군의 후방을 차단하고 포위하였다. 이어 조일연합 부대의 공격을 받은 동학농민군은 광양으로 퇴각하였다. 이 섬진나루 일대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3천여 명이 물에 빠져 수장되었다고 전한다.

이로 볼 때 순천부 관아는 도소, 주둔지, 전투지의 성격을, 덕양역은 주둔지와 전투지,

62)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甲午十二月二十二日河東領率軍官告目」.

63) 이들 지역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기존의 연구성화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섬진나루는 진출지와 전투지, 그리고 주둔지로서의 복합적, 중첩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이들 유적지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영호도회소 및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성격**

구분	전투지	주둔지	처형지	은거지	보급지	진출지	집결지	피체지	도소	계
회수	14	13	9	3	2	2	1	3	1	47
순천	3	2	2	2	0	0	1	0	1	11
여수	6	4	4	0	2	0	0	0	0	16
광양	5	6	3	1	0	2	0	3	0	20

<표 4>에 의하면 영호도회소 인근지역 즉 순천, 여수, 광양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전투지가 가장 많은 14회이며, 그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주둔지가 13회, 처형지가 9회의 순이다. 전투지, 주둔지, 처형지, 집결지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것은 순천, 여수, 광양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그만큼 격렬하였으며 전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학농민군의 전투 대상은 관군, 일본군, 민보군 등이었다. 이로 볼 때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은 활동은 반동학과 항일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학은 반봉건 반외세를 지향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전개되었다. 특히 일본군의 출병과 경복궁 점령 이후 보다 분명한 항일전선이 형성하였는데, 영호도회소 동학농민혁명은 항일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순천, 여수, 광양의 지역별 전투지를 살펴보면 여수가 6회, 광양이 5회, 순천이 3회이다. 이는 여수와 광양이 보다 전투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여수의 전투지는 동학농민군의 좌수영 공략과 조일연합 부대와 민보군 또는 수성군의 동학농민군 진압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광양과 순천은 동학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전개된 전투였다는 점에서 여수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수의 전투지는 좌수영을 두고 동학농민군과 좌수영군이 다섯 차례의 격렬한 전투가 전개되었으며, 좌수영의 삼문인 남문, 동문, 서문이 각각 동학농민군의 공격 루트였다는 점에서 많은 전투 횟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둔지는 전투지와 비슷한 회수 즉 13회이다. 주둔지는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위해 출정 또는 전투 후 퇴각하면서 전열을 정비할 때 머무르는 곳으로, 전투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적지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양이 6회, 여수가 4회, 순천이 2회이다. 광양이 여

수와 순천보다 많은 것은 직접적인 전투를 위해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수의 경우 동학농민군의 좌수영 공격하기 위해 중간 지점이 덕양역이 주요 주둔지로 역할하였다. 순천의 경우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순천부 관아와 동학농민군 순천읍성을 장악하면서 동학농민군이 이곳에서 폐정개혁과 출정식 등을 하였기 때문에 주둔지로서 역할하였다.

처형지는 9회로 여수가 4회, 광양이 3회, 순천이 2회이다. 처형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전투 중 피체되어 처형된 곳이고, 다른 하나는 동학농민군 진압과정에서 관군, 일본군, 민보군의 추적 또는 색출에 의해 붙잡혀 처형된 곳이다. 여수의 좌수영 남문은 전투 중 피체된 경우와 좌수영군의 추적에 의해 체포된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곳이다. 특히 이 남문은 처형된 동학농민군의 목을 내걸어 주민들에게 경계를 하는 곳이다. 또한 여수의 구 시장과 연등천, 좌수영 앞바다를 처형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처형된 동학농민군의 시신을 버려둔 곳(구시장), 처형되어 버려진 동학농민군 시신에서 나온 피로 물든 곳(연등천), 역시 처형된 동학농민군의 시신을 내다 버린 곳(좌수영 앞바다)으로 동학농민군의 처형과 관련된 곳이라는 점에서 처형지로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여수는 처형지가 여타 지역보다 많은 지역이 되었다. 광양의 읍성 객사의 경우도 수성군의 공격을 받아 광양읍성에서 전투 중 김인배와 유덕학 등 피체된 동학농민군과 수성군의 추적으로 잡힌 동학농민군이 처형된 유적지이다. 이외에 순천의 남상면 쌍전와 외서면 돌이치, 광양의 백양동과 비촌은 관군 또는 민보군,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추적 내지 색출할 때 붙잡혀서 처형된 유적지이다.

은거지는 3회로 순천 2회, 광양 1회이다. 은거지는 영호도회소가 붕괴되면서 관군과 일본군의 연합부대, 아전과 주민들로 구성된 민보군 또는 민포군이 동학농민군을 추적할 때 피신한 유적지이다. 이들 유적지는 동학농민군이 지형을 이용하여 숨어지내기 좋은 곳을 선택하였었다. 순천의 상사면과 월등면, 광양의 백운산은 깊은 산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이 은신하기에는 용이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유적지는 계속된 추적으로 오래 머물지 못하기도 다른 곳을 이동하기도 하였다.

보급지는 2회로 모두 여수에 있다. 동학농민군은 좌수영을 다섯 차례 공격하였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식량 등 군수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였던 관계로 진영 밖에서 조달해야만 했다. 이때 일부 동학농민군은 돌산도 죽포와 화양의 목장에서 식량을 조달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식량 조달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하였는데, 줄포의 주민들은 화양 주민들과 합세하여 동학농민군을 살해하기도 하였

다.

피체지는 3회로 모두 광양에 있다. 피체지가 광양에 집중된 것은 하동의 수성군이 광양지역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수성군은 피신하는 동학농민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였고, 이 과정에서 옥곡, 오룡면, 비촌 등지에서 동학농민군이 피체되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지만 대부분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결지와 도소는 각각 1회로 모두 순천에 있다. 우선 집결지는 동학농민군이 전투를 준비하면서 각 지역 포(조직)의 동학농민군이 일정한 곳으로 모였는데, 선암사이다. 이곳에 모인 동학농민군은 칼 등으로 무장을 한 후 낙안읍성을 공략하였다. 이런 점에서 집결지 선암사는 전투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소는 영호도회소가 설치된 순천부 관아이다. 영호도회소는 폐정개혁 단행과 부산 공략을 위해 경남 서남부 지역으로 진출하고 대일항전을 전개하는 지휘소였다. 이로 볼 때 영호도회소 역시 전투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영호도회소와 인근 지역인 순천, 여수, 광양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들 유적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대부분이 전투지, 주둔지, 처형지 등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대일항쟁의 의지가 여느 지역보다 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영호도회소는 일본을 상대로 최초로 출병하였다. 전봉준이 이끄는 호남의 동학농민군과 손병희가 이끄는 호서 경기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대일항전을 위해 출병한 것이 9월 중순경이었다는 점에서, 9월 1일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의 대일 출병은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4.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존과 활용방안**

##### **1) 유적지 보존을 위한 ‘문화유산’ 지정**

유적지의 사전적 의미는 ‘옛사람의 남긴 건축물이나 무덤 따위가 있거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고 밝히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아마도 사전적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이 이러한 장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문화유산의 사전적 의미는 ‘앞 세대의 살마들이 물려준, 후대에 계승되고 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적 전통’이라고 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사전적 의미의 문화유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유적지는 문화유산이든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존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유적지든, 문화유산이든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유적지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유적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지정이 필수적이다.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순천, 여수, 광양을 포함하는 전남 동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매우 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보존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지정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국가유산청이 지정하는 사적(기념물),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유형문화재와 지방기념물,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향토유적 등이다. 가장 좋은 방안은 국가문화유산(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동학농민혁명 관련 국가 사적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공주 우금치 전적(1994), 정읍 전봉준 유적(1981), 정읍 황토현 전적(1981), 장흥군 황룡 전적(1998), 장흥 석대들 전적(2009), 고창 무장기포지(2022) 등이다. 다른 하나는 동학농민혁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곳으로 남원읍성(1982), 담양 금성산성(1991), 강진 전라병영성(1997), 부안 백산성(1998) 등이 있다.

국가문화유산 지정은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매우 컸을 때 가능하다.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을, 학술적 가치는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는 학술연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꾸준한 학술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국가문화유산 지정보다는 시도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먼저 문화유산 또는 향토유적을 선행 지정한 후 국가문화유산으로 승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영호도회소와 관련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중에는 순천의 낙안읍성과 선암사, 여수 좌수영의 진남관 등 세 곳이 있다. 이들 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지만 앞의 남원읍성, 금성산성, 전라병영성처럼 문화유산 설명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남원읍성 사례와 같이 낙안읍성, 선암사, 진남관 등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본다.

## 2) 학술연구 토대 마련과 심화연구

영호도회소의 이미와 역할, 활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도회소 관련 학술연구가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다. 영호도회소의 활동무대인 순천, 여수, 광양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 호남이면서도 연구자에게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지역적으로 동학농민혁명보다 관심도가 큰 역사적 사건의 영향이라고 본다. 즉 임진왜란과 여순사건이다.

이렇게도 이 사건들은 지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 동학농민혁명보다 우선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정읍, 고창, 부안 등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순천, 여수, 광양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와 학술, 관광을 연계한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큰 임진왜란과 여순사건이 우선순위이고 동학농민혁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지방행정은 지역 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순천, 여수, 광양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지난 2023년 순천에서 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가 조직되면서, 영호도회소에 관하여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좀 더 심도 있는 학술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물론 잘하고 있지만) 학술연구가 꾸준히 심화 되었을 때 보다 분명한 영호도회소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학술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영호도회소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종합적 정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3) 표지판·안내판 설치

필자는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를 적지 않게 조사하거나 답사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가장 아쉬운 것은 그 역사적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대부분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천, 여수, 광양 일대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가 많지만 안내판이 설치된 유적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이 잊혀지거나 기억되지 못한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다.

표지판은 ‘어떤 내용을 담거나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표시를 해 놓은 판’, 안내판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소개할 내용, 사정 따위를 적은 판’이다. 이는 일정한을 담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역사의 현장에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역사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아무리 역사적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표지판, 안내판이 없다면 무의미한 공간이 되고 만다. 이러한 점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를 알리려면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사업도 역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 4) 영호도회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기념관은 ‘뜻깊은 일을 오래도록 기념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기념관을 건립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뜻깊은 일’ 즉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오랫동안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진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념관은 관련 자료 및 유물의 보존, 전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인물, 현장 등에 기념관 또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현재 동학농민혁명의 첫 기포지이며 청 승전지인 정읍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박물관), 장흥과 태안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고창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이외에도 경주와 울산에 동학기념관이 건립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근대사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며, 그중에서도 영호도회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남과 호남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영호(嶺湖)라고 하였으며, 활동 영역이 경남 서남부 일대까지 미쳤다. 부산까지 진격하여 일본 세력을 몰아내려던 영호도회소의 계획은 일본군의 막강한 화력과 집권층의 반민족적 탄압으로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나 영호도회소의 활동은 임진왜란 때 전라도 의병들이 진주성까지 달려가 왜군과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이 활동을 전시하고 연구, 교육하는 기념관 건립도 중요한 과제이다.

#### 5) 지역적 연대를 통한 답사프로그램 개발

영호도회소 인근 지역인 순천, 여수, 광양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관련 하여 중요한 유적지가 적지 않다. 이러한 순천, 여수, 광양을 잇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지역 단위별과 연대를 통한 답사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답사는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현상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거나 조사하면서 행하는 학습 방법이다. 답사를 하므로써 사고력이 신장되고, 연구 심이 배양되며, 자연적인 호기심을 통한 학습 의욕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유적지 답사는 단순한 호기심의 관광이나 여행이 아니라 역사현장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답사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개발할 수 있다. 하나는 순수한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유적지를 포함하여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 6) 스토리텔링과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한 민중봉기가 아니라 종교적 사상, 민중의 열망, 제국주의와의 충돌, 지도부의 가등과 전략의 갈림길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작용한 역사이다. 이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중요한 서사적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영호도회소의 조직과 폐정개혁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활동, 관련 인물 등은 역사문화콘텐츠의 주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영호대접주 김인배의 활약상과 극적인 최후, 일본군과의 전투 과정, 동학농민군의 영웅담과 비극적 삶 등은 스토리텔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의 콘텐츠는 영호도회소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5. 맺음말

## 토론 2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특징> 토론문

김희태

전 전라남도 문화재전문위원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참여하도록 공부길을 열어준 관계 기관 단체 제위, 그리고 귀한 글로 정리해 준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주현 선생님의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을 읽고 공부하면서 큰 깨달음과 함께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지역별로 각종 문헌 기록과 향토자료를 꺾 맞춰 영호도회소의 중심이라 할 순천, 광양, 여수의 3개소 유적지를 개별로 정리하면서 성격과 특징을 살피고 현황과 과제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되돌아 본 계기라 함은, 보존과 활용 방안에 제시된 안건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입장의 토론자로서는 나서서 공부해야겠지만, 두 번째 입장에서는 일종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스스로 제척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주현 선생님의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가운데 문화유산 지정 관련해서 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른 문화유산 지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유산(문화재) 관련 법규

에 따른 국가지정 시도지정과 향토유산 지정(시군 지정, 직권 조례)을 말합니다. 연대나 특징, 가치 등에 따라 선별 지정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을 지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축소되고 가치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 모두가 지정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일도 많이 걸립니다. 사적이 5개소인데, 지정연대로 보면, 황토현(1981), 우금치(1994), 황룡(1998), 석대들(2009), 무장기포지(2022) 등 44년 사이 5개소 유산입니다. 무장기포지의 경우, 2012년 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는데 10년만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학 관련 법규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산'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8조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정비', 제9조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적지를 정비하려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유적지를 선별해야 하고 관련자료의 관리나 보존을 위해서도 조사와 함께 분류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같은 분류와 정리, 그리고 선별을 위해서는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규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할 때 '동학농민혁명유산'을 규정화하여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국가유산 관련 법규가 아니더라도 개별 법령에 따라 관련 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조례로만 관련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 조항을 추가해 개정(2001.01.26)하고 대통령령으로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02.03.20), 「현충시설 관리 지침」(2003.02.23)을 제정하여 독립운동 관련시설(1,001), 국가수호 관련시설(1,337) 2,338개소 지정 관리.

○건축자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을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록문화유산은 제외).

○국가지정기록물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소장 기록물 중 중요한 것을 2008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다. 제1호는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이다.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제38조에 에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음.

○5·18민주화운동 사적지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요한 항쟁지 등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와 공간 시설물을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데 29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원래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했다가 2024년 기본조례가 제정되면서 승계되었음. 1호 전남대학교 정문~29호 흥남순 변호사 가옥임.

**<표> 개별 법령에 따른 유산류(遺産類) 지정 근거와 사례**

유산	기관	법령		조례	사례
		모법	지침, 규정		
현충시설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현충시설 관리 지침		-독립운동 관련 시설 (1,001) -국가수호 관련 시설 (1,337)
국가지정기록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호 유진오 제헌헌법 초고 외

건축 자산	국토교통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5·18민주화운동사적지	광주광역시			(현)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 기본조례 (원)광주광역시 5.18사적지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1호 전남대학교 정문~29호 흥남순변회사 가옥

발표문에 대해서 소소한 의견입니다. 토론자는 언젠가부터 ‘주인’이나 ‘주어’를 그 당사자들에 맞게 표기하자는 제안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표1>에 ‘동학농민군 150여 명 학살, 동학농민군을 사로잡아 처형’ 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사료 등에 나오는 표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글대로 살피자면 주어가 ‘학살’ 또는 ‘처형’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살이나 처형의 주체가 주어로 된다는 것은 ‘명예회복’을 더디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관(순천부사 김갑규)이나 직임자(김철규 좌수사)는 재임 기간이나 도임 시기 등을 표기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구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1894년~1895년 당시의 행정편제와 그 이후에 변천이 된 행정 구역과는 구분되게 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발표 3

# 영호도회소의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의 지향<sup>1)</sup>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

## 차 례

1. 들어가며
2. 영호도회소의 규명과 재구성의 인식틀
3. 영호도회소 활동과 특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재인식
4. 영호도회소 기념사업의 지향 : 중첩된 향거와 학살
5. 맺음말

---

1)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의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발표 3

# 영호도회소의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의 지향<sup>1)</sup>

정호기

우석대학교 교수

## 1. 들어가며

사회집단의 구성과 존속을 위해서는 정체성 확립과 역사적 공동체 인식에 기반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동질화를 추구하는 경향성을 띤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유지 및 전승되는 것과 단기적으로 변화하고 변모하는 것이 혼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시간적 인식과 관념은 연대기적이며 획일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관적이며 해석 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은 이러한 현상과 특성을 규명하고 이해하기에 유용한 개념이다. 사회적 기억은 재구성되는 것이며, 지속해서 달라지고 변화하는 것임을 전제한다. 정치·사회적 지향성과 목표, 정치체의 성격은 사회적 기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구조적 차원이 아닐지라도, 사회적 기억에는 수많은 요인이 작용하며, 그로 인해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

사회적 기억이 갖는 의미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 또는 분야는 이른바 ‘과거

---

1) 이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소의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사(the past history)'로 명명되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과거사라고 명명된 수많은 사건과 사례들을 재규명하고, 은폐·왜곡·억압된 가치 및 의의의 반전과 복원을 위해 만만치 않은 자원을 사용했다. 그 성과로 과거사의 성격과 가치가 재정립되고 재의미화되었다. 또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제도권 내외에서 다양하게 실행되었다. 근래에 들어 그 속도와 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졌지만,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중단될 개연성은 낮다. 이런 활동과 성과는 사회적 기억을 전환하는 데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지켜보았듯이,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사회적 기억의 변화는 역사로 명명되었던 공식 기억과 기록을 변경하고,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될 때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험난한 일임이 분명하다.

과거사 분야에서 동학농민혁명은 가장 앞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기억 투쟁에서 보면, 동학농민혁명은 강렬한 편에 속한다고 하기 어렵다. 제도적 재평가와 사회적 재정립이 반동과 격렬히 충돌하고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내세울 사례도 마땅하지 않다. 과거사로 분류되는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동학농민혁명은 가장 앞서 발생했으나, 공식적 재조명에서는 후발 주자에 해당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기억 양상과 변화는 역사 기록물과 기념사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사업은 1960년대부터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추진된 바 있다. 그 목적은 군부를 기반으로 형성된 지배체제가 표방하는 정통성과 가치를 전유하는 데 있었다.<sup>2)</sup> 그런데 1960년대부터 지배체제가 기호로 표상한 담론이 지역 단위 혹은 일상의 사회적 기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미와 가치의 회복에 실효적이었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이를테면, 1963년 10월 3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황토현에 세워진 기념탑에는 '갑오동학혁명'이라고 명기되었는데, 이런 호명과 담론은 지역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수용했을까? 한편 민간 부문이 주도한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은 민주화의 흐름과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기반에서 가시화하고 확장되었다.<sup>3)</sup> 선행하는 과거사 청산으로부터 학습하고 새롭게 적용함으로써 압축적 변화가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기억은 곧 민주주의의 안착 및 성숙과

2) 박명규, 1997, 「역사적 경험의 재해석과 상징화」, 『사회와 역사』 51, 한국사회사학회, 53~59쪽. 이경화, 2007, 「기념물을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전승」, 『인문콘텐츠』 10, 인문콘텐츠학회, 193~198쪽.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0, 『동학농민혁명, 기억과 기념의 역사』, 81~83쪽.

3) 신순철, 2003,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현황과 과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 사회와 연대』, 259쪽.

직결되었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은 지배층과 진압군 논리와 담론을 동학군 논리와 인식으로 대체할 여건의 형성이었다.

이 글은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고찰한 연구와 지방사 기록물,<sup>4)</sup> 유적지 조사 결과를 자료로 삼아 사회적 기억의 형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다.<sup>5)</sup>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은 사건과 인물의 중요도, 자료 수집과 활용, 기억공동체와 기념사업 구심의 형성과 역량 등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분야와 주제별 진행 양상이 달랐으며, 속도와 범위에서도 큰 차이를 드러냈다. 그렇기에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이 매우 늦었던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와 그 영향을 받은 지역의 사회적 기억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법하다. 이 글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 배경과 맥락을 사회적 기억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기념사업의 지향을 모색한다. 이 글은 먼저 영호도회소의 발굴과 규명, 인식의 재구성을 시기별 주요 요인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이어서 사회적 기억의 형성과 변화를 지방지와 유적지 조사를 활용해 파악하고 지역별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영호도회소 기념사업의 지향을 제시하려 한다.

## 2. 영호도회소의 규명과 재구성의 인식틀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에서 영호도회소가 발굴되고 재구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였을까? 영호도회소에 관한 연구의 관점과 문제의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연구 성과들은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구성 및 재구성의 과정을 거쳤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 축에 따른 인식 변화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영호도회소의 명명 여부, 영호남 동학농민혁명 전개에 관한 관계 설정, 김인배에 대한 인식 등에 주목해서 고찰하려 한다.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은 드물기는 하나 영호도회소를 실재했던 단체로 기록하고 있다.<sup>6)</sup> 그럼에도 영호도회소는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서 부상하지 못했다.<sup>7)</sup> 동학농민혁명의

---

4) 지방사 기록물의 의미는 역사문화학회 엮음, 2008, 『지방사연구 입문』, 민속원, 13~25쪽을 참조 바람.

5) 일찍이 동학농민혁명 연구는 곧 지방사 혹은 향토사 연구이고, 기념사업은 그것을 복원하는 의미를 담아야 함이 주장되었다. 박명규, 1995,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 연구」,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 변동』, 새길. 원도연, 2007,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사회성과 기념공간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10-1, 역사문화학회.

6) 국사편찬위원회, 1971, 「동학농민봉기」, 『동학란기록』 상권, 680쪽에 김인배가 주도해 순천 성안에 영호

다양한 전개 양상과 사상 및 의미가 본격적으로 재조명된 시점이 1990년대에 들어서였음을 고려할 때, ‘거대 서사’를 구성하는 사건과 상황, 지역과 인물에서 벗어난 경우는 관심받기 어려웠을 터이다. 1990년대 이전 연구에서 경남 서부와 전남 동남부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와 조망이 일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의미를 고찰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면, 김준형이 영호도회소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논문은 재인식의 출발점에 해당한다.<sup>8)</sup> 이 논문은 경남 서부의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촉발되었다. 이 논문의 주제는 경남 서부인 하동, 곤양, 진주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양상과 지배층의 대응이었다. 그래서 경남 서부의 동학농민혁명을 1894년 9월 이전과 이후 시기로 구분하고, 이후 시기는 ‘호남 동학농민군의 지원을 받아 봉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다. ‘호남 동학군과의 연대’라고 규정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 이들을 영호도회소라고 칭하진 않았다. 이들의 지도자가 ‘총대장 김인배’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호도회소의 실존과 조직적 항거로 파악하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군이 토벌작전에 투입되어 맹활약했음을 명시했다. 이 논문은 이후 경남 서부의 동학농민혁명을 정리 및 고찰하는 데 실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이화 선생을 필두로 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진행한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의 성과를 기록한 책에서도 영호도회소는 언급되지 않았다.<sup>9)</sup> ‘전라도·경상도 해안지대 농민전쟁의 흐름’이라는 제목을 붙인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전라도 농민군을 끌어들여’, 하동에 도소를 설치, ‘영호대접주 김인배’, 일본군의 농민군 공격 등이 눈길을 끈다.<sup>10)</sup>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 순천, 여수, 광양, 하동, 진주를 한 권역으로, 해남, 영암, 강진, 장흥을 또 한 권역으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남과 경남의 동학농민혁명을 행정 구역을 경계로 구분하지 않고, 사건의 실제적 전개 양상 그 자체를 중심을 두고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

도회소를 설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7) 이를테면, 한우근, 1984,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 부분에서 영호도회소가 다루어졌다. 하지만 영호도회소를 체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소개하는 수준이다.

8) 김준형, 1992, 「서부경남지역의 동학군 봉기와 지배층의 대응」, 『경상사학』 7·8, 경상사학회, 90~108쪽. 김범수, 1992, 「서부경남 동학운동연구」, 『경남향토사논총』 2, (사)경남향토사연구회.

9) 역사문제연구소 외, 1993, 『동학농민전쟁 역사기행』, 여강, 112~114, 130~136, 148~149쪽.

10) 이 책 부록 ‘갑오농민전쟁 주요 사건 연표’에는 전남 동남부와 경남 서부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11) 한편, 김중규, 1994, 『동학농민혁명의 현장을 찾아서』, 문예원에서는 전남은 장성, 나주, 장흥 지역을 위주로 다뤘다. 즉, 전남 동남부와 경남은 다루지 않았다.

영호도회소의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00주년이 임박한 무렵이었다. 100주년 기념사업은 전국에서 이루어졌는데, 12개 단체가 중심적 활동과 역할을 맡았다.<sup>12)</sup> 광주·전남은 1994년 1월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급박하게 결성했다. 이는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가 발의해서 확대되었는데, 100주년 기념사업을 마치고 해산했다. 이 단체는 자료발굴 및 후손 증언 사업, 학술사업, 문화사업을 전개했으며, 장성 황룡촌에 승전기념탑을 건립했다. 학술사업은 도서 발간과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전라도의 언론사들은 100주년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연속 기획 기사를 실었다. 먼저 1993년 「무등일보」에 연재한 광주·전남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글들을 근간으로 『동학농민혁명과 광주·전남』이 발간되었다. 이 책은 광주·전남의 지역별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성을 기술하며 영호도회소(영호대도소) 위상을 정립했다. 즉, 순천, 여수, 광양 동학농민혁명 상당 부분을 영호도회소 활동으로 정리했다. 다만, 책의 성격상 경남에서 영호도회소 활동은 같은 비중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동과 진주를 넘어 부산을 목표로 진출’했다고 함으로써 동학군이 섬진강을 넘어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었음을 표현했다. 이 책은 순천 사람이 일찍이 동학농민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김인배를 총대장이라고 명명하고 김개남과 노선이 같았다고 한 점, 일본군이 진압 작전에 참여한 점 등도 다루었다. 1994년 6월 3일에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전남·동부지역의 농민군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영호도회소 활동이 발표되었다.<sup>13)</sup> 이들 연구는 전남 동남부 동학농민혁명 규명과 재구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후속 연구와 글에 지속해서 영향을 주었다.

「전북일보」도 1993년부터 2년여에 걸쳐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기획연재를 했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 100년』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는데,<sup>14)</sup> 지방별 전개 양상을 정리한 부분에서 전남권 사례로 순천, 여수, 광양의 상황을 다뤘다. 이 책은 영호도회소(영호대도소)를 전남 동남부에 설치된 집강소 지휘부이고, 각 면에까지 탄탄한 조직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대접주 김인배가 지휘했다고 명시했다. 영호도회소는 하동 농민군의 지원요청을 받아 섬진강을 건넜고, 곤양을 거쳐 진주까지 장악하는 등 영호남에 걸쳐 세력이 형성되었다고 정리했다. 이 책은 경남 서부의 활동은 간단히 소개했으며, 낙안군(현 순천시)의 점령, 여수와

12) 김은정·신순철·문병학 편, 1995,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백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13) 이 글은 1995년 2월 발간된 『호남문화연구』 23집에 「전남·동부지역의 동학농민군 활동 - 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14) 김은정·문경민·김원용, 1995,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광양 전투와 패전, 일본군의 토벌 작전 투입, 학살과 피해, 그리고 독립운동으로 계승을 언급했다. 한편 1994년 6월 전주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행사에서 이윤갑이 경상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발표했다. 이 글은 ‘김인배가 이끄는 광양 농민군 부대가 하동으로 넘어와 서부를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기록했다.<sup>15)</sup> 이 무렵 경남 서남부 동학농민혁명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은 표영삼의 글이었다. 표영삼은 김인배와 영호도회소 설치, 그리고 경남 서부로 진출과 전투 및 퇴각 등을 다루었다.<sup>16)</sup>

전남 동남부와 경남 서부 동학농민혁명이 재조명된 시점은 120주년을 전후해서였다. 그 간에 이들 지역에 관한 동학농민혁명 연구가 없지는 않았으나,<sup>17)</sup> 활발하게 재개된 시기는 이때였다. 여기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비 지원사업이 영향을 주었다. 이들 지역과 영호도회소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지역별 상황과 전투 양상을 더 구체화하고 세심하게 고찰했다. 영호도회소가 논문 제목에 명시되기도 했다.<sup>18)</sup> 이 논문은 경남 서부와 대비적으로 전남 동남부에 관한 총체적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이 논문은 100주년 이후 20년 동안 영호도회소 위상이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단체이자 지역 구심으로 격상했으며, 경남 서부에 미친 영향도 재정립되었음을 증거했다.

이즈음에 이들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공간 인식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하나는 이전처럼 섬진강 혹은 광역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동서를 구분해서 고찰하는 것이었고,<sup>19)</sup> 다른 하나는 지리산권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고찰하는 것이었다.<sup>20)</sup> 지리산권을 중심에 둔 인식은 섬진강을 중심에 둔 인식의 틀과 공간 설정 및 포괄 범위가 달라져야 했다. 그렇지만 영호도회소를 놓고 보면, 다른 문제의식과 내용으로 해석하기에 근본적인 변인으로 판단되지 않아 보인다. 두 가지 공간적 인식론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표영삼의 동학혁명운동사』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각각 수록된 내용은 이전 글을 모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잘

15) 이 글은 이윤갑, 1995, 「1894년 경상도지역의 동학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에 수록되었다. 해당 부분은 169쪽에 있다.

16) 표영삼은 『신인간』 1993년 3~5월호에 「경상도 남서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나누어 실었다. 같은 내용을 천도교 홈페이지 ‘교리교사연구자료’에서 볼 수 있다.

17) 신영우, 1997, 「경상도 지역의 1894년 상황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서경문화사. 표영삼, 2005, 「전라도 남동지역 동학농민혁명」, 『교사교리운동』 11.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18) 김인덕, 2015, 「영호대도소와 전라남도 동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승실사학』 34, 승실사학회.

19) 김봉곤, 2014, 「서부경남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확산과 향촌사회의 대응」, 『남명학연구』 41,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 김양식, 2014, 「지리산권 동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특징」, 『남도문화연구』 26,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보여준다.<sup>21)</sup> 전자는 섬진강을 후자는 지리산을 공간적 인식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상과 같이, 영호도회소 활동을 공간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인식은 100주년 이래 주기성을 갖고 이루어졌다.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도시와 군 단위 동학농민전쟁을 정리하는 작업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거나 생산되지 않는 이상 눈에 띄게 연구 내용이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영호도회소의 실체와 활동 전반이 총체적으로 규명 및 재구성되었다고 보기는 석연찮은 점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현익의 연구<sup>22)</sup>는 영호도회소를 권역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1차 사료를 정밀하게 탐색한 이후 영호도회소에 관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정밀하게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 3. 영호도회소 활동과 특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재인식

#### 1) 지방지에 담긴 영호도회소와 인식의 변화

영호도회소는 1894년 6월경(음력) 전남 동남부에 기반을 두고 결성되었고, 경남 서부에 까지 영향력을 확장했다. 경남 서부는 영호도회소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활동했으며, 앞선 민란과 연속해서 항거가 분출했다. 9월경 영호도회소가 섬진강을 건너 진출함으로써 경남 서부에서는 대규모 전투와 점령, 일본군 참전, 막대한 학살과 피해 등이 발생했다. 경남에서 패전한 동학군은 전남 광양 등지로 밀려났다. 그러므로 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활동 권역을 설정할지라도 각 지역 상황과 인식이 같을 수 없었다. 이는 영호도회소에 대한 지역별 인식과 정체성에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 기억에 달리 작용했음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지방지는 지역별 사회적 기억의 재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이들 지역에서 일찍이 근대 역사의 중요한 주제와 소재로 고려되었다. 다만 지역이 광범위하여 이들 모두를 검토하기란 간단하지 않은데, 1960년대와 1970년대 인식을 보여주는 지방지가 있다. 전자는 1962년 재발행되었던 『여수향토사』인데, ‘갑오동

---

21) 표영삼, 2018, 『표영삼의 동학혁명운동사』, 모시는 사람들에 ‘전라도 남동지역’과 ‘경상도 남서부지역’이, 성주현, 2019,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선인에는 ‘지리산권 서부지역’이 다뤄졌다.

22) 김현익, 2004, 「제2차 동학농민전쟁기 영호도회소의 조직과 활동」,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학란', '동학군', '동학당' 등으로 명명했다. 이 책은 일본군이 여수·순천·보성에서 진압 작전을 전개했음을 다루지만, 영호도회소는 언급하지 않았다.<sup>23)</sup> 후자는 『순천·승주 향토지』이다.<sup>24)</sup> 이 책은 '동학란과 순천'이라는 부분을 국사편찬위원회의 『동학란기록』(1971.)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와 수록했다. 이 책은 낙안 일대 상황은 비중을 두어 정리하고, 일본군 토벌 작전은 언급했으나, 김인배와 영호도회소는 다루지 않았다.

100주년 직후 순천에서 편찬된 지방지는 동학농민혁명의 활동과 의의가 반전되었음을 보여준다. 1997년에 간행된 『순천시사』가 그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은 순천의 대표적인 민중항쟁으로 평가했다.<sup>25)</sup> 100주년 전후에 정리한 동학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반영되었다. 순천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 중심을 강조해 2007년에 발행한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은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심부에 영호도회소에 배치했다.<sup>26)</sup>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 부분은 『순천시사』(1997.)를 근거로 구성했다. 이 책은 영호도회소가 순천도호부 읍성에 본부를 뒀고, 여수와 광양을 관할했으며, 고흥, 보성, 구례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는 영호도회소 영향권이 전남 동남부를 넘어 동부 전반에 미쳤던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9월과 11월 두 차례의 좌수영 공격이 실패하면서 12월부터 급격히 쇠퇴했다고 정리했다. 지방사를 다루다 보니 영호도회소를 정리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광양 상황은 김인배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술했으나, 여수 상황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하동, 진주, 사천, 곤양, 섬거를 거론함으로써 경남 서부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으나 소소하다.

영호도회소를 중심에 놓은 동학농민혁명은 2024년에 편찬된 『순천시사』에서 최대 분량으로 수록되었다.<sup>27)</sup> 이는 그동안 축적된 영호도회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연구가 망라되었다. 『순천시사』(2024.)는 전남 동남부와 경남 서부 동학농민혁명은 영호도회소가 구심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지역 경계를 넘어 여수와 광양은 물론, 경남에서의 활동까지를 포괄해서 망라했다.

광양 동학농민혁명은 2005년에 발간된 『광양시지』 2편에 수록되었는데, 영호도회소를 다루었다.<sup>28)</sup> 전남 동남부에서 보면, 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의 정리는 순

23) 김낙원, 1962,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62~65쪽. 이 책은 1953년 여수시교육청에서 발행했던 책이 효시이며, 이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재발행한 것이다.

24) 순천승주향토지편찬위원회, 1975, 『순천·승주 향토지』, 순천문화원, 63~65쪽.

25)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순천시사 : 정치·사회편』.

26) 순천시, 2007, 『걸으면서 배우는 순천』, 127쪽.

27) 순천시사편찬위원회, 2024, 『순천시사』 3.

천과 광양이 유사하다. 그것은 『광양시지』 집필자와 『순천시사』(1997.) 집필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이다.<sup>29)</sup> 『광양시지』의 영호도회소 활동은 광양에 국한하지 않는다. 순천과 여수, 그리고 경남 서부 동학농민혁명을 포괄한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여수의 사회적 기억은 순천과 대조적이다. 1980년대 여수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어떻게 인식 및 기록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여수·여천향토지』다.<sup>30)</sup> 이 책도 여수 동학농민혁명을 좌수영 공방전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 시기 여수 상황과 특성을 ‘별 신통한 호응이 없었고, 토평의 선봉 역할을 했다고 하며, 이 고장의 기질이 보수적’이라고 평했다.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협찬을 받아 발간한 『여수·여천 발전사』는 다소 달라진 인식을 보여준다.<sup>31)</sup> 이 책은 영호도회소 거점이었고, 대규모 전투와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함께 다룬다. 동학농민혁명은 제2편 정치와 사회의 제1장 정치 편에서 소략해 소개하는데, ‘반란론’과 ‘혁명론’을 혼용하고 있다. 이 책은 ‘동학혁명’이라고 명명하지만, ‘여수의 전라 좌수영만이 전 주민과 철통같이 단결하여 이를 물리쳤다’는데 의미가 있음을 더 강조한다. 또한 산인(汕人) 정문식(鄭文植)의 문집을 현대어로 바꾸어 이 일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를 설명한다. 이 문집은 조선 지배층과 진압군 시각을 표상한다. 그래서인지 영호도회소라는 명칭도 언급하지 않았고, 일본군이 진압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배제했다. 이 문집은 순천은 동학농민혁명 세력의 본거지이고, 여수는 이들 세력의 공격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전남 동부 6군 동학농민혁명을 ‘토평’한 거점임을 강조하는데, 이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수록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여수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화양면지』이다.<sup>32)</sup> 이 책은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을 기술했다. 다음으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2003년 11월에 개최한 워크숍에서 발표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글이다.<sup>33)</sup> 여수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연구 흐름이 바뀐 시점은 이때였다. 여수 동학농민혁명이 상세하게 다뤄지고, 그 일대

---

28) 광양시사편찬위원회, 2005, 『광양시지』.

29) 전남의 영호도회소에 관한 주요 연구는 김양식과 홍영기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성과가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었다. 주요 사례를 들면, 홍영기는 『순천시사』(1997), 『광양시지』(2005), 『여수항일운동사』(2006.),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사회운동사』 2(2016.)에서, 김양식은 『순천시사』(2024.)에서 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집필했다.

30) 여수·여천향토지편찬위원회, 1982, 『여수·여천향토지』, 285~288쪽.

31) 김계유 편저자, 1988, 『여수·여천 발전사』, 반도, 263~267쪽.

32) 화양면지편찬위원회, 1999, 『화양면지』.

33) 김갑인, 2003, 「여수지역 동학농민운동」, 《여수지역 동학농민운동사 워크숍》,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5~29쪽.

상황과 연계해서 설명되었다. 『여수항일운동사』가 그것인데, 앞서 이룬 이 지역 일대 동학 농민혁명과 영호도회소에 관한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었다.<sup>34)</sup> 여수항일운동을 주제로 했으나, 전남 동남부 일대 동학농민혁명이 다루어졌다. 이런 내용 구성이 이루어진 요인의 하나는 영호도회소 연구자 중심이 되어 이 책을 집필했기 때문이다. 반면, 여수에 소재한 대학이 2008년 발간한 책은 동학농민혁명을 다루지 않았다.<sup>35)</sup> 이렇게 보면,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여수의 사회적 기억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확실하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이해된다. 2010년 간행된 『여수시사』는 이러한 사회적 기억을 보여주는 일면인데, 동학농민혁명을 몇 쪽에서 다루지만, 『여수항일운동사』에 미치지 못한다.<sup>36)</sup> 이 글은 농민군과 진압군의 전투와 진압, 학살로 구성했는데, 선행 연구 성과들의 활용은 미약했다. 영호도회소 결성과 대접주 김인배를 다루고 있으나, 여수 일대 상황에 국한해서 정리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1980년대 이전부터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이 확인된다. 그런데 초반에는 대체로 정부군과 진압 세력 관점을 추종했고, 1990년대 들어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sup>37)</sup> 이들 지방사에 수록된 동학농민혁명은 정부군과 일본군 작전 기록과 각종 보고서, 황현의 『오하기문』 등에 의거 구성했다. 1978년 간행된 『하동군사』가 조선 지배층과 진압군 관점 이라면, 1990년 간행된 『내 고장의 맥』은 흔재된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주장과 논리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은 앞서 살펴본 김준형의 연구였다. 이 글은 이후 발간된 지방사에 유사한 논리와 개념으로 상당 기간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은 ‘호남 동학군’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영호도회소 결성 여부를 떠나 경남에서 활동한 전라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일컫는다. 그리고 9월 이후 하동을 시작으로 진주에까지 진출한 세력의 지도자를 ‘총대장 김인배’로 명시했고, 일본군이 동학군 진압에 절대적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중에서도 『사천시사』는 김준형의 연구와 『진주시사』에 의거해 작성되었다.<sup>38)</sup> 『사천시사』에는 ‘영호대접주 김인배’가 ‘동도’ 수천 명을 이끌고 하동을 걸쳐 진주에 입성했다고 표현한다. 영호도회소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인배 직함을 명시한 점은 이전과 차이를 보인다. 다만 『사천시사』는 경남 서부 동학농민혁명에 국한해 정리했다. 『남해군지』의

34) (사)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수항일운동사편찬위원회, 2006, 『여수항일운동사』, 48~80쪽.

35) 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08,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심미안.

36) 여수시사편찬위원회, 2010, 『여수시사 1』, 283~289쪽.

37) 하동군지편찬위원회, 1978, 『하동군사』. 하동군, 1990, 『내 고장의 맥』.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1989년 결성된 ‘진주동학군고성산성대일군전적지보존회’와 김범수(회장)은 1990년대에 하동과 진양, 진주의 지방사 관련 매체와 지방지에 동학농민혁명을 정리한 글을 수록했다. 김은정·신순철·문병학 편, 1995,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백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단체협의회, 256~257쪽.

38) 사천시사편찬위원회, 2003, 『사천시사』. 진주시사편찬위원회, 1994, 『진주시사』.

동학농민혁명도 앞서 살펴본 지방지의 서사와 유사하고 압축적으로 정리했는데,<sup>39)</sup> 금오산과 고승당산 전투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상과 같이 경남 서부 지방지에서는 영호도회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2000년대에 들어 김인배 직함을 명시함으로써 전남 동남부를 포괄했던 동학농민혁명 조직이 있음을 드러내지만, 이를 분명하게 거명하지는 않고 있다.

## 2) 영호도회소 유적지의 재인식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기억과 변화를 고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상으로 유적지를 들 수 있다. 유적지는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보존, 관리, 활용할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한 상징적 장소이다. 유적지 선정에는 사건 전개와 특성 그리고 의미와 영향 등 여러 기준과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선행한 조사와 연구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영호도회소 유적지 선정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지역별 차이와 특성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영호도회소 활동은 100주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 결과에 의거 고찰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역사”라는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했다. 이즈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현황과 방향이 한층 심도 있게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40)</sup> 그 기반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2005년 수행한 유적지 기념시설 조사사업이었다. 이 조사는 유적지 기념시설을 전남 27개소, 경남 2개소로 파악했다. 유적지 기념시설이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기념비류, 추모탑류, 동상, 기념관, 박물관, 생가 등 구체적 실체가 있는 장소와 조형물이 대상이었다. 영호도회소와 관련된 기념시설은 하동군 동학농민혁명군위령탑뿐이었다.<sup>41)</sup> 이로 보면, 100주년 무렵엔 영호도회소는 물론이고 전남 동남부와 경남 서부에서 유적지를 매개로 한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기억은 이제 형성되던 초기 단계였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대한 본격적 조사는 2010년 이후에 진행되었다. 광주·전남에서는 2011년, 2013년, 2021년 세 차례, 경남에서는 2010년과 2021년 두 차례였다. 조사

---

39) 남해군지편찬위원회, 2010, 『남해군지』, 330~338쪽.

40)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기념시설을 재인식했던 초창기의 글은 박준성이 2001년에 역사학연구소에서 발표한 “198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의 역사상”으로 보인다. 이 글은 수정되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역사』에 수록되었다.

4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09,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의 역사』, 128쪽.

횃수와 시점, 수행 기관이 다르지만, 이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우선 2011년 조사는 광주와 전남에서만 진행되었다. 그 결과는 전라남도과 무등역사연구회가 수행하여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현장, 지도자 관련 장소, 기념물로 구분되었다.<sup>42)</sup> 124개소가 조사되었고, 102개소를 유적지로 특정했다. <표 1>과 같이, 영호도회소의 주요 거점이자 활동 공간이었던 전남 동남부 유적지는 12개소이고, 여수가 5개소, 순천이 3개소, 광양이 4개소였다. 모두가 영호도회소와 관련된 장소이다. 이 숫자가 전부를 대변할 수는 없으나, 순천보다 여수와 광양에 유적지가 많이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호도회소 유적지를 ‘전투’와 ‘학살’에 방점을 두어 조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1> 전남 동남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2011.)**

지역	유적지 명칭					
순천 (3개소)	순천관아 터 영호 도회소 설치지	선암사	농민군 집결지	낙안읍성 전 투지		
여수 (5개소)	좌수영 전투지	좌수영	남문 터 농민군 처형지	종고산 농민 군 주둔지	덕양역 터 전투지	울촌 사항 리 전투지
광양 (4개소)	광양객사 터 김인 배·유하덕 처형지	섬진나루터	전투 지	백운산 농민 군 은거지	섬 거역 터 전투지	

\*출처 : 전라남도·무등역사연구회, 2011, 『전남의 동학농민혁명 유적』, 19쪽.

다른 실태조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과업으로 추진한 성과물들이다. 2010년에는 경남, 2013년에는 광주·전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2021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0여 년 사이 변화를 수치화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우선 광역 단위로 살펴보면, 전남은 13개소에서 14개소로 거의 차이가 없다. 반면, 경남에서는 3개소에서 9개소로 300%가 증가했다. 이는 경남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관심과 사회적 기억이 고양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진주와 하동에서 눈에 띄게 늘었고, 사천과 산청에서도 유적지가 선정됨으로 인해 공간적 인식의 확장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2) 현장은 집강소, 전투지, 점령지, 주둔지, 근거지, 집결지, 훈련지, 체포지, 구금지, 처형지, 매장지, 은거지로, 지도자 관련 장소는 생가, 묘소, 거주지, 은신지로, 기념물은 기념비와 기념탑 등으로 세분류했다. 이 책은 부제를 ‘전남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실태조사’라고 명기했다.

**<표 2>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조사(2010. 2013. 2021.)**

조사 시점	광역시	전남				경남					
		지역	순천	여수	광양	계	진주	사천	고성	하동	산청
2010(13)	개소	3	7	3	13	1		1	1		3
2021	개소	3	7	4	14	3	1	1	3	1	9

\* 출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0,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 : 강원 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및 기념시설 현황조사 : 전라남도』

2021년 유적지 조사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되었다.<sup>43)</sup> 이 조사는 앞선 조사와 달리 유적지를 인물유적, 동학유적, 전투유적, 활동유적, 관련유적, 기념시설로 구분했다.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성격은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남에서 유적지로 선정된 14개소 가운데 전투지가 6개소로 가장 많고, 희생지는 5개소였다. 유적지 선정에서 이런 요인이 강조되니 여수의 유적지 개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경남에서 유적지가 증가한 이유는 전투지와 점령지가 주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1년 조사와 2021년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면, 전남에서 영호도회소 관련 유적지 숫자가 12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했는데, 여수에서 2개소가 늘었다. 유적지 선정 장소에 대한 호명은 순천과 광양의 경우 약간 달랐으나 같은 곳이었다. 반면 여수의 경우는 변화가 제법 컸다. 먼저 2011년에 유적으로 지정한 동산동 종고산 농민군 주둔지는 배제되었다. 반면, 화양면 장수리 동학농민군 돌무덤 터, 화양면 장수리 동학농민군 은거지(최부자 집), 화양면 화동리 동학농민군 지도자 김지흥 처형지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이들 유적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2013년 현황조사 때부터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무렵에 여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이 확장 혹은 재고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sup>44)</sup>

**<표 3> 영호도회소 관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성격 분류(2021.)**

#### 4. 영호도회소 기념사업의 지향 : 중첩된 항거와 학살

43) 선행 조사와 후속 조사는 유적지에 대한 개념상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유적지의 성격 분류에서는 차이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영호도회소 관련 유적지 분류와 성격 파악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

44) 이들 유적지는 대체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2005년에 소개한 현장들이었다.

권역	전남			경남				
지역	순천	여수	광양	진주	사천	고성	하동	산청
개소	3	7	4	3	1	1	3	1
성격	도회소1 전투지1 주둔지1	전투지3 희생지3 은거지1	전투지2 희생지2	대도소1 점령지1 대회지1	점령지1	전투지1	전투지2 위령탑1	기념비1

\* 출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편람 0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편람 03』.

영호도회소를 매개로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을 규명하고 정리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30년 전부터였지만, 연구가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영호도회소와 그 영향이 미친 지역에 관한 연구는 몇 편의 논문과 책 그리고 지방지에 담겨있다. 이들 연구는 몇몇 연구자의 성과들로 압축되는데, 영호도회소 활동 전반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면 영호도회소 기념사업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가 명확해진다. 그것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와 성격, 의미 전반에서 영호도회소가 갖는 위상과 특성을 정립하고, 전반을 관통하는 정리와 더불어 다양한 자료의 집대성으로 압축된다.

영호도회소의 존재와 활동은 전남 동남부와 경남 서부를 한 권역으로 파악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별로 세분하여 선택적으로 구성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바로 설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이들 지역에서 다양한 인물과 사회관계, 장소와 공간이 긴밀히 결합하고 연계되어 펼쳐졌으며, 전후 표출된 다양한 사건 및 항거와도 분리되어 고찰될 수 없다. 오늘날 과잉된 행정 단위 경계 설정과 구분 짓기를 넘어서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인식론이 요구된다.<sup>45)</sup> 이이화·우윤은 ‘대접주 김인배’ 평전에서 ‘영호대도소와 집강소는 동학농민전쟁사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역과 연대한 조직을 만들고 활동을 벌였다’라고 평가하고, ‘호남·영남 연합 농민군’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sup>46)</sup> 그러므로 영호도회소의 경우는 분절적 관점으로 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기 한정적이며, 의미 도출이 충분하지 않다.

둘째, 근현대에 대한 중장기적 흐름과 관점에서 영호도회소 주요 현장과 유적지를 조망하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을 역사적 맥락에서 지향성을 발견하고,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요구되는 바다. 동학농민혁명에 국한하지 않고 주요 현장과 공간을

45) 이런 문제의식은 3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박명규, 1995, 「동학농민전쟁과 지방사 연구」,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새길, 24~26쪽에 권역별 검토의 필요성이 정리되어 있다.

46) 이이화·우윤, 2004,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 푸른역사, 203~204쪽.

조감하면, 역사의 무게가 중층적이며 중의적임이 바로 드러난다. 대표적 장소를 든다면, 좌수영이 위치했던 여수 진남관 일대이다. 진남관 일대는 영호도회소 농민군이 음력 9월과 11월에 좌수영 주둔군 및 일본군과 대규모로 충돌한 공간이다. 이 과정에서 민가 화재를 비롯해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농민군은 좌수영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고, 진압군은 일본군 지원을 받아 공세에 나서 대규모 학살을 벌였으며, 동학군 기반을 초토화했다. 진압군은 좌수영 진중에서는 물론 진남관 앞 광장(구 장터, 중앙동로터리)에서 농민군을 학살했으며, 이들의 시신을 도륙하여 본보기로 전시했다.<sup>47)</sup>

이렇듯 진남관 일대는 동학농민혁명만으로도 상징성과 정체성이 집적된 기억의 장소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진남관 일대의 장소성은 그것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멀어지지 않았다. 진남관 일대는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사건에서 중요한 항거 장소가 되어 역사적 현장으로 부활했다. 10월 20일에 진남관 앞 광장에서 봉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파하고 협력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한 인민대회가 열린 것이다.<sup>48)</sup> 인민위원회는 진남관 뒤편에 있던 여수군청 등을 접수하고 통치했으며, 진남관에 인접한 여수경찰서 앞에 있던 읍사무소에 본부를 두었다. 이렇듯 여순사건이 전개되던 기간 내내 진남관 일대는 항거와 새로운 체제의 중요 거점으로 활용되었고, 여수경찰서 일대에서는 학살이 자행되었다. 전세가 역전되어 진압군이 들어온 이후는 부역자 색출을 명분으로 무수한 사람이 희생되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시내가 불바다가 되어 소실되었다.<sup>49)</sup>

1987년 6월항쟁에서도 진남관 일대는 중요한 항거 현장이었다.<sup>50)</sup> 6월항쟁은 여순사건 이래 최대 규모 시민이 집결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을 명기한 헌법 개정 등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요구했던 집합행동이었다. 이 일은 ‘반란의 도시’라는 낙인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여수 사람들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다. 그래서 6월항쟁 30주년을 기념하여 두 곳에 표지석을 설치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남관 앞 광장 인도였다. 농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주요 장소의 특성은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확인된다. 순천에 영호도회소 설치 장소가 그러하며, 광양읍사무소가 위치했던 장소가 그러하다. 또한 진주성과 관아터가 그러하며, 경남의 여러 유적지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47) 김낙원, 1962,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64쪽. 김계유 편저자, 1988, 『여수·여천 발전사』, 반도, 267쪽.

48) 김득중, 2009, 『빨갱이』의 탄생, 선인, 144쪽.

49) 주철희, 2013, 『불량 국민들』, 북랩, 239~240쪽.

50) (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월항쟁을 기록하다』 4, 388~389쪽.

는 역사적으로 한층 두터운 의미를 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격의 항거와 희생이 되풀이 되었던 장소성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현장들은 여순사건을 비롯해 권위주의 청산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위한 항거 그리고 6월항쟁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민주주의를 향한 항거의 흐름을 잉태한 장소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기념사업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과제의 숙고이다. 영호도회소의 영향이 미쳤던 지역에서 기념사업 주체가 먼저 결성되고, 기념시설을 건립한 지역은 경남이었다. 1989년에 가시화된 전적지 보존회가 중심을 이루고 천도교 중앙총부가 협력하여 1995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에 ‘동학혁명군위령탑’을 건립했다. 2015년에는 산청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발족하여 산청군 시천면에 ‘산청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기념비’를 세웠다. 전남에는 광양시 진상면 섬거마을 주민이 2004년에 관의 지원을 받아 건립한 ‘동학정’이 있으나, 기념사업 단체를 창립한 것은 아니다. 여수와 광양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호도회소가 설치되었던 순천에서도 이를 기억하고 기념할 주체가 오랫동안 형성되지 않았다. 100주년을 전후해 영호도회소를 주제로 한 연구와 학술행사 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이 되어 2022년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 그후 2023년 1월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가 순천에서 창립되었다. 그리고 그해 2024년 하동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창립되었다<sup>51)</sup>

영호도회소의 기념사업 주체가 뒤늦게 등장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이다. 그중에서도 여순사건의 효과를 무시하지 못하리라 판단된다. 여순사건의 핵심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경남 서부에서 기념사업 주체가 결성되고, 기념사업이 선행되었던 점은 이를 보여준다. 영호도회소와 관련된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거나 거주지를 떠나야 했고,<sup>52)</sup> 후손들은 생존을 위해 자취를 감추고 숨죽이며 살았다.<sup>53)</sup> 이로부터 약 반세기 뒤에 여순사건이라는 거대한 무력 항거와 무차별 학살의 폭풍이 휘몰아쳤으니,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란 난망할 수밖에 없었을 터다. 그러므로 영호도회소 활동과 사건 전개,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전남과 경남을 아우르는 권역 기념사업 구심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넷째, 영호도회소 활동은 동학농민혁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전개 양상과 특성을 대부분

---

51) 「뉴스프리존」, 2023. 10. 31. “하동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발족’”.

52) 성주현, 2019,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선인, 362~371쪽에서 전북 고창의 사례를 들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동향을 정리하고 있다. 이런 일이 이 지역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음은 불문가지다.

53)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4,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농민군의 삶』. 문충선 외, 2020, 『1894 석대들』, 장흥문화공작소, 61~63쪽에도 돌아오지 못한 농민군 가족의 삶이 기술되어 있다.

포괄했다고 할 수 있다.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이 이끌던 동학군의 규모는 아니지만, 영호도회소도 항거와 확산, 패전과 학살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다양한 양상들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동학군이 도강작전을 펼치고 일본 함선이 진압에 동원되는 등 생경함이 있다. 또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동학군의 대규모 집결과 많은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졌으며, 생명을 부지한 동학군이 인접한 강진과 장흥 등으로 탈출하여 석대들 전투에 참여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sup>54)</sup>

이런 점들에서 보면, 영호도회소는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고 탄탄하게 규정할 수 있는 중요 사례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는 영호도회소를 매개로 한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의의가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가를 방향 짓는 데 의미 있게 작용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동학농민혁명 농민군을 실질적으로 진압한 군사력은 일본군이였다. 여순사건을 진압한 실질적 지휘부는 미군이였다.<sup>55)</sup> 공교롭게도 두 번에 걸친 대규모 항거가 타국 군대에 의해 좌절되었고, 그로 인한 희생과 피해는 가늠조차 안 되는 지경이다. 특히 전남 동남부는 이런 상황이 반복해서 발생한 특별한 지역성을 갖는다.

## 5. 맺음말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시대 말기 약 1년에 걸쳐 한반도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이 시대에 농민이 대규모 군사 집단을 형성해 각종 정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무수한 전투를 벌인 것은 봉건 왕조 체제의 몰락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종이였다. 조선 말기에 발생한 부지기수의 민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반면, 동학농민혁명은 110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국가적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대상으로 우뚝 섰다. 동학농민혁명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과 활동이 전부 아니고, 여전히 새롭게 발견·발굴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서사와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의미를 미래화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거대서사에서 벗어난 활동과 항거 그리고 지역 활동이 조명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가 영호도회소로 판단된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 표명은 1960년대부터 나타났으며, 정치적 목적

---

54) 이이화·우윤, 2004, 『대접주 김인배, 동학농민혁명의 선두에 서다』, 푸른역사, 202쪽.

55) 전라남도·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25, 『여순10.19사건 전국화를 위한 유적지 답사 자료집』, 24~25쪽.

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간헐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곤 했다. 적어도 교과서에서는 ‘반란’이라는 규정이 일찍이 ‘혁명’ 혹은 ‘운동’으로 재규정되었으나,<sup>56)</sup> 지방지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역 정서, 특히 영호도회소가 설치되고 활동했던 지역의 사회적 기억이 어떤 상태였는가는 지방지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영호도회소에 관한 학술적 관심은 다른 주제와 대상에 비해 늦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 사례와 사건에 비해 완전히 뒤진 것은 아니다. 영호도회소는 100주년을 전후하여 학술적으로 재규명되기 시작했다. 이는 점진적으로 지방지 내용 구성에 영향을 주었고, 지역사회의 공식 기억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 지역의 지방지에 수록된 영호도회소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차이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구분된 전남 서남부와 경남 서부에서뿐만 아니라, 전남 서남부 내에서도 상당히 다른 인식을 표출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각 지역의 역할과 조직적 활동, 각종 대립과 전투 양상 등이 지방지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함에도 달리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호도회소 유적지 선정은 장소성 측면에서 사회적 기억의 차이와 특성을 보여준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호도회소는 여전히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동학혁명 기념재단이 2023년에 발간한 **피어라 녹두꽃**이라는 책자에 수록된 “전개과정/주요전투” 지도와 주요 일지에서 영호도회소 흔적과 활동을 찾기란 난망하다. 영호도회소 유적지 일부가 점으로 표기된 듯 보이는 하나, 문자로 특정한 것은 ‘하동 고성산 전투’뿐이고, 주요 일지에서는 관련 내용이 전무하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전투는 집합적 항거 행위의 부분일 터인데, 여기에 방점을 두다 보니 새로운 사회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의 조명은 뒤로 밀린듯하다. 이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박물관의 전시관에서도 유사한 재현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니 정읍휴게소의 정읍 관광 홍보전시관 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시에서 영호도회소 흔적이 없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영호도회소 유적지 선정은 대략 세 차례 조사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피레르 노라(Pierre Nora)는 **그 기억의 장소**에서 “역사가 사건에 매달리듯이 기억은 장소에 매달린다.”라고 했다.<sup>57)</sup> 선정된 유적지는 차후 기념사업의 유력한 후보지이며, 기억의 터로 전환될

56) 배향섭, 2000, 『동학난에서 농민전쟁으로』, 『내일을 여는 역사』 1, 서해문집, 97쪽.

57) Pierre Nora, 2005, 김인중 외 역, 2010, 『기억의 장소』 1, 나남, 62쪽.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의해 살펴볼 여지를 갖는다.<sup>58)</sup> 영호도회소 유적지는 전남은 개수에서 크게 변화가 없으나, 경남에서는 대폭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지역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전남에서 영호도회소 유적지 개수는 여수와 광양 그리고 순천의 순서로 선정되었는데,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이는 유적지 선정이 전투와 희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영호도회소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영호남을 아우르는 기념사업 주체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영호도회소는 조직체의 하나이자 영호남을 아우르는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권역과 남다름이 있다.

더불어 영호도회소 기념사업에 관한 역사적 인식을 중기와 장기 지속의 시간 축을 설정해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남 영호도회소와 관련한 장소들은 민중 항거와 학살이 반복되었고 중첩되었던 특별함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을 ‘한국 근대 민주정신의 큰 줄기’의 시원으로 위치시키고, 민주시민혁명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다면,<sup>59)</sup> 영호도회소가 설치되고 활동한 지역에서 펼쳐진 다양한 민중의 항거와 연대 및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

58) 전라남도도는 2025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전면 보완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 이유는 진압군의 유적지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며, 새로운 발굴은 하지 않고 누락 사건과 지역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겨레」, 2025. 4. 27. “동학농민혁명 전남 유적지 81곳 중 8곳이 토벌군 쪽 유족.”

59)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2, 『1894년 그날의 혁명을 다시 세우다 : 상설전시 도록』, 72~93쪽.

### 토론 3

## <영호도회소의 사회적 기억과 기념사업의 지향> 토론문

김명재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사무국장

### 1. 사회적 기억은 역사적 기억이다

발표자 김호기 교수님이 1894년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억을 준비한 여러 논문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영호도회소의 일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영호도회소라는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주제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풍부하게 정리해 주심으로써, 후속 연구와 기념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논문은 영호도회소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영호도회소의 동학농민혁명사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성취라 생각하며, 그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적 기억 개념을 적용한 분석은 이전에는 다루지 않는 공감적 내용이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지방지와 유적지를 통한 지역 사회 인식의 변화 고찰은 더 폭넓은 이해를 각인시켰습니다. 향후 영호도회소의 미래 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기억은 지역 내에서 온전히 사라진 기억으로 오인되었으나 자세히 찾아주신 여러 연구에 후손들과 유족들에게 큰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저만큼이나 여기 계신 청중 여러분들도 많은 배움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토론의 시간에, 현장 활동가의 입장으로, 아래에 혁명사적 관점과 사회적 기억의 고찰에서 사상적 배경에 좀더 무게를 실어 부연해 보았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인지하지 않고 혁명사적 관점을 기억하기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894년 1차 동학농민혁명은 반봉건·반부패의 역사적 민중혁명이었습니다. 5천년을 이어온 노비제가 일시에 사라진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혁명인 것입니다.

개벽은 당대의 민중에게 수천 년의 숙원을 시작하는 서막이었으며 오래된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여 남녀노소가 서로 존칭을 하였고 노비와 양반이 또 한 서로를 공경하는 모습이 실현된 세상이었으니 분명코 민중에게는 참 개벽이었을 것입니다.

1차 봉기 후 동학농민군이 요구하였던 폐정개혁안은 총 12개조로 축약하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강력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각종 폐단과 개혁이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을 넘어 131년 지금 미완의 대동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31년 전의 조선의 민중들이 지금의 민중에게 남겨준 커다란 선물이며 그들의 목숨을 건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제강점기와 독재시대를 지나온 동안 숨겨지고 감춰진 우리의 올바른 역사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교육하여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순천의 영호도회소는 바로 아래로 부터의 혁명을 꽃피웠던 역사적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영호남을 연대하여 경남서부 지역을 해방하고 집강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연대의 힘은 다시 항일독립운동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영호남의 연합부대가 치열하게 일본군과 싸운 것은 보국안민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성을 발현한 역사입니다. 사회적 기억의 정의에 가장 앞선 내용은 올바른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본의 경복궁 침탈로 인한 항일구국전쟁이었습니다.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고 친일정권을 내세워 전국의 동학농민군은 재봉기한 것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부터 전남 동부 6군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는 오랫동안 같은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특히, 전라좌수영 5관 5포의 지역적 특성은 호국의 성지이며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 시켰던 민족적인 뿌리이기도 합니다.

1592년 2차 진주성 전투에 호남 의병 3천은 10만 대군의 왜적 중 3만 8천을 도륙하고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이 역사로부터 우리 지역의 왜적에 대비한 대응적 선택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성웅 이순신은 호남에 대한 기억을 “國家軍儲 皆靠湖南 若無湖南 是無國家”<sup>1)</sup>라 남겼습니다. 500년 전 임진왜란의 기억은 나라의 풍전등화 속에 민족의 안전은

---

1) 충무공 전서 하권: 국가군저 개고호남 약무호남 시무국가(나라의 군수품을 다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나라가 없는 것이다)

장담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으며, 輔國安民에 대한 각성은 조선정부와 민중들의 남겨진 역사였습니다.

조선후기 임진왜란의 기억을 망각하고 부패한 정부와 탐학한 관리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정부는 흥성(興盛)의 시대를 다하고 망쇠(亡衰)의 길로 접어들어 또 다시 민족적 운명의 풍전등화를 맞이하였습니다.

17~18세기 산업혁명을 성공한 서양의 제국주의적 야욕은 아시아를 노예로 전락시키고 개화라는 미명 아래 조선 또한 외세의 침탈을 벗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1860년 경주의 수운 최제우 선생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 바로 ‘輔國安民’이었습니다. 그는 정무공 잠와 최진립(崔震立)<sup>2)</sup>의 7대손입니다. 최진립 장군은 청백리의 상징적 인물이었으며 의병을 일으켜 임진왜란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의병장이었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최진립과 함께 순절한 두 종(옥동과 기별)에게도 절을 하는 소신이 있는 집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집 으로 수운 최제우 선생은 정무공의 후손이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웅 정무공 최진립 장군의 보국안민 정신은 7대의 기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최제우로부터 망국의 조선민중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사상이 탄생하였습니다. 바로 절망적 조선에서 侍天主(누구나 한울의 기운을 모시고 태어났으므로 모두가 평등하다 - 대동세상)의 철학적 해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동학은 단순한 학문적 대각을 넘어선 개혁적 사상이었습니다.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보국안민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상은 당대의 신분질서에 결코 용납되지 않는 불온한 사상이었습니다. 5천년 동안 봉건적 지배로 억압의 수단 이었던 신분제는 동학을 통해 역사의 퇴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통치자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조선 지배계급은 좌도난정으로 최제우를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번 깨어난 조선민중의 열망은 들불처럼 새 세상을 향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제우의 사망 후 역사의 뒀안길에 묻힌 듯하였으나, 2대 교조 최시형은 고비원주(高飛遠走)<sup>3)</sup>로 30여 년을 事人如天, 布德天下<sup>4)</sup>하여 수백만의 교단조직을

---

2) 정무공 잠와 최진립(1568~1636) 경주 최씨.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킴, 병자호란 때 69세의 노구로 용인 험천 전사(내 비록 늙어 잘 싸우지는 못 할지언정 싸우다가 죽지도 못하겠는가). 병조판서 추증. 잠와의 자손 최국선은 活人堂(사람을 살리는 집)을 만들어 사방 100리 안에 굶은 사람이 없도록 하였고 19세기까지 이어진 실천은 흉년에 땅을 사지 않고 재산을 1만석 이하로 유지하였다. 12대 최준은 모든 재산을 임시정부와 국권회복단에 기부한 독립운동가. 500년의 보국안민의 역사적 기억은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최제우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3) 고비원주: 높이 날고 멀리 달린다는 뜻으로 최제우의 옥중에서 마지막 유언이다 담뱃대 속에서 발견된 글로 최제우 사후 해월 최시형은 35년 동안 고비원주하였다. 시천주에서 한 단계 더 실천한 事人如天

형성하였습니다.

최제우의 시천주라는 것은 사람은 각자 내면에 궁극적인 존재인 하늘은 모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2대 교조 최시형은 “사람을 바로 하늘처럼 모신다(사인여천)”는 사상으로 실천되었고, 이 사상이 전봉준이 주축이 되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해월 최시형은 2대 교조로 2차 봉기 시 전국의 동학농민군에게 총기포령을 내려 전봉준과 3대 교조 손병희를 북접통령으로 내세워 항일구국투쟁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 동학사상이 바로 대동세상을 지향하는 혁명 사상이었습니다.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과 3.1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였던 동학은 일제강점기 천도교로 시대적 사명을 이어왔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였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023년 5월 18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은 전 세계의 인류가 보전할 기록문화 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을 온전히 위대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정의로운 역사적 기억은 우리지역 영호도회소의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희생이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영호도회소의 규명과 재구성의 인식틀

### - 영호도회소의 정명화 항일독립운동기지였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군은 파죽지세로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성을 점령 후 조선 정부 측과 최초로 관민상화(官民相和)<sup>5)</sup>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총대장인 전봉준은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라도 53개 군현에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통해 자치행정에 합의하였습니다. 또 한 외세의 침략으

---

은 사람을 하늘처럼 섬기라는 해월의 철학적 실천이다.

- 4) 포덕천하 : 사람을 하늘님 섬기듯 모시는 동학은 조선민중에게 개혁의 세상을 열었던 학문이었다 이로 인해 동학교단은 관의 탄압을 극심히 받는다.
- 5) 관민상화의 정치적 원인은 텐진조약: 1884년 개화파에 의한 갑신정변 발생 후 청과 일본은 상대국의 조선정부에 대한 군대출병시 상대국에게 알리는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고종은 동학농민혁명군을 진압할 목적으로 청에 구원요청을 하였으며 이를 조선침략의 기회로 노렸던 일본은 히로시마대본영을 통해 군대를 이끌고 상륙하였다 이로 인해 동학농민혁명군들은 정부와의 화약을 통해 혁명을 중지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의 화해협약을 맺고 농민통지기구인 집강소를 전라도 53개 군현에 설치하였으며 오랫동안 민중을 억압하였던 12개조 폐정개혁을 약 6개월간 실시하였다.

로부터 같이 나라를 구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때 김개남 장군의 핵심 측근인 김인배가 순천도호부의 영호도회소 대접주가 되었습니다. 영호도회소는 영호남의 동학의 총본부란 의미입니다. 탐학한 관리였던 순천부사 김갑규는 이미 이임되었으며, 순천부사가 공적인 상황에서 손쉽게 농민자치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되고 폐정개혁<sup>6)</sup>은 원활하게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순천의 동학 지도자로 박낙양<sup>7)</sup>이 있었으나 전북 금구 출신의 25세 대접주 김인배는 영호도회소의 총괄 대장으로서 영호도회소를 큰 저항 없이 이끌었습니다. 박낙양은 순천 동학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보은취회와 백산전투에도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시에는 순천의 농민군 5천명을 이끌고 삼례로 참여하였습니다.

신임부사 이수흥이 순천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행정과 치안 통치는 영호도회소가 자리 잡아 신임부사는 부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1894년 7월 23일 일본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격적 신호탄으로 경복궁을 침탈하고 고종을 압제하여 군대를 해산하고 친일내각 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조선정부는 일본과 ‘朝日兩國盟約’<sup>8)</sup>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고 장위영 군관 이두황을 죽산부사로 동학농민혁명군에 대한 본격적 토벌을 시작하였습니다. 실질적 군통수권은 조선정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

---

#### 6) 폐정개혁 12개조:

1. 동학교도와 정부 사이에는 원한을 해소하고 서정을 협력할 것
2. 탐관오리는 그 죄를 엄징할 것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할 것
4. 불량한 유림과 양반 무리의 못된 버릇을 징계할 것
5. 노비 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6.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 머리에 쓰는 평양립은 벗어 버릴 것
7. 청춘과부의 개가를 허락할 것
8.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
9. 관리 채용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10. 왜와 간통하는 자는 엄징할 것
11. 공사채를 막론하고 기왕의 것은 모두 무효로 할 것
12. 토지는 평균으로 분작하게 할 것

7) 박낙양은 순천동학의 핵심지도자이다 1893년 보은취회와 1894년 백산전투에도 참여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시에는 순천의 농민군 5천명을 이끌고 삼례로 참여하였다. 김인배 대접주와 박낙양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낙양은 동학농민혁명 후 살아남아 동학이 천도교로 1906년 대교천하 하였을 때 광주대교구의 초대대교구장이 되었으며 3.1독립운동을 준비하였던 천도교 봉황각의 49일 연성수련회에 참석한 인물이다 1927년 환원하였다 출신지는 전남 보성군 읍어면 장수리이다 - 천도교인명사전

8) 조일양국맹약 1894년 8월 26일 고종을 압제후 친일내각을 세운 일본과의 군사동맹이다. 대청전쟁을 수행할 시 서로 공수상조 한다는 군사동맹으로 양국은 전쟁시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원활히 제공받기 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본후비보병 19대대 미나미 고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3개 중대를 이끌고 남하하며 대대적 학살을 자행하였습니다.

김개남의 전라좌도 동학농민혁명군은 1894년 8월 25일 남원대회를 열고 척왜양의 봉기를 선포하였습니다. 임진왜란에 이어 갑오왜란으로 벼랑 끝 조선을 구하기 위한 동학의병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원대회는 동학의병전쟁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척왜양을 내세우고 전라좌도의 각 군현에서 전쟁보급을 위한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9월15일부터 18일까지 낙안읍성 전투를 기점으로 본격적 항일전쟁을 준비한 것입니다.

영호도회소는 1894년 7월 하동에 영남의소를 설치하였습니다.<sup>9)</sup> 영호도회소 순천 광양의 동학군 2천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재차 9월 봉기하여 다시 한번 영남을 진격합니다. 광양 진상의 섬거역에서 1만명의 동학군이 운집하였습니다.

김인배와 영호동학농민혁명군은 전국의 2차 동학농민혁명 기포보다 앞선 음력 9월 1일 하동을 공격하여 2일 하동읍성을 점령합니다. 남해 또한 여수의 영호동학군 심송학이 19명의 농민군과 서상포를 입성하여 남해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하동전투에 합류하였습니다.

영호도회소 9월 10일 흥양, 순천, 광양, 여수 지역의 병력과 여장협이 이끄는 경남의 동학농민혁명군이 모여 광탄진에서 보국안민 대회를 열고 9월 11일 남해, 13일 사천, 15일 곤양, 20일에는 진주를 점령하였습니다. 목표는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최전선의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수많은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봉기의 전적지가 현존하고 있으며 영호도회소의 항일활동은 음력 9월 2일 하동부를 점령하고 남해와 곤양 사천을 너머 진주성까지 무혈입성을 하였습니다. 이어 진주성을 장악하고 부산을 향한 출발을 준비하였습니다.

1894년 영호도회소는 동학의병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농민군을 해산하지 않고 동학의병을 군편제로 변경하여 각 지역에서 훈련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고흥,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등 동학농민군의 훈련지가 유적지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가장먼저 앞장선 항일 독립운동이었으며 가장 최후의 순간까지 전쟁에 임하여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남겼습니다.

전국적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음력 9월 18일입니다. 충북 옥천 청산에서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은 총기포령을 통지하고 전국의 동학농민혁명군의 본격적 항일 활동을

---

9) 광양의 망덕진으로 여장협과 연대한다. 광양의 대장 박정주 하동을 북서쪽 섬진강 상류를 건너 만지등을 공격하였다. 김인배는 유하덕과 서쪽의 해량포구 남쪽의 광평동등 세방향에서 하동을 공격하였다. 경남서부 동학농민혁명군은 영호동학농민혁명군과 하동에 동학군 본부를 설치하였다.

선포한 것입니다. 영호도회소는 일본군의 조선침략을 김개남 장군과 예의주시하였습니다. 1차 봉기 이후 2차 봉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학 2대 교조인 해월 최시형이 남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총 동원령인 초유문입니다.

<초유문>

주역에 이르기를 대재(大哉)라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자시(資始)하고 지재(至哉)라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자생이라 하니 사람이 그 사이에 만물의 영이 된지라. 부모는 낳고 스승은 가르치고 임금은 기르나니 그 은혜를 갚는데 있어 생삼사일(生三四日)의 도(道)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선사(先師)께서 지나간 경신년(庚申年) 천명(天命)을 받아 도를 창명하여 이미 퇴폐한 강상(綱常)을 밝히고 장차 도탄에 빠진 생령(生靈)을 구하고자 하더니 도리어 위학(僞學)이라는 지목을 받아 조난 순도(遭難殉道) 하였으니 아직도 원통함을 씻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31년이라. 다행히도 한울이 이 도를 망(亡)케 하지 아니하여 서로 심법(心法)을 전하여 전국을 통한 교도가 몇 10만인지 알 수 없으되 사은(四恩)을 갚을 생각은 없고 오로지 육적(六賊)의 욕을 일삼으며 척화를 빙자하여 도리어 창궐을 일으키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리오.

돌아보건대 이 노물(老物)이 나이가 70에 가까운지라 기식(氣息)이 엄엄하되 전발(傳鉢)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옷깃에 차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도다. 이에 또 통문을 발하노니 바라건대 여러분은 이 노부의 마음을 양찰하고 기필코 회집하여 비성을 다하여 천위주광(天威莊纘)의 아래 크게 부르짖어 선사의 숙원을 쾌히 펴고 종국(宗國)의 급난에 동부할 것을 천만 바라노라.

### 호남 동학 농민기포군10)

전주	최대봉, 강수한	5천명
----	----------	-----

10) 출처 동학농민봉기 한우근저 (교양 국사 총서 19권 1976년 )호남의 전봉준과 호서의 손병희 양대장이 서로 만나 손을 잡으니 일면에 옛같이 간담이 상조하고 지기(志氣)가 부합되는 지라. 드디어 형제의 의를 맺어 생사고락을 함께 맹세하니 전봉준은 형이고 손병희는 아우가 되었다. 이날로부터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장막에서 잠을 자고 기타 모든 일에 동일한 보조를 취해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남접의 동학군은 북접의 참여로서 그야말로 100만 원군을 얻은 셈이 되었다. 혁명 참여를 결정한 해월은 신속하게 진영을 갖추도록 했다. 전경주의 포를 선봉, 정규석 포를 후군, 이종훈 포를 좌익, 이용구 포를 우익, 손병희를 종군통령으로 임명하여 각 포를 총지휘도록 하였다. 손병희는 북접군 총사령이 된 것이다.

고창	임천서, 임형로	5천명
태안	최경선	7천명
남원	김개남	1만명
금구	김봉득	5천명
함열	유한필	2천명
무장	송경찬, 송문수, 강경중	7천명
영광	오하영, 오시영	8천명
정읍	손여옥, 차치구	5천명
김제	김봉년	4천명
고부	정일서, 김도삼	6천명
삼례	송희옥	5천명
순창	오동호	1천5백명
원평	송태섭	7천명
장흥	이방언	5천명
해남	김병태	3천명
무안	배규인	2천명
장성	기우미	1천명
나주	오권선	3천명
함평	이○○	1천명
흥덕	고영숙	2천명
순천	박낙양	5천명
흥양	유희도	3천명
보성	문장형	3천명
광주	박성동	4천명
임실	이용거, 이병용	3천명
담양	김중화	3천명
합계		11만5천5백명

### 북점 호서동학군 기포 상황

지명	주도인물	지명	주도인물
청주	손천민 · 이용구	양근	신재준
보은	김연국 · 황하일 · 권병덕	지평	김태열
목천	김복용 · 이희인	원주	이화경 · 임순화
옥천	정원준 · 강채서	횡성	윤면호
서산	박인호	홍천	심상현 · 차기석
신창	김경삼	충주	신재연
덕산	김○배	수원	김내현
당진	박용태 · 김현구	함열	김방서 · 오지영
태안	김동두	익산	오경도 · 고제정
홍주	김두열 · 한규하	옥구	장경화 · 허진
면천	박희인	임파	진관삼
안면도	주병도	부안	김석윤 · 김낙철
남포	추용성	만경	김공선

공주	김지택 · 배성천	여산	최난선 · 고덕삼
안성	정경수 · 임명준	고산	박치경
양지	고재당	무주	이응백
여주	임학선 · 홍병기	임실	이병춘
이천	김규석 · 김창진	전주	서영도 · 허내원

<전봉준의 격문>

일구가 구실을 만들어 동병하여 우리 임금님을 펄박하고 우리 국민을 어지럽게 함을 어찌 그대로 참을 수 있단 말이요. 옛날 임진란 병화 때에도 능침을 파헤치고, 궁궐과 종묘를 불태우고, 군친을 욕보이고, 국민을 살육한 것은 신민이 공분으로 천고에 잊을 수 없는 한이었소. 초야의 필부 매동으로서도 오히려 울분과 근심이 그지없는데, 하물며 각하는 세록충훈으로서 더우기 평민 소부의 몇 갑절이 아니겠소. 지금 조정의 대신은 망령되고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려 하여, 위로는 군부를 위협하고 밑으로는 국민을 속여, 왜이와 연결하여 삼남의 국민에게 원한을 사며, 망령되게 친병을 움직여 선왕의 적자를 해하려 하니, 참으로 그 무슨 뜻이오. 지금 나의 하는 바는 극히 어려움을 알지만은, 그러나 일편단심 죽음을 각오하고 관철하려는 바요. 천하의 인신으로 이심을 품은자를 쓸어버려서 선왕조 5백 년 동안의 유육의 은혜를 갚으려는 것이니, 각하께서도 맹성하여 의로써 더불어 죽음을 각오한다면 천만 심행이겠소.

일찍이 역사학자 한우근은 동학농민혁명 2차 기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갑오 10월 16일(1894. 11. 23) 남. 북접이 연합된 동학군의 주력 부대가 논산에 집결될 때까지에는 그 밖의 여러 지방에서도 일찍부터 항일 투쟁이 국부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실상 부산·인천 등 개항장을 위시하여 내륙 각처에 침입해 온 일본군은 요처에 청과의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를 마련하여 병력을 배치했고, 부산서부터 서울에까지 연결시킨 일본군의 군용 전신선이 가설되었다. 각처에서 일어난 동학군은 이들 일본 병참 기지를 습격하고, 군용 전신선을 절단하여 일본군의 후방을 교란했다.

동학군의 제2차 봉기는 국토와 국민과 국권을 유린하는 일본군에 대한 민족적 항쟁이었다. 정부군이 일본군에 구사되어 그 동학군 섬멸 작전의 앞잡이 꼴이 되었으나, 일부 관료 사이에는 민족의식이 대두하였고 전 봉준 역시 동족 의식에 호소하였다. 외국 침략에 대한 저항은 이제 농민들의 반봉건적인 투쟁에서 항일 구국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근대적인 민족의식의 태동을 의미하고, 또 그 명맥이 그 후에 의병의 대일항전으로 이어졌다.(한우근

저, 『교양국사총서』 19권. 1976)

다급해진 일본군은 정찰대를 보내고 실상을 점검하여 서부 경남 일대가 동학군 수중에 들어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본군 남부병참감은 엔다 중위와 스즈끼 대위에게 각각 2대 소대와 1개 중대를 이끌고 9월 23일 24일 하동 후방공격을 준비합니다.

영호도회소의 영호남 동학농민혁명군은 진주성을 무혈입성 후 9월 29일 마산포에서 스즈끼 소대와 첫 교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서부 경남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운 최초의 전투입니다. 뒤이어 송림전투, 섬거역전투, 금오산시루봉전투 고승당산 전투로 일본군의 무기적 열세에 영호동학농민군은 급격히 후퇴 하게 되었습니다.

영호도회소는 광양을 넘어 다시 항일투쟁의 근거지로 남원성과, 흥양읍성,전라좌수영을 최후의 보루로 장기전을 준비하려 하였습니다. 격렬한 전쟁에 임하였으나 무참히 살육당하였고 재차 장흥의 석대뜰에서 또 다시 끈질기게 항쟁하였습니다. 이 자료에는 담지 못한 더 격렬한 전투 등이 아직 올바로 평가되고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영호도회소의 선양 활동

1894년 영호도회소의 역사적 의미는 우리지역 민중자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또 영호남을 연대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선두주자로서 정당한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뒤늦은 후발주자로서 영호남의 동학농민연대가 더 결속하여 1894년이 정신을 계승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해, 하동, 산청을 포함한 경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매년 11월 11일 천도교중앙총부의 지원으로 위령식을 거행하였으며, 2023년 1월 순천에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가 창립되어 광양, 고흥, 순천, 여수, 구례의 동부 6군 회원들이 함께 활동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하동기념사업회의 노력으로 동학 활동 지원 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되었고, 2025년 9월 순천시의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의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영호남을 연대하여 활동하였던 영호도회소의 역사를 추적하기는 상당한 시간과 고단한 노력이 절실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는 2021년 영호도회소 연구를 시작하여 2022년 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창립 후 제1회 학술대회를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순천대인문학술원지원)에서 개최하고, 영호도회소 활동 지

도를 수차례 영호남의 답사를 진행하며, 일부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은 동학강사단을 완성하여 전국의 동학유적지를 답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전남 장흥에서 전국동학농민혁명연대가 결성될 때 핵심적 역할을 주도하였습니다. 또 한 순천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순천의 영호도회소 유네스코기록물 정리를 1차 완성하여 전시회와 보고대회를 하였습니다.

2025년 장흥동학혁명 무명농민군 1699기 묘역의 성역화 요청을 전남도청문화유산과에 제안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연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22일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전남 독립운동의 기점인 영호도회소 활동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 장흥, 장성, 무안, 함평, 순천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서부경남기념업회 남해, 하동, 산청과 연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을 이미 동학농민혁명 이전의 동학사상으로 공부하고 지향하며 역사적 공간과 인물을 조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 순천은 영호남의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로 재평가 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4. 몇 가지 질문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며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영호도회소의 사회학 기억의 관점에서 지역을 뛰어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현재는 각 지역과 기념식을 교류하며 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 사회적 역할은 무엇으로 준비하는 것이 영호도회소 중심의 동학농민혁명 역사의 선양에 최선이 될까요?

둘째, 연대를 통한 동학농민혁명의 사회적 위상의 재정립을 위해 어떤 관점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끝으로 정호기 교수님의 자료조사 연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

**제2회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 학술대회**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주 제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일 시 : 2025. 9. 16.(화) 14:00~17:30

장 소 : 순천대학교 박물관 시청각실

주 최 :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후 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지 원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발행일 : 2025년 9월 16일

발행처 : 동학농민혁명영호도회소기념사업회

전남 순천시 장천3길 13

발행인 : 이하윤

편집인 : 김명재

편 집 :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